



9

1991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1. 9호

(루게 527)



◆◆◆◆◆◆◆◆ 차 례 ◆◆◆◆◆◆◆◆

오직 우리 식대로 창작하자.....	4
전환의 봄	7
인민이 살기 좋은 나라.....	19
내 나라.....	23
오신 그 자욱.....	24
인류가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	25
9.9 절에 즈음하여 김정일 동지께 드리노라.....	25
《조선의 별》 노래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자고 하시며	26
버들꽃 날리는 기슭에서	28
비 단	28
명제해설	29
우리의 국화-목란	30
당 건설과 활동에서 작가가 노는 역할.....	31
어머니조국이여	36
매 력	37
한생을 당의 작가로	45
내 너를 사랑함은.....	47
민족제일주의가 짙은 시대의 명작	48

대동강반의 밤에	51
물길공사장에서 쓴 일기	52
하얀 오리떼 하얀 두루미떼	64
지식인문제의 빛나는 해결에 대한 예술적형상화.....	65
성스러운 교단우에서	71
동명왕릉에서.....	75
우표수집책을 펼치고	76
옛초소를 지나며	78
한 영예군인의 모습앞에서	79
송도원아, 나와 좀 이야기하자	80

오직 우리 식대로 창작하자

최근 우리 당에서는 문학예술작품을 우리 식대로 창작할데 대하여 강조하고있다.

우리 당이 밝혀준대로 우리 식대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하는것은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고 빛내이며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옹호고수하는데 이바지해야 하는 우리 문학예술의 시대적사명을 놓고 볼 때 매우 절박한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악랄한 반사회주의적책동과 이에 편승하는 반동적인 문학예술은 지금 사회주의를 헐뜯고 제국주의자들을 찬양하는데로 나가고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세의 파동과 격동 속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빛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기치가 계속 힘있게 나래치고있으며 승승장구하고있다. 또한 우리의 문학예술은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튼튼히 고수하고 빛내이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필승불패인 우리 사회주의제도의 위력과 이에 대한 우리 문학예술의 드팀없는 복무성은 모든것을 우리 식대로 하고있는데 그 무진장한 원천을 두고 있다.

우리 식대로 창작하는것, 이것은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지상의 요구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서의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본분을 다하기 위한 근본문제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생명으로 하고 우리 식대로 창작하는 작가만이 당의 참다운 협력군, 영원한 동행자로 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예술작품을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비위에 맞게 우리 식대로 창작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문학예술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문학작품이 바로 다름아닌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수행에 철저히 이바지하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정서와 비위에 맞게 창작되고있는 여기에 우리 문학의 본질적특성과 비할바 없는 우월성이 있다.

우리 문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여가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힘있

는 무기로 되고있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사상미학적 감화력을 가지고있으며 사람들을 투쟁과 위훈으로 부르는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우리 식대로 창작할데 대한 당의 주체적문제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작가들은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고 우리 인민의 사상정서와 비위에 맞는 문학작품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배양시키며 독특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당과 수령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을 비롯하여 우리 당이 의도하고 해결하려는 문제들을 민감하고 투철하게 반영한 소설, 시, 아동문학, 극작품들은 사람들의 사상정신생활에 커다란 작용을 하고있다. 최근에만 하여도 장시 《인민은 말한다》, 《우리의 궁지》, 《하나의 대가정》을 비롯하여 가사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젊음을 드리고싶어》, 《마음도 하나》 등 수많은 명작들을 창작하여 우리 인민들에 대한 충실성교양과 애국주의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오늘 사람들속에서 사랑을 받으며 읽히워지고 불리워지고있는 작품들은 모두다 우리 식대로 창작할데 대한 당의 문제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나온 작품들이다. 우리 식대로 창작할 때 명실공히 우리 혁명의 리익에 맞고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는 명작을 쓸수 있다는것은 생활을 통하여 확증된 진리이다.

현시기 우리 식대로 창작할데 대한 당의 문제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작품의 사상적대를 똑바로 튼튼히 세우는것이다.

작품의 사상적대를 똑바로 세우는 문제는 우리 작가들의 창작에서 가장 선차적인 요구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사상적대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형상적기교를 부려 예술적으로 다듬어진 작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문학작품은 고상한 사상성과 높은 예술성이 결합될 때라야 현실적으로 의의있는것으로 될수 있다.

작품의 사상적대를 똑바로 세우는 문제는 최근 일부 작품들에서 사상적지향성과 문제성이 명백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고있는 실태로부터 더욱 절박하게 나서는 창작실천적요구이다.

최근에 발표된 일부 조국통일주체의 작품들에서는 우리 조국을 둘로 갈라놓고 우리 인민에게 분열의 고통을 강요하고있는 근본원흉인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민족적분노와 중요성을 강하게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지엽적인 문제들에 형상의 주목

을 돌리는것과 같은 편향이 나타나고있다.

일부 소설들에서는 남조선현실을 반영하면서도 근 반세기동안이나 우리 조국 남반부를 강점하고 식민지통치를 감행하면서 남조선은 핵전초기지로 전변시킨 미제침략자들의 만행을 폭로단죄하고 놈들을 몰아내기 위한데로 사상적인 대를 튼튼히 세우고 형상조직을 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생활을 보여주는데 그치고마는 경우들이 있다. 특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고 미국놈들을 남조선에서 내쫓기 위하여 항쟁의 거리에서 피흘리며 싸우고있는 주인공들을 정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분렬로 인한 인정적인 설움이나 고통을 보여주는 주인공들을 그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있다. 물론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렬로 인하여 혈육들이 갈라져 생사여부조차 모르고있는 비극적인 현상이 많은것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여 분렬의 아픔과 고통만을 보여주는데 그치고 이러한 비극을 강요하고있는 미제와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셔 버리고 통일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그러한 작품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창작에서 특별히 류의해야 할 문제는 조국통일주제의 작품들에서 혈육들이 갈라졌다가 해외를 걸쳐 기구하게 상봉하는것과 같은 식으로 통일의 절박함을 강조하는 작품들이 편향적으로 많이 나오고있는것이다. 물론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적인 여러가지 운동들이 활발해지고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고있는 현실적조건에서 이러한 생활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것은 있을수 있는 현상이다. 문제는 갈라졌던 부모처자, 형제자매들이 기구한 운명의 길을 걸쳐 상봉하게 되는 생활에 많이 취중하고있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혈육들을 갈라놓은 원흉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증오감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안락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기 위한 투쟁으로 사람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지 못하는데 있는것이다.

지금 일부 조국통일주제의 시작품들에서도 통일지향적인 사상이 뚜렷하지 못하고 분렬로 인하여 체험되는 비극적인 감정만을 노래하는데 그치거나 통일이여 어서 오라는 식으로 피동적인 자세에서 조국통일을 바라는 정도의 감정을 노래하는데 머물고있는 편향이 나타나고있다. 한편의 시로써 천만자루의 장점을 대신할수 있는 우리의 시가는 웅당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놈들의 범죄를 온 세상에 폭로단죄하는 준엄한 론고장으로, 철추로 되여야 하며 조국통일위업으로 전민족을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기수, 전진의 나팔수로 되여야 한다.

우리 문학은 어떤 생활, 어떤 문제를 취급하든지

간에 사상적지향성이 명백한것으로 특징적이며 또 이것으로 하여 사상정서적감화력이 큰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문학작품창작에서 사상적대를 똑바로 세우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우리의 작품들이 당정책적요구를 철저히 구현한 우리 식의 작품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

오직 우리 식으로 창작할데 대한 주체적문제사상을 구현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또한 모든 형상수법을 우리 인민의 미감과 정서에 맞게 건전하게 탐구하고 혁신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이다.

우리 당은 작가들로 하여금 그 어떤 바람이 불건 절대로 남의 풍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것을 주체의 관점에서 보고 주체적립장에서 창작할데 대하여 시종일관 강조하여왔다.

당의 주체적문제사상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우리 작가들은 창작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이색적인 요소도 철저히 경계하고 극복하면서 형상수법도 우리 인민의 미감과 정서에 맞게 적극 탐구하면서 우리의 문학예술을 건전하게 발전시켜왔다.

우리는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우리 문학의 혁명적순결성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고 작품창작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이색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제때에 된불을 걸고 투쟁을 벌려 철저히 극복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인 절박한 요구의 견지에서 우리는 최근 일부 작품들에서 나타나고있는 우리 식이 아닌 형상수법에 대하여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을수 없다. 지금 일부 작품들에서는 작품이 제기한 문제를 형상적으로 해명하는것과는 특별한 의의가 없이 1인칭으로 묘사를 했다가 또 3인칭으로 바꾸면서 묘사시점을 분산시키고 독자들을 혼란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고있다. 또 어떤 작품들에서는 특별한 예술적효과가 없이 입말체로 문장을 짜면서 《멋》을 부리려하는 경향도 나타나고있다. 그리고 일부 시작품들에서도 쓸데없이 한 단어씩 찢라서 행을 바꾸거나 분절이 없이 통짜로 엮어나가는것과 같은 현상도 나타나고있다.

창작에서 형상수법은 다양하게 탐구되여야 하며 매개 작가들은 작품에서 제나름의 개성적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것들은 작품이 제기한 문제를 예술적으로 더 효과있게 돈구어주고 사람들에게 미학적으로 감수되고 사상정서적감흥을 불러일으키는것으로 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근본목적에 저촉되는 그 어떤 《재간》이나 《수법》 같은것은 아무리 기발한것이라 하여도 전혀 쓸모가 없다. 이러한것이 조장되면 기교일면에 치우치거나 형식일면에 기울어져 나중에는 돌이킬수 없는 후파를 가져오게 된다.

우리는 창작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그것이 극히 부분적으로 나타나고있는 요소

적인 현상이라 하더라도 심화하여보고 철저히 극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작품들에서 작품의 생리와는 잘 어울리지 않게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지루하게 라렬하고있는데 대해서도 주의를 돌려야 한다.

작품에서 심리묘사를 하는것은 주인공들의 내면세계를 통하여 그의 성격적면모를 진실하게 보여주어 작품이 제기한 문제를 옹게 해명하자는데 근본목적이 있다. 필요없이 심리의 움직임을 장황하게 보여주어 그 인물의 성격적특징도 똑바로 파악할수 없게 하고 작품의 주장도 흐리터분하게 하는것과 같은 심리묘사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것이다. 이러한 현상도 역시 우리 식 창작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것이며 그것이 조장되면 매우 위험한 이색적인것으로 된다는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우리는 형상에서 언제나 새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우리 인민의 미감에 맞게 혁신적으로 발전시켜 우리 문학을 다양하게 꽃피워야 하지만 우리 식이 아닌 그 어떤 이색적인것에 마치도 《새로운것》이 있는듯이 생각하면서 형상의 생리에 맞지 않게 서툴게 창작에 《도입》하려는것과 같은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우리 식으로 창작할데 대한 당의 방침관철에서 현시기 중요한 문제는 다음으로 창작에서 생활을 미화분식하지 않는것이다. 생활에 대한 과장과 미화분식은 형상을 비진실하게 만드는 중요한 질곡의 하나이다. 과장과 미화분식은 생활의 본질을 형상적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우리 문학의 미학적요구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우리는 현실에 대한 미화분식과 과장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앨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높이 받들고 지난 기간 창작에서 나타나고있는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강한 투쟁을 벌려 제때에 극복하였다.

그런데 최근에는 자본주의현실과 남조선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에서 미화분식하는 현상이 편향적으로 나타나고있다.

일부 작품들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썩고병든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적면모를 예리하게 발가내고 진실하게 보여줄 대신에 근로인민대중의 피땀을 짜내어 부귀와 영화, 사치와 부패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착취계급들의 생활을 일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자본주의사회의 진면모를 옹게 리해할수 없게 하고있다.

우리는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면서 쓸데없이 생활을 요란하게 미화분식하는것과 같은 현상을 철저히 근절하고 부익부, 빈익빈의 썩고 병든 자본주의사회의 본질을 예리하게 발가내놓는 립장과

관점에서 생활을 그려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이 사람들에게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얼마나 옹으며 자본주의사회가 얼마나 반동적인가 하는것을 옹게 인식시켜줄수 있으며 자본주의제도를 반대하고 사회주의기치를 끝까지 옹고고수할수 있도록 사람들을 교양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우리 식의 문학작품을 성과적으로 창작하기 위하여 나서는 문제는 또한 문화어를 잘 살려쓰도록하는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문학은 언어의 예술이다. 언어를 통하여 인간생활의 모든 부문을 자유분방하게 그려내는 문학에 있어서 언어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문학작품은 생활과 인간을 진실하게 보여주어 사람들에게 참다운 삶의 보람과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에 해답을 줌으로써 투쟁의 길을 옹게 가르쳐주는것을 근본목적으로 하지만 또한 사람들에게 옹은 언어적관습을 가지도록 하는데도 큰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에서는 문화어를 잘 써야 한다.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방침은 문학작품창작에서 문화어를 옹게 살려쓸데 대하여 일관하게 강조하고있다.

문학작품창작에서 문화어를 잘 살려쓰는것이 절실한 창작실천적요구로 나서는것은 최근 범민족적인 조국통일을 위한 여러가지 축제들과 예술공연들이 널리 진행되고있는 조건에서 더욱 긴절한 문제로 제기된다. 해외에서 살고있던 교포들과 남조선에서 살던 사람들은 우리 문화어를 잘 모르고있다. 이런 조건에서 문학작품을 통하여 문화어를 따라배우도록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 작가들은 우리 인민의 현실생활을 반영한 작품에서는 물론 해외동포들의 생활이나 남조선현실을 반영한 작품들에서 문화어를 잘 살려씀으로써 우리 인민들과 특히 해외동포들에게 우리 문화어를 정확히 습득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오직 우리 식대로 문학작품을 창작하는것은 현시기 당사상전선의 초병들인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서 당과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기 위한 근본요구이다.

모든 작가들은 오직 주체적문예사상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 우리 식대로 창작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서의 자기의 숭고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나가야 할것이다.

전환의 봄

백은팔

1

어제는 때없이 들이닥친 바람이 누렇게 익은 벼이삭들을 사정없이 흔들어놓더니 오늘아침엔 하얗게 서리가 내렸다.

일찍 내린 서리, 낮아진 기온, 찬바람, 근래에 보기 드문 변덕스러운 날씨였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자 날씨는 한결 따뜻해지고 싸늘하던 기온은 어디론가 사라졌다.

형제봉정수리에 높다랗게 서있는 기상관측소 안테나줄이 일광에 번뜩이며 강렬한 빛을 뿌렸다.

맑게 트인 푸른 하늘에는 솜같이 하얀 뭉치구름들이 뚱뚱 떠서 움직이듯마듯 서서히 꿈틀거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형제봉 기슭까지 아득하게 물결쳐간 벼바다를 한눈에 바라보시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었다. 생각깊으신 걸음을 옮기시는 그이의 회색코트자락이 이따금씩 벼이파리를 슬치며 사각사각 소리를 냈다.

육종학계의 권위있는 경험자이며 농업과학원 중립분원연구소 소장인 정필수는 수령님 바로 뒤에서 걸었다.

일행이 단출한데도 있었지만 수령님께서 무엇인가 자주 물으셨기때문에 동행한 일꾼들이 그의 등을 자주 앞으로 떠밀어주곤하였다.

이윽고 노란 시험표말이 서있는 논머리에 이르신 수령님께서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발밑에 잠기는 벼이삭 하나를 뽑아드시었다. 얼핏 보아도 백여알은 잘 달렸음직한 벼이삭을 손바닥우에 올려놓으시고 한참이나 그 무게를 가늠해보시던 수령님의 안색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였다. 잘 여문 벼알들중에 설익은 파란 알과 쪽정이 몇알이 섞여있었던것이다.

《음- 여기도 형편은 마찬가지군. 하긴 평양이남이 그러니까. 여기 중간지대야 더할수 있지.》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며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었다.

《필수동무, 08호를 심은데도 이런 알들이 더러 있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뽑아드신 벼이삭을 흔드시며 조용히 물으시었다.

08호란 정필수가 10여년간 고심하여 연구해낸 생육기일이 짧은 올종다수확품종으로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시험생산에 들어간 벼이다.

정필수는 이내 대답을 드리지 못하였다. 08호는 올해에도 날씨관계로 작황이 그리 시원치 않았기때문이다. 그래서 방금전까지도 논머리에 쭈그리고앉아 잘 여물지 않은 벼이삭을 그러쥐고 실패의 쓰린

가슴만 안타깝게 쥐어뜯던 정필수였다.

《어디, 08호포전엘 좀 가봅시다.》

필수가 머뭇거리자 수령님께서 먼저 자리를 뜨시고 앞으로 걸어나가시었다.

새 그물을 둘러친 논머리에서 걸음을 멈추신 수령님께서서는 고개숙인 벼이삭들을 한손에 휘어잡으시었다.

《여긴 훨씬 나은것 같구만. 그래 몇톤이나 걸림죽 합니까?》

《아직 예상수확고를 판정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럼 아예 평뜨기를 해봅시다.》

수령님께서서는 논판에 성큼 내려서시여 허리를 치는 벼이삭들을 량옆으로 갈라놓으시며 벼알이 떨어질세라 조심히 걸어들어가시었다.

비교적 잘되었다고 짐작되시는곳에 이르신 수령님께서서는 아름이 벌게 아지를 친 벼포기를 밑에서부터 주욱 훑어올리시며 키를 대증해보시었다.

《대도 실하고 키도 이만하면 알맞춤하군.》

정필수는 그렇다고 말씀드렸다.

곧 평뜨기가 시작되었다. 모두 달라붙어 벼를 베고 이삭을 훑었다.

머리우에서는 가을을 즐기는 계절조들이 유유히 감돌고 이따금씩 불어오는 설렁한 바람이 벼이삭을 와스스 흔들어놓았다.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저울질하는 정필수를 눈여겨보시던 수령님께서 궁금하신듯 물으시었다.

《얼마입니까?》

《두키로 이백륙십십입니다.》

《가만있자. 그러면 얼마고 하니...》

그이께서는 정당톤수를 암산으로 제격 산출하시었다.

《여섯톤 팔백이구만.》

말씀을 끊으시고 한동안 생각에 잠기셨던 수령님께서서는 큰길쪽으로 걸어나가시며 필수에게 의논조로 물으시었다.

《필수동무, 08호가 여섯톤 팔백이면 수확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내 생각엔 적어도 여라문톤은 걸려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정필수는 고개를 푹 떨구었다.

저울을 든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제가 일을 쓰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벼알이 잘 여물지 않은게 어떻게 동무의 잘못이겠습니까. 여기

엔 퍼지 못할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 고정된 사람이 말끝마다 제 잘못이라고만 하니 측은한 생각이 드시어 얼른 화제를 돌리시었다.

《사실 최근에 와서 우리 나라 기후엔 급작스런 변동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뭘 좀 느껴지는게 없습니까?》

《예, 우리도 작금년사이 시험하는 과정에 종종 느꼈지만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봄이 여방없이 늦어지고 대신 가을이 일찍 찾아옵니다. 그런가하면 겨울과 봄엔 몹시 가물다가 여름에는 때없이 폭우가 쏟아지고 가을에는 또 된서리가 사정없이 내립니다.》

《그것 보십시오. 확실히 근래에 와서 우리 나라 날씨엔 몹시 변덕스럽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이러한 일기변동이 올해엔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는것을 절감하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계시었다.

그래서 오늘 오전내내 황해남북도의 여러 농촌들을 돌아보시고 이리로 곧장 현지도의 길을 잇대여오신 수령님이시었다.

《우리는 급격히 달라지고있는 기후변화가 농업생산에 더 큰 후과를 미치기전에 사전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농법을 창조해야 합니다. 필수동무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좀 생각해본게 없습니까?》

(그러니 08호의 시험결과만 알아보시기 위해서 오신게 아니구나!)

《예, 봄이 늦어지고 가을이 빨리 오는 조건에서 기본은 농작물의 생육기일을 충분히 보장해주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믿음에 찬 어조로 긍정해주시며 정필수를 바라보시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들은 근년에도 어떻게 하면 농작물의 생육기일을 보충해주겠는가 하는데 방점을 두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중한 대답을 못찾고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니 문제는 그 생육기일에 있단 말이지요?》

《네, 하지만 자연조건은 어쩔수 없다는 생각이 자주 갈마듭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방도가 묘연하다 그말이겠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이렇게 반문하시며 누렇게 물든 별판한끝 어딘가에 시선을 보내셨다가 다시 푸른하늘을 올려다보시었다.

가을을 즐기는 계절조들이 무리를 짓고 허공에서 맴돌다가 쉼-하는 소리를 이끌고 해창강쪽으로 내리쬔지었다.

청명한 가을하늘은 유리알처럼 맑았다.

《그래, 저 하늘의 해라도 한달쯤 잡아둘 생각은 못해봤습니까?》

《...?》

너무도 뜻밖의 물으심이였다.

정필수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서있다가 한참만에야 소심하게 입을 열었다.

《저희들도 그런 기적이라도 있었으면 하고... 그렇지만 그건...》

《한갓 환상에 불과하다 그말이겠지요?》

정필수는 그렇다고 대답하려다가 입을 봉하고 말았다. 한것은 방금 수령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만 한 연구사의 막힌 가슴을 열어주고 창조적령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그런 단순한 의미에서 하신 말씀 같지 않았기때문이었다.

《웁소. 해를 잡아둘 재간이야 없지. 그렇지만 딱 해를 잡아두어야만 맛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며 중립벌을 휘-돌려보시는 그의 안광에 예지의 빛발이 번뜩이였다. 자연을 정복할 또하나의 중요한 방도라도 잡아챈것 같으시였다.

《필수동무, 우리는 하늘을 길들이고 자연을 정복할 힘이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연구를 거듭합니다. 황포해진 자연앞에서 주저하거나 물러서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농업전선의 전초병인 동무들이 물러서면 온 나라 농업전선이 다 후퇴하게 됩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벼알과 함께 한생을 살아오며 머리가 허해진 정필수의 고뇌어린 청동색얼굴을 자애로운 눈길로 어루만지시였다.

《신심을 잃지 말구 계속 연구하십시오. 아까도 내 얼핏 이야기했지만 예비는 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끊으시고 차있는쪽으로 걸어가시던 수령님께서 문득 멈춰서시였다.

《참, 잊을뻔했습니다. 요즘 순실동무랑 잘 있습니까?》

순실이란 정필수의 안해이다.

《예.》

《그럼 왔던김에 집구경을 좀 하구 가야겠습니다. 제작년에 와보구는 언제부터 들린다들린다 하면서 두 못들렸었는데.》

(아니?)

정필수는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그만 큰소리를 칠뻔하였다. 그는 난감한 표정을 지은채 우두커니 서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그러한 정필수를 찬찬히 살피시였다.

사람들의 감정변화와 심리적움직임에 매우 민감하신 수령님께서서는 왜그런지 안절부절 못하고 서있는 정필수의 거동을 무심히 스쳐보내지 않으셨다.

언제나 단정하게 빔어넘기던 은빛머리칼은 형클

어저 벌에서 일할 때나 연구실에 앉아있을 때나 늘 몸단장이 깨끗하던 정필수같이 않았다.

수령님께서는 그의 정돈되지 않은 자태와 눈언저리에 패인 주름살 그리고 인생의 고뇌가 그속에 다 숨배여있는듯 하얗게 서리가 앉은 머리칼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시고 잔잔히 더듬으시었다.

그의 구부정한 허리와 얼굴전체에 비낀 음영은 단지 연구사업의 실패에서만 생긴것 같지 않으시었다.

벼알에 운명을 걸고 이때까지 말없이 살아오고있는 저 사람의 신변에 무슨 곡절이라도 있는게 아닌가?

《자, 어서 차에 오르시오.》

수령님께서는 차문을 열고 정필수의 잔등을 가볍게 떠미시었다.

정필수네 집은 형제산변두리의 나지막한 언덕을 등지고 남향반이에 자리잡고있었다.

천연스레트를 알뜰하게 다듬어 지붕을 엮은 아담한 문화주택둘레로는 6각벽돌로 쌓은 담장이 빙 돌아갔다.

정원의 실한 나무가지들에는 단풍이 한창 물들었는데 부엌문앞의 몇그루 과일나무엔 사과며 배들이 주렁주렁 열리었다.

집앞에 이르신 수령님께서는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집주변을 한번 휘-돌러보신후 트랙으로 들어서시었다.

마당에 내려앉아 목털을 일궈세우고 구구거리며 돌아가던 여라문마리의 비둘기가 가볍게 풍겨올랐다. 수도가에는 빨래감을 담은 늪버치가 땡그라니 놓여있고 토방우에도 역시 고추를 담은 싸리바구니가 고즈넉이 앉아있었다.

다 익어 꼭지가 무너진 참배 한알이 철썩하고 땅에 떨어졌다.

뒤집을 지시키고 이 모든것을 눈여겨 살피시는 수령님의 미간이 쪼프려드시었다. 어째서 순실동무가 보이지 않는가? 마당에 사람이 들어섰다는것을 알면 벌써 반갑게 달려나왔을 그는 어디에 갔기에 문을 열지 않는가?

랭수에 일년감을 담아가지고 나왔던 그땐 그저 순박한 농촌녀성이기만 하던, 그래서 더 정이 가는 녀성, 그러나 남편의 연구사업의 성실한 길동무로 지성과 도덕을 함께 수양해오며 교양있는 녀성으로 준비된 현숙한 정필수의 안해를 그이께서는 너무도 잘 알고계셨다.

수령님께서는 시험포전에서 남편과 같이 일하는 그를 만나실적마다 동무는 남편의 연구사업에 조금도 불편없게 하는것이 임무라고, 그것이 내가 동무에게 주는 당적분공이라고 말씀하시곤하셨다.

그를 만나실적마다 늘 마음이 즐거우시던 수령님이시었다.

수령님께서는련민의 정이 어린 서운한 기색으로

한참이나 말쑥없이 서계시다가 조용히 물으시었다.

《순실동문 어디로 갔습니까?》

마음을 조이며 벗어친 모자만 주무르던 정필수는 이제 더는 숨길수 없게 되자 솔직하게 말씀드리었다.

《병원에...》

《병원에? 그래 무슨 병으로 앓고있습니까?》

그이께서는 다우쳐 물으시었다.

지난해부터 앓기 시작한 심장병이 심해져서 한달 전 도병원에 입원했다는 필수의 말을 들으신 수령님께서는 노하신 음성으로 되게 나무람하시었다.

《그런걸 난 순실동무가 잘 있다고 하길래 정말 그런가부다 하고 믿었뎡군.》

그이의 갈리신 음성은 몹시 떨리었다.

《난 그래도 동무를 믿고 농사문제를 의논하러구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동무는 아직도 나에게 숨기는 게 있으니... 정말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

정필수가 자기 안해나 가정일의 다반사같은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오직 연구사업에만 몰려있는 진짜배기 과학자라는것을 번연히 알고계시면서도 아들딸들을 다 내보낸후로는 그래도 안해가 있어 생활의 정서가 마를줄 모르던 집에 정작 그 안해가 없는것을 보니 사랑하는 전사에 대한련민의 정을 더욱 금할수 없으시었다.

그 어떤 명에나 사소한 안일도 추구함이 없이 애오라지 당에서 바라는 벼종자연구에 즐거운 생활까지도 고스란히 바쳐오는 이 청렴하고 량심 깨끗한 정필수내외를 무척 아껴오신 수령님이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필수내외를 처음으로 알게 되신것은 해방된 이듬해 여름이였다.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신 아버지수령님께서 멀리 이름없는 한 농촌마을에 나가시여 농사형편을 알아보시고 돌아오시다가 용드레로 물푸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차를 세우시었다.

한낮의 땡벌이 재글재글 내리쬐이는 무더운 날이였다.

《더운데 수고들하십니다.》

수령님께서는 흙탕물이 질적거리는 웅덩이앞으로 걸어가시었다.

《지나가다 물푸는 사람들이 보이길래 잠깐 들렀습니다. 그래 용드레로 물을 퍼서 벼농사를 합니까?》

수령님께서는 황급히 팔소매를 내리우며 인사를 올리는 로인에게 물으시었다.

《예, 이 사람이 어디 가서 벼종자를 조금 구해온것을 자꾸 심자구 조르길래 쫓긴 했지만 원체 논고장이 못되는곳이여서 제구실을 할것 같지 못합니다.》

로인은 용드레를 내려다보며 허거프게 웃었다.

《그렇습니까.》

수령님께서는 머리를 끄덕이시며 청년쪽으로 돌

아서시였다.

《그래, 동무는 어떻게 이런 좋은 생각을 다 했습니까?》

청년은 물묻은 손만 옷섶에 문대길뿐 대답올리기를 몹시 주저하였다.

첫눈에도 어질어보이는 청년의 순박한 눈길이 발끝으로 떨어진다.

로인이 망설이고 서있는 청년을 대신하여 그의 집안 태력과 모를 꽃기까지의 사연을 자초지종 아뢰었다.

중립벌황토땅에 태를 묻은 정필수는 일찌기 어머니를 여의었다. 그러나 그는 부지런한 아버지덕분에 소학교를 마칠수 있었고 머리가 남달리 좋았던 탓으로 농업학교에까지 들어갈수 있었다. 하지만 학비를 잇대기엔 밀천이 너무 각박했던 빈약한 살림은 정필수로 하여금 학교를 계속 다닐수 없게 하였다. 이리하여 과학자가 되려던 그의 꿈은 순간에 부풀었던 물거품마냥 일시에 꺼지고말았다.

밤낮으로 일한탓에 골병이 든 아버지마저 원한 많은 땅에 묻히고말았다.

그로부터 2년후 하늘땅을 진감하는 만세소리가 온 강산에 메아리쳐왔다.

해방이라는 이 희한한 소식은 메말랐던 정필수의 가슴에 소생의 생명수를 콕콕 끼어주었다. 그는 장군님께서 땅을 주신 오늘에야 무엇이 두려워 제마음대로 농사를 못짓겠는가. 이런 강심을 먹고 벼종자를 구해다 모를 부었다. 금년에 시험삼아 모를 꽃아보고 내년부터 이 벼들방천아근을 몽땅 논으로 풀 작정이였다.

《아주 강한 생각을 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운데 서서 이러지 말고 어서 저 그늘밑으로 가자고 이르시며 풀대들이 무성한 버드나무 있는데로 걸어가시였다.

풀밭에 허물없이 앉으신 그이께서는 중립벌 농민들의 생활형편에 대하여, 우리 나라 농촌의 앞날에 대하여, 지난날 공부를 한 지식인들이 해야할 일에 대하여 진지하게 묻고 대답하시며 긴시간 말씀을 하시였다. 그리고 중립벌농민들의 소원대로 이 지대를 모두 논으로 풀자고 원대한 구상도 펼쳐주시였다.

이때 형제봉비탈밭에서 조밭김을 매던 성길로인의 둘째딸 김순실이가 랑수에 일년감을 담아가지고 나왔다.

《제 딸입니다.》

김순실은 수집은 얼굴을 공손히 숙여 인사를 올리고 그중 크고 잘 익은 일년감을 골라 수령님께 정중히 드리였다.

《그렇습니까.》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일년감빛이 물들어 더 빨개진 순실의 납작한 이마를 대견스럽게 바라보시였다. 그러시면서 농촌에 나와

이렇게 일년감을 먹어보니 인상이 아주 새롭다고 하시며 쾌활하게 웃으시였다.

어느덧 마음이 현현해진 성길로인은 부모없이 로총각으로 혼자 살긴 해도 장차 무슨 마련을 단단히 불 똑똑한 필수에게 자기 딸을 아예 맡겼노라고 자랑까지 했다.

얼굴이 활짝 붉어진 김순실은 얼른 돌아서며 고름끝을 매만지였다.

《그것 참 잘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그들의 앞날을 축하해주시였다.

이윽하여 해집작을 해보신 수령님께서는 자리에 서 일어서시였다.

그이께서는 정필수와 성길로인이 서늘해진 다음에 떠나시라고 몇번이고 간청하였지만 그들의 권유를 굳이 사양하시고 풀밭을 밟으며 성큼성큼 걸어 나가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신작로까지 따라나오는 정필수의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고 동무는 본래부터 품은 희망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훌륭한 농업과학연구사가 되라고 하시며 지금부터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연구사업에 필요한 준비들을 미미미리 잘해두어야 한다고 간곡하게 가르치시였다.

《사람이 그래도 세상에 한번 태여났다가 인민을 위해 무엇인가 의의있는 일을 하나 해놓아야 이 세상을 산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후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후대교육에 전념하던 정필수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다시 받고 과학연구기관으로 소환되였다.

《필수동무. 이제부터 동무는 우리 나라 기후풍토에 맞는 새로운 벼종자를 연구하여야 하겠습니까. 난 동무가 이 보람찬 사업에서 꼭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평생을 두고 잊을수 없는 수령님의 이 크나큰 믿음을 심장속에 받아안은 정필수는 연구사의 첫걸음을 떼기 시작한 그날부터 수령님의 뜻을 필생의 리정표로 삼고 한갓 벼종자만이 아닌 자기의 마음까지도 소중히 묻고 가꾸어 수집중에 달하는 벼종자를 연구해냈다....

《사람이 왜 그렇게 속이는 법이 어디 있는가말이요. 아마 동무는 나를 안심시키느라고 그런것 같은데 그런다고 내 마음이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까.》

인간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수령님이 아니시고는 도저히 하실수 없는 애정넘친 질책이였다.

필수는 머리를 푹 떨구고 묵묵히 서있었다. 불시에 눈물이 핑그르르 돌며 뜨거운것이 소용돌이쳤다. 슬펐던 지난날까지 한꺼번에 떠오르며 목이 짹 메여왔다.

허리를 굽히시고 꼭지가 무너져 떨어진 배알을 천천히 집어드신 수령님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마당

가를 오래오래 거니시었다.

수령님께서는 어디론가 멀리 사라졌다가 다시 날아와 지붕우에 내려앉은 비둘기떼를 올려다보시며 말씀을 바꾸시었다.

《그러니 때식도 동무자신이 끓이겠습니까?》

정필수는 솟구치는 눈물을 몰래 훔치고 때식은 이웃집 할머니가 끓여주고 빨래같은것은 연구소처녀들이 자주 해줘서 아무런 불편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음-》

수령님께서는 마음이 좋지 않으시여 테가 짧은 안경을 자주 누르시며 녀성의 섬세한 손길이 기다리는 이 집의 고갈된 생활전모를 더듬으시는듯 주위를 자꾸 둘러보시었다.

《은희도 인젠 대학을 졸업했겠는데.》

은희란 종합대학 지리학부 기상학과를 졸업하고 어느 지방 기상관측소에 가있는 정필수의 막내딸이었다.

은희는 어렸을 때 시험포전에서 일하는 아버지를 따라나와 성화도 먹이고 심부름도 곧잘 들어주곤 하였다.

어느 해인가 수령님께서 시험포전에 들리셨다가 은희의 머리를 쓰다듬어주시며 참 기록한 애라고 칭찬해주신 일이 있다. 그때 수령님께서 정필수더러 눈이 쌍까풀지고 귀엽게 생긴 은희를 장차 어느 학교에 보내여 공부시키겠는가고 물으시었다. 정필수는 용전하고 말수 적은 제 어머니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고 개방적이고 불임성이 좋은 딸을 아무래도 예능계통이나 상업계통에 보내야겠다고 말씀올렸다.

《은희는 어디에 가겠답니까?》

《아, 글썄 저애는 이다음 커서 아버지 일을 도울수 있는 그런 부문에 가서 공부하겠다고 곧장 우깁니다.》

《은희가 생각을 참 잘했습니다. 내 생각에도 그 의 희망대로 해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은희는 중학교를 마친후 수령님의 배려로 **김일성**종합대학 지리학부 기상학과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영계관측소에 가 일하고있습니다.》

《영계라면 여기서 기차로도 하루품은 걸리는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 보시오. 사람이 어찌면 그렇게두 가정생활에 무관심합니까.》

수령님께서는 안색을 흐리시고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다심한 목소리로 나직이 말씀하시었다.

《딸을 이쪽으로 데려오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 중림지구에도 기상관측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구 손실동무도 빨리 중앙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수령님께서는 떠나시기 몹시 아쉬운듯 석양이 비껴내린 추녀끝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대문밖으로 걸어나가시었다.

그이께서는 평양에 도착하신 즉시로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김순실을 중앙병원에 데려다 집중적인 치료를 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었고 은희도 인차 소환하게 하시었다.

2

소한머리에 계속되던 강추위는 대만에 접어들어서 한풀 꺾이였으나 바람은 여전히 잦을줄 몰랐다. 오늘도 낮이 기울자 더욱 세차여진 바람은 질검불이며 락엽이며를 모두 걷어안고 형제봉으로 옥옥 치달아올랐다. 그바람에 기상관측소의 풍차는 야단스레 몸을 흔들며 쾌속도로 돌아갔다.

온실에 들어선 정필수는 피곤이 느껴지는 눈을 푹바로 뜨고 발아시험을 하기 위하여 심어놓은 질그릇들을 하나하나 살펴나갔다. 바깥날씨가 차서인지 온실안은 별로 설렁한것 같았다. 그러나 갖가지 벼종자를 심은 그릇들에는 새싹이 예쁘장하니 돌아올랐다. 어떤 그릇에는 벌써 퍼런색이 돌면서 한뼘씩이나 자랐다. 온습도계와 시험그릇들을 번갈아보며 세심히 관찰해나가던 정필수는 큰화분앞에서 걸음을 푹 멈추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눈앞에는 넘적한 이파리를 탐스럽게 드리우고 실한 벼포기들이 곳곳이 서있었지만 과연 저것이 봄날씨가 찬 대기온도에 견디여내겠는가하는것이 자꾸만 우려되었다. 봄에 내리는 서리는 또 어떻게 견디여낼것인가?

어버이수령님께서 다녀가신 그날부터 단 하루도 온실을 비우지 않고 탐구와 모색을 거듭해오는 정필수는 아직 이렇다할 기술적테라 하나 잡지 못하고있었다.

물론 적산온도가 떨어지고 일조률이 고르지 못한 조건에서 미량원소와 부식토로 작물의 생육적산온도를 어느 정도 보충해줄수 있지만 그것으로써는 10여일이나 모자라는 08호의 생육기일을 보장하기엔 너무도 불충분하였다. 더우기 수령님께서 농업생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하시며 봄에 예비가 있다는것을 특별히 강조하시었다. 그러고보면 자기가 지금 하고있는 시험은 너무도 소극적이고 실험실적인 타산에 불과하였다. 결국 08호는 성공의 열매를 맺지 못한채 서리를 맞고 쓰러진단말인가?

(무슨 방도가 없을까?)

필수는 정말 하늘의 해라도 한달쯤 잡아두었으면 얼마나 좋으랴싶은 천진한 생각도 해보았다. 어제

는 하도 답답하여 딸 은희와 안해를 앉혀놓고 자기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쳐보이기까지 하여다.

그러나 농업과학에 지식이 없는 딸은 오히려 올해 봄날씨가 차질гүй이 예견되니 무슨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겠다면서 답답한 가슴을 더 막막하게만 만들어주었고 안해는 또 그대로 요즘 당신의 얼굴이 몹시 축났으니 몸을 돌봐야겠다고 지청구를 했다.

정필수는 오늘아침에 기술협의회를 열었다. 오전 내내 계속된 기술협의회 역시 아무런 성과도 보지 못한채 끝나고말았다.

자연의 제한성을 극복할만한 결정적대책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농작물의 생육기일을 이제 어떻게 더 연장하겠는가 하는것이 대체적인 견해들이었다. 필수도 그것을 일면적인 견해라고 탓하지 못하였다.

연구사들은 이미 흩어진지 오래고 방안에 홀로 남은 정필수는 갈증에 타는 입술을 혀끝으로 축이며 맥없이 서성거리다가 온실로 나온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의 가슴은 여전히 밀폐된 방안처럼 답답하고 전망은 아득하기만하였다.

온실에서 나와 실험실에 다시 들어간 그는 당반우에서 오랜 시험일지들을 내리워 혹시 그 어떤 묘안의 실머리라도 붙들어볼 셈으로 한장한장 번지였다. 그러나 그의 눈앞에 뚜렷이 밝혀오는것은 이미 현실성을 상실한 3년전의 낡은 토양분석자료들뿐이었다. 그것이라도 새로 작성하여 시비체계의 과학성이나마 빈틈없이 해놓아야겠다는 생각에 미친 정필수는 문을 열고 밖에 나섰다.

색이 바랜 혈령한 모자를 폭 눌러쓰고 터벅터벅 걸음을 옮기는 그의 어깨우엔 마치 향방없이 길을 떠난 나그네마냥 흡족한 배낭 하나가 걸려있었다. 배낭아구리엔 조꼬만 삽자루가 목을 빼죽이 내밀었는데 필수는 아까 방을 나설 때 말코지에 걸린 그 배낭을 자기 손으로 벗겨지고 나왔다는것조차 의식하지 못한채 걸고있었다.

그는 이따금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통수를 텅텅 두드리었다. 속이 텅 빈것 같았다.

《아!》

자기 지식의 빈곤과 힘의 무력함을 통탄함인지 그의 두툼한 입술사이로는 신음소리같은것이 자꾸만 새어나왔다.

믿음을 저바린것 같은 쓰라린 고통과 안타까운 마음이 온몸에 파고들었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현미경과 천평, 아미노산분석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실험설비들을 보내주시였고 지난해 가을엔 시험포전에 참새들이 많이 날아든다는것을 아시고 럽총과 새그물, 지어 길들인 새매까지 손수 마련하여 보내주시었다. 4년전 8월 어느날, 시험포전을 찾으신 수령님께서는 교호를 개량한 벼품종을 보시고 못내 만

족해하시며 그 벼종자에 연구사의 이름을 붙이도록 영광넘친 배려를 안겨주시였고 재작년 여름에는 비오는 진창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친히 논머리에 나오시여 논두렁에 앉아 벼의 수정을 관찰하는 자기의 어깨우에 우산을 펼쳐드시고 오래도록 서계시기도 하셨다.

버림받았던 녀속에 삶의 의의를 싹틔워주시고 공허한 마음속에 정신적지주를 세워주시였을뿐 아니라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보호해주시면서 값높은 생의 길을 영원히 빛나게 걸어가라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수령님께 내 무슨 말씀을 드린단 말인가.

인간의 도의도 지킬줄 모르는 네가 무슨 과학자냐? 생각할수록 연구사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있다는 부끄러움때문에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심한 가책속에 가슴저미는 아픈 마음을 남몰래 달래며 수로둑우에 올라서던 정필수는 난데없는 자동차경적소리에 권득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돌리었다.

하림협동농장쪽으로 넘어가는 형제봉 기슭으로 파란색 승용차 한대가 내려오고있었다. 동체우에 먼지가 뽀얗게 올라앉은 승용차는 어느새 필수앞에 까지 왔다. 주춤거리던 정필수는 옷매무시를 다듬으며 몸가짐을 바로하였다. 지나갈듯하던 차는 길 한복판에서 급히 멎었다.

《거기 서있는분이 필수선생이 아닙니까?》

벌써 차문이 열림과 동시에 청이 굵은 목소리가 울리었다.

《아니?》

정필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있다가 허둥거리며 차 있는데로 달려갔다. 지난 가을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여기 중립벌에 나왔던 일군이 필수를 향하여 마주 걸어왔다. 가까이 다가선 그는 정필수의 손을 힘있게 그러잡고 먼저 인사를 하였다.

《수령님께서 보내셔서 왔습니다.》

《예?!》

필수는 그 일군의 손을 놓지 못한채 멍하니 지켜 보기만하였다.

《현지지도에서 돌아오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전화를 거시다가 선생님이 벌에 간간것 같다고 하시며 내려가 만나보고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서는 필수선생이 노상 벌에 나가 사는모양인데 건강이랑 어떤지 모르겠다고 몹시 녀려하셨습니다.》

《예-!》

필수의 심장은 걱정으로 들먹이기 시작하였다. 그 일군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타고 흘러드는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은정에 목이 메여 저절로 눈물이 솟구쳐올랐다. 어느새 그의 두눈에 고였던 물방울이 안경알밑으로 소리없이 구울려내렸다.

그 일군은 흥분한 정필수더러 진정하라고 권하고

수령님의 말씀을 정중히 전달하였다.

며칠전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중간지대의 어느 한 협동농장을 찾으셨는데 그 협동농장에서는 지난해보다 한톤이상이나 알곡을 더 증수하였다. 비결은 다른데 있는것이 아니라 모내기를 그 전해에 비하여 앞당겨낸데 있었다. 이 귀중한 경험을 필수동무가 직접 가보고 연구사업에 참고하는게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렇습니까?》

정필수의 가슴은 울렁거리었다. 그는 설레이는 마음을 그대로 안고 승용차에 올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권유를 전달받고 룡산협동농장을 다녀온 정필수는 날것 같은 기분에 휩싸여있었다.

자기들이 것처럼 우려하던 문제들이 대체로 풀린 것이었다. 날씨가 찬 조건에서 모판에 씨를 뿌리면 벼종자가 얼지 않고 발아가 제대로 되겠는지도 모를 지금보다 더 일찍 내도 외기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연약한 벼모들이 꽤 견디어내겠는지 걱정하던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이론적인 파악을 못하고있었던것은 아니지만 봄날씨의 변덕이 심하기때문에 실지 체험을 통한 확신은 못가지고있었다.

그런데 룡산협동농장의 경험은 그것을 실천적으로 증명해주었다.

그곳 농장에서는 뿔상모판자리를 찬바람이 덜 미치는 안풍진곳에 정한다음 방풍장을 다른때보다 1미터 더 높이 세우고 거기에 나래를 두겹으로 감싸주었다. 모판안엔 벼짚으로 촘촘히 엮은 중간바람막이바자를 세워주어 벼모가 추위를 타지 않고 등탈없이 자랄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파상도 동서방향으로가 아니라 남북으로 길게 앞힘으로써 하루종일 해빛을 받도록 하였다. 농장원들의 알뜰한 일손씨와 애기다루듯하며 모를 키운 룡산농장의 경험은 모판 씨뿌리기를 10일이상 앞당겨도 어린 벼모는 자연피해를 전혀 받지 않고 잘 자랄수 있다는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주었다.

더우기 정필수가 격동된 심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내내 흥분속에 들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로운 기후변동에 대처하여 지대별로 몇개 협동농장을 선택하시고 시험적으로 모기르기와 모내기를 해보도록 직접 조직하셨다는 사실과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 농업생산전반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모색하고계신다는것을 가슴뜨겁게 절감하였기때문이다.

정필수가 08호를 처음 얻어냈을 때 자신께서도 좀 심어보시겠다고 하시며 벼종자를 얼마간 가져가신것도 다 룡산농장에 심도록 하시였다. 그러니 지금 어버이수령님께서 경험을 하나하나 창조해나가는것은 어느 개별적인 벼종자만을 성공시켜주시기 위하여 취하신 조치가 아니시였다. 그래서 정필

수는 모판에 씨뿌릴 때의 외기온도와 맞먹는 온도를 온실안에 보장해놓고 08호를 비롯한 여러가지 벼종자들을 다 심었다.

그가 08호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내한성이 강하고 생육기일이 아주 짧은 130일종과 중간지대와 서해안 일대에 맞는 160일종 계통 등 각종 벼종자들을 다 심은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기후변동에 대처한 새로운 농업의 연구와 봄에 예비가 있다고 하신 말씀의 뜻을 포괄적으로 리해하고 관찰하기 위해서였다.

정필수는 씨불임전에 완성된 기술테타를 작성하기 위하여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그는 침식을 거의 잊고 온실안에서 살다싶이하였다.

야외에 시험모판도 몇개 만들어놓았다.

말그대로 정필수의 유일한 행동주로는 연구소, 온실, 시험모판 이 세개의 삼각점이였고 그외의것은 모두 그의 세계밖에 있었다.

수령님의 배려로 중앙병원에서 권위있는 의사들의 치료를 받으며 값비싼 보약을 쓴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안해 김순실은 자기도 무엇인가 뜻있는 일을 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리겠다고 남편의 연구사업을 적극 도우면서 온실안에 복숭아나무를 옮겨다 심고 꽃을 피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어김없이 65알을 익혀 돌아오는 4. 15에는 어버이수령님께 삼가 올리겠다는것이 그의 정성속에 깃든 속깊은 마음이었다.

딸 은희도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겨울날씨와 봄날씨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아버지에게 자주 알려주었다.

온 집안에 생활의 향기가 진하게 풍기고 따뜻한 기운이 차고넘쳤다.

정필수의 연구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였다. 그는 무한히 행복하였다.

3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필수를 룡산협동농장에 가보라고 하신지도 벌써 20여일이 지났다.

겨울의 짧은 해는 서컨으로 기운지 오래고 불빛 한하던 수도의 거리도 깊이 잠들었다.

창문밖에서는 함박눈이 펄펄 내렸다.

람스럽게 쏟아지는 하얀 눈송이들은 온실의 유리 지붕우에도, 정원의 실한 나무가지에도 푸근히 내려와 쌓이였다.

다치면 쟁그랑 하고 바스라질것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던 퍼어런 하늘에서 과연 언제 눈같은게 내려보라싶었는데 오늘 뜻밖에도 눈이 내리는것이였다. 밤은 끝없이 깊어가고 저택의 창문가에서는 은회색 불빛이 고요히 흘러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테불우에 덧쌓인 수많은 자

료들을 한장한장 번지시며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얼핏 우려했던 그의 근엄하신 표정은 눈내리는 창밖에 귀를 기울이신것 같기도 하시고 온 시선을 책에 모으시고 깊은 사색의 바다를 달리시는것 같기도 하셨다.

그이께서는 오늘도 찬바람 부는 중간지대와 몇개 협동농장을 돌아보시고 몸소 경험발표회에까지 참가하셨다가 늦게 돌아오신 이밤마저 지새우시는것이였다.

참으로 사업과 휴식의 한계를 모르시고 명실공히 모든 공간과 시간을 위대한 사업으로 이어가시는 수령님이시였다.

밖에서는 쉬임없이 눈이 내리고 성에 불린 창문 가엔 그의 거룩하신 영상이 웅건한 화폭으로 비껴였다.

수령님께서서는 허리를 약간 펴시며 시계를 보시였다.

《허 벌써 이렇게 되였는가.》

세시반이였다.

자리에서 일어서신 수령님께서서는 방안을 천천히 거니시였다. 대각선을 그으시며 그렇게 몇번 오고 가시던 수령님께서서는 한자리에 멈춰서시였다.

《자연의 구축을 받지 않는 농업》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더욱 황포해진 자연의 변덕을 미리 막고 우리 나라 농업 생산을 안전하게 하는것이 그자체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념두에 두시고 이렇게 뇌이시였다,

창가에 다가서신 수령님께서서는 무르익어가는 사색의 갈피들을 하나의 초점으로 이끌어가심인지 눈내리는 수도의 밤전경을 이윽도록 내다보시였다. 그의 사색은 가깝고 먼 조국의 방방곡곡을 분망히 달리시며 인민의 행복한 숨결소리도 함께 가늠하시는듯싶으시였다.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한몸에 안으시고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을 위해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이밤 농업문제때문에 그렇게 심려하시면서도 한 연구사의 이름을 다시 조용히 불러보시는 것이였다.

(정필수!)

수령님께서서는 룡산협동농장을 다녀갔을 정필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있는지 몹시 궁금하시였다.

창가에서 물러나신 수령님께서서는 송수화기를 드시고 중립관측소를 찾으시였다.

(은희나, 그동안 잘 있느냐. 몸이랑 건강하구. 형제봉에도 눈이 많이 내린다? 춥겠구만. 춥지 않다, 추워두 참겠지.》

저쪽에서는 은희의 젓은 목소리가 가늘게 울려왔다.

수령님께서서는 중립지구기상관측자료를 물으신 다음 다심한 심려가 담긴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버

지가 잘 있는가, 어머니는 이젠 건강한가 일일이 물으시고 이제는 흰머리가 펴 많아진 아버지를 잘 도와주고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고 따뜻하게 타이르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아버지가 룡산협동농장에 다녀온후부터는 연구사업에서 한결 더 활기를 띠고 있다는 은희의 보고를 들으시고는 빙그레 미소를 그리시며 그래도 요즘 필수동무가 생육기일문제때문에 지나치게 고심하고있는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몸을 주의하란다고 은정넉친 말씀을 하시였다.

《뭘? 모를 부었다. 실험실예? 그럼 짬을 내여 한번 가봐야겠군. 룡산농장에 갔다와서 령상모관도 만들었다? 음-》

전화를 끊으신 수령님께서서는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일기도를 마주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방금 은희에게서 알아보신 중립지구의 기상관측자료들을 하나하나 기입하시고 시공간적으로 변화된 모든 기상요소들의 물리적측정값들을 다시 구체적으로 연구하시였다.

일기도에는 두시간전에 중앙기상관측소와 지방관측소들에 장거리전화로 알아보신 자료들과 각국에서 들어온 기상자료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구체적으로 다 반영되어있었다.

일기도에 기입된 기상관측자료들을 간간히 살펴보는 그의 만면에 부드러운 미소가 피여났다. 모든 자료들은 기상요소들의 공간적분포와 시간적변화의 요인들이 세계적추이에 맞게 과학성과 논리성이 잘 보장되고있었다.

하지만 그의 안색은 인차 흐려지시였다.

(래일부터 기온이 더 떨어지고 바람이 세지겠다?)

수령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직접 분석추리하신 결과로 그 내용이 일부 부족한것 같은 일기예보의 종합자료를 보충해주고싶으시여 중앙기상예보소 당직 일군에게 전화를 거시였다.

이튿날 아침,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농업위원회일군들과 화학공업부, 철도부를 비롯한 일부 부, 위원회 일군들을 중립지구로 부르시였다.

그이께서는 중립분원연구소 회의실에서 농업문제와 관련한 협의회를 여시였다. 협의회에는 정필수를 비롯한 연구소 연구사들도 다 참가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먼저 최근에 이르러 더욱 급변해진 이상기후현상에 대하여 자신께서 직접 연구하신 자료들을 하나하나 실례를 드시면서 구체적으로 통보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이상기후현상은 우리 나라에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판도에서 일어나고있는 매우 심상치 않은 변화라고 하시면서 제때에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농업생산에서 돌이킬수 없는 후파를 초래할수 있다고 엄숙히 선언하시였다.

《동무들도 잘 알고있겠지만 지금 북극의 얼음산

이 높아지면서 찬바람이 우리 나라쪽으로 계속 밀려오고있습니다.

이 찬전선은 우리 나라만이 아니라 남태평양 일대로 내려가 동남아시아 전지역에 영향을 주고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무더기비와 열파, 폭설과 회오리바람, 세계 어느 지역, 어느 나라 할것없이 번덕스러운 날씨가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고 하니 이 지구라는 행성 위에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근을 가져다줄수 있는 하나의 전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이상기후현상이 우리 나라에 파국적인 결과를 초래하기전에 사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동무들을 모이라고 했습니다.»

장내는 숨엄한 분위기에 휩싸여있었다.

수령님께서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장내를 둘러보신 다음 우렁우렁한 음성으로 계속하시였다.

《내가 늘 말하지만 배고픈것과는 타협을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농사를 천하지대본이라고 했고 우리 당은 오래전부터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제시하고 모든 역량을 농사에 집중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수령님께서 농사를 잘 짓는데서 나서는 일련의 실무적인 문제를 강조하신후 토론들을 하게 하시였다. 많은 일군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수령님께서 일군들의 토론을 주의깊게 들으시면서 자그마한 수첩에 무엇인가 짹짹하게 써넣기도 하셨습니다.

《화학공업부에서는 농사철전에 질안을 비롯한 3요소비료 전량을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철도부에서는 다른것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집중수송을 조직해서 비료만은 무조건 운반하여야 합니다.

또 룡운총국에서는 먼거리수송대를 조직해서 협동농장들까지 비료를 날라다 주어야겠습니다. 할수 있습니까?》

《예.》

룡운총국장이 시원스럽게 대답했다.

《대답만해서는 안됩니다. 어김없이 해내야 합니다.》

마음을 조이며 뒤좌석에 앉아있는 정필수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슴이 울렁거려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오늘아침 솟을길에 헤치시며 연구소에 도착하셨을 때 자기에게 룡산협동농장을 돌아보고온 의향이나 물으시고 여느때처럼 기술문제를 의논하실줄로만 알았지 이렇듯 큰 회의를 여시고 전국의 농사문제를 토론하실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수령님께서 안경을 벗어드시고 책상위에 놓인 문건을 한참 들여다보시고나서 화학공업부 책임일군을 다시 부르시였다.

《뛰니뛰니해도 동무들의 책임이 제일 무겁습니다. 화학공업부에서는 비닐박막 생산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기대를 만가동하여 씨뿌리기전에 비닐박막 전량을 확보해주어야 합니다. 이상기후현상에 대처하여 농사를 잘 짓자면 벼랑상모판 씨뿌리기와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제철에 심는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 올해에는 씨뿌리기를 여느해보다 더 앞당겨야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기 정필수소장동무와 연구사들과 더 의논해서 결론을 주자고 합니다.》

협의회는 점심때가 다 되어서 끝났다.

《자, 머리로 철검 연구소온실도 구경하고 정필수동무가 만들어놓은 팽상모판도 좀 돌아봅시다.》

밖에 나오신 수령님께서 허리에 손을 얹으시고 눈이불을 뒤집어써서 별로 부피가 커보이는 형제봉과 중립벌을 번갈아 바라보시였다.

잠시후 연구소로 들어가시며 온실안을 다 돌아보고 나오신 수령님께서 한동안 아무 말씀 없이 서 계시였다.

이윽하여 그이께서는 정필수를 돌아보시며 조용히 물으시였다.

《그래 룡산협동농장에 가보니 어떻습니까?》

《예, 많은걸 배웠습니다.》

《그랬을겁니다. 농민들이 해놓은것은 비록 큰것 같지 않지만 연구사들이 참고해야 할 가치있는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민들이 창조한 모든 귀중한것들을 아낄줄 아는 그런 일군이 되어야 합니다.》

수령님께서 며칠전에도 농장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농업과학원 재배학자들과도 토론해보았는데 그들은 지난해보다 모내는 기일을 1주일 더 앞당길수 있다고 하더라고 덧붙이시였다.

《그들의 의견대로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필수동무가 할수 있다니 됐습니다.》

수령님께서 이어 야외에 만들어놓은 팽상모판을 보자고 하시였다.

정필수가 해마다 모를 붓고 시험하는 포전머리에 이르신 수령님께서 발이 푹푹 잠기는 눈밭을 헤치시며 둔덕진곳으로 올라가시였다. 일군들도 모두 그이의 뒤를 따라섰다.

바람막이바자를 빙 둘러친 방풍장안엔 하얀 비닐박막을 씌운 모판들이 묵묵히 누워있었다. 주인의 알뜰한 손길이 구석마다에 어린 방풍장안은 눈까지 말끔히 쳐내서 한결 아늑해보였다. 새벽에 안해와 같이 나와 눈을 쳐냈던것이다.

외투깃을 여며쥐시고 모판안 여기저기를 깐깐히 더듬어보시던 수령님께서 머리를 끄덕이시며 정필수의 너부죽한 얼굴을 정경게 바라보시였다.

《이게 룡산협동농장과 똑같이 만든 모판입니

까?》

《그렇습니다.》

《자 동무들, 잘 보십시오. 올해에는 모든 협동농장에서 팥장모판을 다 이런 식으로 만들자는것입니다.》

일군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신 수령님께서서는 백양나무들이 두줄로 쭉 늘어선 수로뜰우에 올라서시였다.

바람이 불며 눈꽃을 날리였다. 나무가지에서 떨어지는 눈꽃들이 그이의 외투자락에서 나비처럼 춤을 추다가 스르르 녹아버린다.

정필수의 눈길은 하얗게 성애가 내려앉은 수령님의 어깨우를 자주 더듬었다.

눈곱이 축축해진 정필수는 종내 참지 못하고 간청하듯 나직이 말씀올렸다.

《수령님,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바깥날씨가 참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렸던 눈이 돼서 그런지 한결 푸근해보입니다. 아마 이해에 들어와 처음 내린 눈이 아닙니까.》

아직도 푸실푸실 떨어지는 눈꽃을 손바닥에 받아보시는 수령님께서서는 안으로 들어갈 생각을 전혀 안하시였다.

《씨뿌릴 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시다. 협동농장들에서 부식토랑은 다 준비되었는지 모르겠습시다.》

온 나라의 농사차비를 녀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아, 수령님께서선 어쩌면...!》

정필수의 머리속엔 문득 준엄하던 전화의 그날, 봄비내리는 최고사령부마당에 서계시던 위대한 그이의 영상이 우뚝이 떠올랐다. 그때 최고사령관동지의 접견을 받은 정필수는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가슴벅찬 말씀을 듣고 떠나기에 앞서 그이께 인사를 드리려고 이른아침 최고사령부로 올라갔다. 그런데 언제 나오셨는지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마당가를 뚜벅뚜벅 거닐고계셨다. 그이의 군복어깨는 축축히 젖어있었다. 걸음을 멈추고 그이의 모습을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르던 정필수는 불시에 코등이 찡하니 울리고 눈시울이 핑그르르 돌았다.

《수령님, 비가 아직 참니다.》

《괜찮습니다. 기다렸던 봄입니다. 아마 이해에 접어들어 처음 내리는 빙가봄입니다. 이제 씨뿌릴때도 된것 같습니다. 농사차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시다.》

잊을수 없는 추억의 갈피속에 떠오른 해방후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정전후와 오늘, 우리 나라 농업이 줄달음쳐온 그 전환의 봄들우엔 언제나 찬비와 찬눈, 찬바람을 맞으시며 늘 우리 수령님께서 서계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시며 아무 말씀이 없으시였다.

그이의 얼굴엔 점점 근엄한 빛이 떠오르시였다. 그 근엄하신 빛은 다시 알릴듯말듯한 미소로 바뀌더니 이어 오랜 사색뒤에 결론을 내리실 때처럼 확신에 찬 신념의 물결로 변하였다.

수령님께서서는 필수쪽으로 몸을 약간 돌리시였다.

《필수동무, 벼의 평균일생이 얼마라고 했던가요?》

정필수는 그제야 생각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다. 수령님의 뜻밖의 질문을 받은 그는 어리둥절하였다. 모르서서 물으시는것이 아니기때문이었다. 다만 그 물으시는 까닭을 알수 없는것이 안타까울뿐이었다. 낮이 별경게 달아오른 정필수는 망설이며 서있다가 벼의 일생을 품종별로 말씀드렸다.

《음.-》

정필수의 이야기를 들으시며 생각에 잠기셨던 수령님께서서는 그로부터 뒤발자국 뒤로 물러서시였다. 근감하게 누워있는 눈덮인 벌우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속에서 아직은 이름할수 없는 귀중한것을 받아안게 될 그러한 시각이 도래하고있음을 정필수는 룡감으로 느꼈다. 그는 저도 모르게 후-하고 모두숨을 내그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옆에 서있는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그이께로 향하였다.

이윽하여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얼어붙은 대지를 찌르릉 울리였다.

《동무들, 봄을 앞당깁시다. 봄을...》

《예?!》

모두의 입안에서 터져나오는 의문의 목소리가 입김과 함께 서려올랐다. 격앙된 감격의 파도가 공간을 뒤덮었다. 어방없이 커진 정필수의 두눈도 안경알속에서 똑 떴었다. 그는 자기의 청각을 자랑했다. 식물의 성장을 촉구하는 아육신의 운동상태를 눈으로 볼뿐 아니라 귀로도 듣는다는 필수였다. 그 예리한 청각에 분명히 메아리친 말씀.

《봄을 앞당깁시다.》

정필수가 그 말씀을 다시 외워보기도전에 수령님의 목소리는 재차 가슴을 울리였다.

《전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계절을 보름쯤 더 앞당기자는것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고나서 그 가능성을 실례를 드시며 하나하나 론증하시였다.

《그렇게 할수 있는가? 할수 있습니다. 연구사들의 말에 의하면 벼알은 일찍 뿌려도 박막을 씌우기때문에 조금도 걱정할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를 일찍 내면 바깥날씨가 차므로 어린 벼모가 못 견딘다고들 한하는데 어떻습니까. 필수동무, 그것도 일없지 않습니까?》

수령님께서서는 정필수에게 동의의를 구하시였다.

《예, 모내기를 일찍 해도 눈에 물을 대면 외기온

도보다 물온도가 높기때문에 벼모는 절대로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 보십시오.》

수령님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정필수에게 제삼 물으시였다.

《필수동무, 벼는 종자가 땅에 묻힌 날부터 나이를 계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결국 작물의 모자라는 생육기일을 모판에서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수령님께서는 누구에게라없이 이렇게 반문하시고 말씀을 계속 이으시였다.

《내 그래서 이상기후현상을 막는데는 여러가지가 있을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도가 파종기일을 앞당기는데 있다고 말하는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봄에 가물어도 일없고 8, 9월에 불어오는 태풍도 피할수 있으며 가을에 내리는 서리의 영향도 받지 않을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 나라에서 모내는 시기는 5월말부터 6월중순까지였습니다. 옛날부터 아무 날알이든 하지전에만 씨를 묻으면 결실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낡은 농법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해동안 모내는 시기와 강냉이씨뿌리는 시기를 적지 않게 앞당겼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적지 않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러저러한 객관적요인때문에 그만치밖에 당겨올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이상 더 앞당길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닐박막을 비롯한 영농자재들과 기술수단들을 우리 마음대로 생산공급해줄수 있고 또 필수동무를 비롯한 우리의 연구사들이 얼마나 좋은 벼종자와 강냉이종자들을 많이 연구해냈습니까. 경험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 무엇을 더 주저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농사에 대하여 완전히 파악하였습니다. 우리는 농사도 우리 식대로 지어야 합니다. 현실이 그것을 더 절박하게 요구하고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이의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심장을 조이며 새겨들었다.

수령님께서 잠간 말씀을 끊으신 틈을 리용하여 정필수는 재빨리 벼의 일생을 더듬으며 수확기에서부터 거슬러올라오며 성숙기와 꽃피는 시기, 모내는 시기와 씨뿌리기시기를 날자별로 따져보았다. 오차없는 과학적수치에 딱 맞아떨어졌다.

160일종인 08호는 물론, 늦종계통의 모든 벼들도 다 서리내리기전에 완전한 결실을 보게 된다.

(아, 그래서 지난번 가을, 봄에 예비가 있다고 것처럼 강조하시며 환상을 심어주시었구나!)

정필수는 그제야 비로소 룡산협동농장을 돌아보고와서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던 수령님의 높은 뜻과 깊은 의도를 다소라도 이해한것 같아 긴장했던 마음이 어느 정도 풀리였다.

《예비는 봄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겨울에 봄을 가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미리 모판을 만들어놓고 강냉이영양단지도 빚어놓았다가 춘분이 지나면 인차 씨를 뿌려야한다고 보았습니다. 필수동무의 생각엔 어떻습니까?》

《...!》

정필수는 감동에 젖어 이내 대답을 못올리였다.

창창히 열린 하늘저쪽 한끝으로 엮은 구름발들이 서서히 밀려가고있었다.

정필수는 벌겋게 상기된 얼굴을 수그리고 뜨거워나는 눈시울을 습벽이였다. 과학자인 자기들이 그처럼 탐구와 모태김속에서도 감히 잡아챌 엄두를 못냈던 문제를 비범한 예지로 헤아려보시고 이상기후의 영향을 막아내기 위한 근본요철을 쥐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이 격랑처럼 가슴속에서 끓어번지였다.

아,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과학적통찰력과 천리혜안으로 이상기후현상을 제때에 간파하시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묘술을 찾아내시여 전당, 전국, 전민을 총동원하시는 우리 수령님은 참으로 위대한 령도자이시구나! 사람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아끼시는 그이의 고결한 인간적품모에 매혹되여 언제나 해바라기처럼 따르며 모시고 사는 정필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고계시는 탁월한 령도품모에 다시금 탄복하여 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정필수는 마치 막혔던 물목이 터진듯 가슴이 후련히 열리고 이름할수 없는 걱정이 해빛에 녹아내린 봄시위마냥 온몸으로 굽이쳐 흘러드는것 같았다.

《필수동무,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수령님께서는 미소를 담으시고 재차 물으시였다.

《있습니다.》

정필수는 힘있게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뿐만아니라 자연에 대해서도 웅당 주인노릇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자연을 우리의 손아귀에 틀어쥐고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늘을 길들이고 땅을 다스리는 힘도 사람에게 있습니다.》

정필수는 숨결이 벅차올랐다. 자기가 지금껏 작물의 생육기일을 더이상 앞당기기 어렵다고 생각한것은 결국 그 어떤 과학적확신이 부족하거나 연구사의 타성적인 로파심에 있은것이 아니라 순수 자연에 대한 무저항적인 립장과 자세에 기인하였다는것을 뼈저리게 통감하였다.

그리고 어버이수령님께서 한번 실패하면 두번째 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차근차근 일깨워주시며 고무해주시는것도 자기의 이러한 정신적결핍을 속속들이 깨닫아보시고 그것을 풀어주시기 위하여 눈덮인 새벽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연구소에까지 찾아오시여 중요한 회의에 참가하도록 하시고는 농업과학기술과 관련되는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해주시면서 신심을 안

겨주셨다고 생각하니 솟구쳐오르는 감격으로 하여 심장이 견잡을수 없이 두근거려였다.

정필수는 마음을 가다듬고 수령님앞으로 뒤발자국 크게 내디디었다.

《수령님! 이제부터 주인노릇을 톡톡히 하겠습니까. 이제는 자연의 그 어떤 번덕도 막아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으나 그속엔 주인이라는 당당한 자세와 떳떳한 기품이 힘있게 깔려있었다.

《웁습니다. 인간은 위대합니다. 예로부터 사람을 만물의 령장이라고 한것도 다 그래서 한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를 근로하는 인민대중으로 보고 그에 기초하여 사람중심의 철학을 내놓은것입니다. 력사를 추동하고 자연을 개조하는것도 인간의 의식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서만 담보됩니다. 나는 이 불변의 철리를 재인식한 필수동무의 밝은 얼굴을 보는것이 제일 기쁩니다. 이제는 우리가 통장훈을 부른셈입니다. 농업전선은 이것습니다.》

수령님의 만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참으로 기쁘시였다. 반가우시였다.

필수의 그대답, 그 립장과 자세, 우리 인민모두를 그러한 높이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비오고 바람세찬 머나먼 길을 헤쳐오셨고 오늘도 이렇듯 눈덮인 언덕에 거연히 서계시는것이 아닌가!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정없이 앞당겨오신 계절의 봄, 그것을 어찌 식물의 생육기일만을 연장한다고 말할수 있으랴!

그것은 인간이 자기의 귀중한 생을 더욱 빛나게 장식하고 아름답게 꽃피울수 있게 하는 위대한 전환의 봄이였다.

정필수는 지금 자기가 그러한 봄언덕에 높이 서있다고 소리쳐 웨치고싶었다.

수령님께서는 시계를 들여다보시고 멀찍이 서있는 필수의 안해결로 다가가시였다.

《추운데 왜 나왔습니까. 그래 몸은 좀 일없습니까?》

수령님께서는 김순실을 자애로운 눈길로 더듬으시며 다정히 물으시였다.

《이젠 아무탈 없습니다.》

《그렇다니 마음이 놓입니다. 그래도 몸간수를 항상 잘해야 합니다.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수령님, 고맙습니다.》

김순실은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종시 억제하지 못하고 왈락 쏟아놓고야말았다.

자신께서는 내내 눈덮인 벌에 서계시면서도 만나 실적마다 몸을 잘 돌보라고 타이르시는 수령님의 은정어린 사랑이 폐장속으로 뜨겁게 흘러들었다.

《자, 건강해서 필수동무의 연구사업을 성의껏 받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은희에게도 아버지일을 계속 잘 도우란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수령님께서는 김순실의 두손을 꼭 감싸쥐시고 정답게 말씀하시였다.

《난 요즘 은희에게서 좋은 자료를 많이 방조받습니다. 필수동무가 아주 톡톡한 팔을 두었습니다.》

필수내외는 어제밤 수령님께서 은희에게 사랑의 장거리전화를 걸어주신 격동적인 사실을 여적 모르고있었다.

《자, 앓지들 말고 잘 있으십시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필수의 량팔을 힘껏 잡아 흔드시고 다른 연구사들의 손들도 일일이 잡아주시였다.

수령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눈우에 두줄기 선을 그으며 서서히 움직이였다.

하늘중천엔 둥그런 해가 높이 떠있었다. 해빛에 녹아내린 눈덩이가 후드득 발앞에 떨어졌다. 땅우에선 뜬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며 따스한 봄빛을 불러오고있었다.

달리는 승용차를 따라가며 정신없이 손을 흔들던 정필수와 그의 안해는 차가 형제봉 기슭으로 사라지자 그자리에 못박힌듯 서버렸다.

(아! 조선의 해가 길어졌구나! 조선의 해가!...)

이렇게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린듯이 서있던 정필수가 명상에서 깨어나 옆에 서있는 안해의 얼굴을 얼핏 여겨보았다. 그의 얼굴도 승엄한 감정에 젖어있었다.

《여보, 우리는 어버이수령님을 늘 이런 들에서 맞이하고 들에서 바래워드리는구려!》

그것이 직업상 특성에서만 오는것이 아님을 너무도 잘 알고있기에 지금 정필수의 목소리는 그처럼 떨리는것이였다.

안해도 여직껏 그 생각을 하고있음모양 손을 꼭 잡고 차가 사라진 령길을 안타깝게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이였다.

《어버이수령님!》

어느덧 김순실의 량볼로는 맑은 구슬이 기름방울처럼 주르르 흘러내렸다.

정필수의 눈에서도 굵은 물방울이 진하게 맺혔다가 무겁게 툴렁 떨어졌다.

인민이 살기 좋은 나라

김철민, 서진명

사회주의와 함께 걸어온
내 인생의 길은 짧지 않다
이제는 생활도 알대로 다 알고
세상리치도 다 아는 나이

내 지금
격변하는 이 세기
마지막년대에 살며
풍운에 찬 세상을 바라보나니

그 누구의 말을 듣고
내 사회주의를 알게 되고
그 누가 시켜서
내 사회주의에 마음 끌렸던가

나에게는
사회주의라는 그 말이
우리 말 사전에서 처음으로 배운
그런 낱말이 아니여라

스스로
나도 모르게
이 가슴에 젖어들고
해빛처럼 별빛처럼
이 마음속에 소리없이 깃든것

창너머 떠가는 흰구름에
내 소년의 꿈을 실어보던
산촌의 양지바른 교사
멀리 갔던 제비들을 부르던
우리 집 새로 올린 추녀여

내 이름 석자 적혀진
로동수첩을 처음으로 품고
어른스레 걸어보던 구내길
솔숲 푸른 휴양지의 해변가
백사장에 새겨지던 나의 발자욱이여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아
세상을 둘러보는 나의 눈빛이
바람을 맞는 솟불처럼
불타오르던 나날

내가 흘린 땀이
창조의 동음이 되어
가없이 트인 하늘가로 올려가고
나를 기다려 행복이
들끝의 무지개마냥 일어서던
그 나날을 거쳐
사회주의여
내 너를 알게 되었거니

삼가
맑은 바람 감도는 저기
만수대의사당 문을 열어보라
나라일을 론하는 그 숭엄한 의석에
그 누구들이 앉아있는가

나와 다른없는 평범한 사람들
나의 정다운 이웃들이며
나의 친근한 동지들이
엄숙히 손을 들어
나라의 정책을 세우고
법을 채택하는 우리 세상

우리 당이 펼쳐준 이 세상에는
마치름 든 로동자도
벼단을 안아내는 농민도
불과 함께
인생의 먼길을 걸어온 지식인도
모두다 혁명의 주체로
시대를 떠밀고 역사를 창조하나니

아, 어버이수령님의
거룩한 한평생이 깃들고
우리 당의 넓은 품이 그대로

땅이 되고 하늘이 된
사랑의 요람
행복의 요람

내 이 요람에 안겨
인민이라는 그 하나의 이름으로
못가져본것이 없고
못누려본것이 없어라

두손에 선거표를 받아들고
가슴들먹이며 들어서던
선거장의 푸른 솔문
휴일의 강반에 미끄러지던
하이얀 러객선...

황홀한 보석을 꿈같이 밟으며
첫아기를 안고 산원을 나서는
녀인들의 붉은 랑불에 깃들고
나라에서 주는 보약을 받아안는
로인들의 주름깊은 눈굽에 번쩍이는
무상치료의 고마움

때가 되면 의례히
나라에서 주는 고운 옷을
아이들에게 입혀
배움의 큰 문에 들여세우며
목메여 불러본 사회주의여!

너는 진정
우리 인민이 선택하고
우리 인민이 건설한 사회주의
인민을 주인으로 선포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

내 너를 버리고
그 어느 하늘밑에서
내 삶의 터전
내 운명의 보호자를 찾을것인가

둘러보면 지금 세상에는
도도히 굽이치는
자주의 거센 흐름에 맞서
울부짖는 팽풍
겹겹이 밀려드는 비구름

그 사나운 바람에도
그 검은 역류에도
단 한번 흔들리지 않고
단 한번 에돌지도 않고

위대한 당을 따라
사회주의기치 높이 나아가는 조국이어

아, 내 오로지 이 땅
근로하는 인민의 군상을 대돌우에 세우고
만리대공에 광망을 뿌리며
주체사상탑이 거연히 솟아있는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봄날의 화원처럼 만발하는
주체의 내 조국에서만
인민의 참된 거주지를 보노라!

사랑하라
나에게 말한이 없고
노래하라
나에게 시킨이 없어도
우리 당이 펼쳐준 인민의 세상
주체의 이 세상에서 살며
그 덕을 누릴대로 다 누리보며
이 마음속에 깊이깊이 뿌리내린 사회주의여
너는 내 목숨
내 삶의 영원한 요람!

인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인민의 신념으로 된
우리의 사회주의는
그 어떤 폭풍앞에서도 끄떡없어라

아, 노동자가 살기 좋고
농민이 살기 좋고
근로하는 지식인가 살기 좋은 나라
생각할수록 고맙고
안겨살수록 더더욱 귀중해지는
인민의 나라여!

나는 이 땅의 평범한 공민
사회주의와 함께 살아온
내 한생의 체험이 비긴 말은
지극히 소박하다
그저 한마디
위대한 우리 당이 펼쳐준
사회주의 내 나라에서는
인민이 제일 살기 좋다!

×

인민이라는 그 이름
이 땅에서 지녀보지 않고서는

알수 없으리
내 왜 사회주의를 노래하며
우리 당을 생각하게 되는지

알수 없으리
이런 날
이런 평범한 순간에도
우리 당중앙 청사에 나뉘기는
그 숭엄한 기폭을 우러르는 이 마음

당을 따라
내 걸어온 사회주의길에는
꽃주단만이 펼쳐지고
봄바람만이 불어온것이 아니여라

아, 눈비면
그 얼마나 차디찬 눈비가
땀흘려 다지던
우리 사회주의기초우에 덮여있고
바람이면
그 얼마나 세찬 바람이
맨손으로 안아올리던
우리 사회주의기둥에 휘몰아쳤던가

그 모진 시련의 년대들을
침묵처럼 구르며
사회주의 긴긴 렬차에
기관사가 되어
인민을 이끌어온 우리 당!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 구호를 붉은기처럼 앞에 들고
우리 당이 이끌어왔기에
우리의 사회주의렬차는
단 한번도 연착을 모르고
단 한번도 탈선을 모르고
정시로 곧바로 달려오지 않았더나

눈시울 뜨거이 더듬으면
이 렬차엔 내 운명만이 실려온것 아니더라
때일찍 우리 곁을 떠나간 이들도
한때 길을 잘못들었던 사람들도
도중에서 버리지 않고
뜨겁게 안아 함께 온 렬차

나라를 위해 피흘린 영예군인들에게
제일 좋은 자리를 권하며
말없이 소문없이 땀흘린

숨은 공로자들을 앞자리에 내세우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서로 돕고 이끌며 달려온 렬차

이 렬차를 타고오며
나는 보았노라
우리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열어갈 향도의 기치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
조선로동당임을

진정 이 세상 그 누가
평범한 인민인
내가 갈길을 두고
우리 당처럼 그렇게
천번을 헤아려보고
만번을 고쳐 생각하며
밝게 열어줄수가 있으랴

진정 그 누가
한둘도 아닌 천만자식을
넓은 품에 다 안아
우리 당처럼 그렇게
혁명의 주인들로 끝까지
키워낼수가 있느냐

세상엔 없으리라
인민을 위해
한밤중에도 불을 끄지 못하고
사색하고 창조하고 건설하는 당

없으리라
당의 위대한 령도자의 집무탁에
평범한 인민의 이름들이 오르고
그 생일날까지 새겨지는 나라

어찌다 생긴 피로움도
그 품에 얼굴 묻고 마음껏 울면
봄눈처럼 다 풀리더라
그 손길 따라나서면
진펄길도 마른 길처럼 가게 되고
불타는 강도 웃으며 헤쳐넘게 되더라

따르면 영광이 있고
행복이 차례지고
그 손길 놓으면
절망이 오고

우리 숨줄도 끊기고마는
당의 정도는 정녕
우리 사회주의의 생명선!

사나운 바람아
불어올테면 불어오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력이 있나니
그것은
어머니와 자식처럼
심장과 피줄처럼
당과 인민이 하나로 이어진것

아, 당과 수령은
인민을 믿고 사랑하며
인민은 당과 수령을 위해
충성과 효성을 다해가는
이것이 일심단결의 내 나라
우리 사회주의의 참모습!

이것으로 빛나라
우리 조국은
이것으로 강대하여라
우리의 사회주의는

아 아, 태양없는 이 땅을
생각할수 없듯
당을 떠난 사회주의를
우리는 생각할수 없나니
우리에게는 당이 곧 사회주의
우리 당이 곧 주체의 우리 세상!

그 꿈을 떠나면
내 한지에 나앉아
발을 얼구게 되리
남의 집 처마밑에서 비를 맞으며
나의 존엄
나의 뉘를 다 잃게 되리

바라보면 우리의 거리
웃음이, 노래가

익은 열매처럼 툭툭 떨어지는
저 행복한 창문들
영글어가는 이삭들이
흥치며 설레이는 살오른 들판
예가 좋다고 여기서 살겠다고
엮어지며 덩굴며
이 나라 가늌을 적시는 푸른 바다...

지녀야 할 권리
누려야 할 생활
향유하고싶은 문화
그 모든것 이 땅에서는
나를 위해
인민을 위해 있거니

이 세상 그 어디서
나에게 천만금을 준대도
나는 가지 않으리 가지 않으리
우리 당을 따라
내 이 땅에서 그저 인민으로 살리라

그 어떤 힘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당을 따라
우리의 신념과 의지로 열어가는
사회주의
이 진리의 길에서
우리를 떼어낼수 없으리

아, 나는 이 땅의 평범한 공민
사회주의와 함께 한생 살아온
인민의 이름으로
내 온 세상에 선언하나니
우리는 영원히
우리 식 사회주의길로 가리라
우리 당을 따라
우리 당과 함께
언제나 필승불패하리라!

(1991. 7. 17)

내 나라

리영

맑은 샘처럼
마음속에 언제나 솟는 사랑으로
정답게 불러보는
내 나라

그 이름 부르면
푸른 밀림의 설레임처럼
가슴은 어느때나 긍지로 부푸는
내 나라

사랑하는 내 나라
너는 풀밭에서 불던 버들피리소리에
송이구름 띄워가던 그 하늘인가
아버지 발같이 노래에
아지랑이 피워올리던 그 흙인가

고향집 박우물처럼
산허리에 피어난 저 진달래처럼
청렴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 너인들이, 내 이웃들이
겨레되어 안겨사는 품아
민족을 이루고 모여사는 품아

어머니 음성같은 모국어로
《조선》이라는 말을 배워준 나라
내 나서 잔뼈를 키운 이 땅을 떠나
넓은 세상이라고 그 어디 가 살랴

보래지도 않으나
덜지도 않으나
화려한 이국의 꽃이래도
민들레 핀 저 동쪽에 심으면
너에겐 오히려 흙으로 되리
양지바른 기슭의 저 소나무를
이국의 거치른 황야에 옮기면
너를 그리다 그리다 끝내는 시들고말리

푸른 물 기슭을 적시는
수려한 나라
네 모습속에 내 모습 비껴있고

네 모습속에 인민의 모습 담고있는
호수같이 정갈한 나라
태어나고보니 태어날곳에
나는 마땅히 태어났구나

이 세상에 천만복이 있대도
내가 받을 복 너만이 안겨주더라
이 세상 천지는 크고 넓어도
내가 안겨살 자리 너만이 내여주더라

아, 우리 수령님
한평생 아끼시며 보살피주시며
꽃피워주시는 인민의 내 나라
우리 당이 온 마음 다 기울여
다듬어주고 빛내여주는 사회주의 내 나라

눈비 내린다고
남의 나라 이영미에 들어서라
진정 나는 좋아라
비를 맞아도 눈을 맞아도
나래치는 내 나라 추녀밑에서 맞는것이
좋은 길 걸어도 험한 길 걸어도
푸르른 내 나라 산야에서 걷는것이,

내 욕되게 살지 않으나
너를 위해서라면!
땀이래도 아낌없는 진한 땀
너의 강철기둥에 뿌리고싶고
목숨이래도 깡그리 바쳐
너의 만년언제밑에 고이고싶은
아 생사를 함께 할 내 나라

너는 나의 녀
너는 나의 생명
위대한 해와 별이
인민을 키우고
민족을 지켜주는
아 내 나라
너를 떠나 너를 떠나
내 다른 세계 더는 몰라라

오신 그 자옥

김송남

식수에 젖으신
그이의 옷자락
이제는 다 말려드렸는가
저 멀리 흘러간
해와 달들이 ...

발파연기도 채 가지지 않았던
지하막장 이 한끝으로
오신 그 자옥
흐르는 세월에도 잊을수 없어라

오시여서는
광부들을 손잡아주시며
천만금의 보석과도 바꿀수 없다고
하시였던만 오히려 우리 마음엔
친애하는 그이의 이 자옥 하나하나가
세상에 다시 없는
보석중의 보석인듯

다시 새겨보노라
발파소리로는 다 깨울수 없던
검덕의 지심을 깨우며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그이 걸어오신
그날의 자옥소리를...

출갥길에 마주오는
기쁜 하늘같이
밝은 빛 뿌리시던 그이의 웃음
한없이 친근하신 그 영상

어디에서 떠나시어
어디까지 오시였던가
하늘아래 온 누리를 굽어살피셔야 할
그 높은 창가에서

이 깊은곳까지 아니오신들
우리 마음 다 모르시라만

아, 오신 그 자옥
그날에 와닿은곳은
막장에도 깊은곳
그 한끝을 지나
광부들의 바위같은 가슴
그 가장 깊은곳

흔들었어라
그이께서만이 우리의 심금을
그 자옥따라 시간을 죄이며
고속도의 굴길을 열어간
발파소리 발파소리

소리치누나 흐르누나 떠실려가누나
그 자옥우에서 압축기들과 착암기들이
그 자옥우에서 대형광차들과
장거리벨트수송선이...
마광기처럼 드세차고
부선기의 정광처럼 은은히 빛나는
검덕의 들끓는 달과 해들이...

보화의 맥처럼
그 자옥 굴길에 뻗어
력사에 빛을 뿌리는 금골은
세상에 빛나는 금골

아, 친애하는 그이
오신 그 자옥우에서
검덕은 발파소리 높이 울리어라
-위대한 당의 자옥은
세상 큰 전변의 빛발이라고!

인류가 우러르는 위대한 수령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절에 즈음하여-

끝없는 영광을 드리노라
위대한 사상가이신 그이께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현시대를 진보와 번영의 길로 힘있게
밀고나가시여라

영광을 드리노라
위대한 애국자 백전백승의령장이신 그이께
그이께서는 일제를 쳐부시고
조선의 해방을 이룩하시였어라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쓰디쓴 패배를 안기시였어라

영광을 드리노라
건설의 영재이신 그이께
위대한 그이께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파괴로 황폐화된 조선을
락원으로 이끄시였어라

영광을 드리노라
창조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께

그이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일떠세우시고
사회주의를 안아오시였어라

영광을 드리노라
숭고한 인디아주의자이신 그이께
그이께서는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이룩하시여
인민에게 행복과 번영 안겨주시였어라

영광을 드리노라
인류의 위대한 구성이신 그이께
그이께서는 인류해방의 길에서
불멸의 위훈 쌓으시였어라

그이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절에
머나먼 아프리카땅에서
그이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노라
그이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노라
(필자는 세네갈 이전상업상임)

9.9절에 즈음하여 김정일동지께 드리노라

오쎌지 에두

바로 그날
동방에 붉은 태양 솟아
저 아름다운 금강의 메부리
청신한 강토
슬기로운 아들딸들에게
밝은 빛 찬란히 뿌리고있어라

바로 그곳
금빛해살 누리에 빛나는 땅
주체의 조국
조선은 혁명의 붉은기 높이 날리며
온 인류를 손저어 불러라
정다운 만경대의 맑은 호수에선
언제나 별들이 빛나고있어라

바로 그 나라
자랑넘치는 그 나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탄생하시고
주체사상탑 높이 솟아
광휘로운 빛발 만리에 비쳐주어라

주체의 조국 조선
9.9절의 새 아침
장엄하게 밝아오나니
천만꽃들도 설레이며
주체의 기치 높이 드신 **김정일** 동지께
경건히 인사드리노라

여기 작은 섬나라에서
뜨거운 인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주체의 아들들
투사들인 조선인민에게
인류의 념원
조선이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축원하노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무지개 비낀 저 주체사상탑과 더불어
그이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조선인민과 억압받는 인민들을
자주와 친선 평화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시기를 삼가 축원하노라
(필자는 모리셔스 시인임)

《조선의 별》 노래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자고 하시며

1979년 12월 어느날 깊은 밤이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한 일군을 부르시었다.

일군은 서둘러 그이께서 계시는곳으로 달려갔다.

그가 옷깃을 여미고 방안에 들어서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어느때와 같이 그를 반가이 맞아주시며 어서 자리에 앉으라고 의자를 권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당시 문학예술부문의 창작실태를 알아보고 래년에 있게 될 당 제6차대회에 어떤 작품을 내놓겠는가 하는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불렀다고 말씀하시었다.

일군은 그이께서 물으신대로 먼저 영화촬영소들과 예술단체들의 창작정형을 보고드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이미 몇몇 일군들이 모여 당대회에 드릴 작품창작방향을 토의한 내용을 말씀드렸다.

1980년 가을에 력사적인 당 제6차대회가 소집된다는 격동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은 이미 뜻깊은 당대회에 어떤 작품을 내놓을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예비적인 토의를 하였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의 의견을 들으시고나서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영화부문에서 항일유격대 창건에 대한 영화를 만드는것도 필요하지만 래년은 우리 당이 창건된지 35돛이 되는 해이고 당 제6차대회가 열리는 력사적인 해인만큼 그에 맞는 영화를 하나 잘 만들어내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무대부문에서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나 《금희와 은희의 운명》을 각색한 가극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그런 가극은 당대회에 내놓을 성격의 작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었다.

그이의 말씀을 들으며 일군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오래동안 문학예술사업을 하면서도 당대회에 내놓을 작품의 주제방향 하나 똑바로 선정하지 못했다는 자책감때문이었다.

사실 그가 당대회에 내놓겠다고 하는 항일유격대 창건권과 같은 영화는 당대회가 아니라 인민군창건기념일 같은때 내놓을만한것이였고 더우기 조국통일을 주제로 한 《금희와 은희의 운명》은 도무지 당대회의 성격에 어울리지도 않는것이였다.

그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문학예술부문에서는 당 제6차대회에 조선혁명의 시원이 언제부터 열렸고 우리 당의 뿌리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영화와 함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지난 1970년대에 얼마나 위대한 성과를 이룩하였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대음악무용종합공연을 내놓아 우리 당 제6차대회를 승리자의 대예술축전으로 맞이하여야 한다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승리자의 대예술축전! 얼마나 통이 크고 대담한 구상인가.

그의 눈앞에는 금시 오색찬란한 승리자의 대예술축전으로 장식될 당대회의 력사적인 나날들이 떠올랐다.

일군은 속으로 벌써 한해전에 천리해안의 예지로 력사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사업을 혁명적으로 포치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통찰력과 전개력,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송고한 충성심에 경탄을 금치 못하며 한없는 경모의 정으로 그이를 우러렸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자애에 넘치는 음성으로 당 제6차대회가 래년가을에 열린다고 하여도 날자가 얼마 없으므로 절대로 늦잡지 말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창작사업을 밀고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일군은 격동된 심정을 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주신 방향으로 인차 창작을 포치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후 일군은 걸으면서도 차를 타고다니면서도 내내 그 생각을 놓지 못했다. 여러 일군들, 창작가들과 널리 토론도 해보았다.

그런데 모두들 당대회의 성격에 맞게 당의 력사적뿌리, 혁명의 시원을 보여준다는데 대해서는 환영을 올리면서도 막상 어떤 종자를 쥐고 어떻게 작품을 꾸려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들어가서는 이렇다할 착상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해가 바뀌고 새해에 들어서서도 첫달이 지나 경사스러운 2월의 명절이 하루하루 다

가오고있었다.

그때까지도 영화로 될만한 신통한 종자를 쥐지 못한 일군의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그런데 2월의 명절을 맞는 날 밤이었다.

일군은 영광스럽게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한 자리에 모시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그들은 온 나라 전체 인민과 예술인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그에게 삼가 만수축원의 인사를 드리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이러지들 말라고 거듭 사양하시면서 우리 당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을 감회깊이 회상하시였다. 그러시더니 혁명송가 《조선의 별》이 발굴되는데 대하여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말씀은 일군들에게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켰다.

더우기 그이께서 아직 모든것이 시작에 불과했던 혁명의 려명기에 어떻게 되어 차광수, 김혁을 비롯한 청년공산주의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혁명의 향도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조선의 별》과 같은 송가를 지어 널리 보급하게 되였는가에 대하여 들려주실 때 모두 이طم할수 없는 숭엄한 감정에 휩싸였다.

일군들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을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였던것처럼 일편단심 오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따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었다.

이윽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당 제6차대회준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한 일군에게 대회앞에 내놓을 영화의 안을 세워보았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창작가들의 의견을 참작하여 여러가지로 생각해본것은 있었지만 어느 하나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였기때문에 선뜻 말씀을 드리지 못하였다.

그러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조선의 별》 노래를 종자로 하여 영화를 만들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되면 당 제6차대회를 더 의의있게 빛내일수 있을것이며 또 수령님께서도 기뻐하실것이라고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시

였다.

순간 일군의 눈앞에는 무엇인가 번쩍하는 섬광이 이는것 같았다.

얼마나 예지로운 착상이며 혁명적인 발기이신가.

사실 혁명송가 《조선의 별》이 발굴되었을 때 온 나라는 크나큰 걱정과 환희로 들끓었었다.

하지만 노래에 담긴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보라고 제기한 사람도 없었으며 또 만들어보겠다고 나선 사람도 없었다.

오직 혁명송가 《조선의 별》이 발굴되는데 대하여 것처럼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노래에 깃들어 있는 거대하고도 심오한 사상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이 《조선의 별》 종자를 가지고 뜻깊은 당창건 35돐과 당 제6차대회에 드릴 작품을 만들데 대한 독창적인 발기를 하실수 있었던것이다.

조선의 밤하늘에 새별이 솟아
3천리 강산을 밝게도 비치네
짓밟힌 조선에 동은 트리라
2천만 우리 동포 새별을 보네

...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기면 새길수록 더더욱 절절하게 커다란 감흥을 안겨주는 영화, 조선혁명의 장엄한 해돋이에 대한 불멸의 력사를 그려낸 혁명영화를 창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민이 당대회를 맞으며 절절히 보고싶어하는 영화가 아니겠는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력사적인 우리 당 제6차대회의 성격에 꼭 맞는 작품의 종자, 벌써 그것만 가지고도 작품전체의 내용과 형식을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충실한 형상의 씨앗을 안겨주시였는데 구태여 무슨 다른 대답이 있을수 있겠는가.

일군은 말없이 감동에 젖어있을뿐이었다.

이처럼 혁명영화 《조선의 별》 창조사업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작품의 충실한 종자를 안겨주심으로써 그 첫걸음부터 확고한 신심과 열정을 안고 전진할수 있었다.

버들꽃 날리는 기슭에서

박창화

못잊어
어머님을 못잊어
그날 그때처럼 보통강 기슭엔
하얗게 버들꽃이 날리고

못잊어
어머님을 못잊어
그날 그때처럼 내 가슴엔
뜨거운 그리움이 차넘치고...

간절한 마음 안고
살오른 실버들가지 쓸어만지노라니
아, 눈에 삼삼 어려오는
김정숙어머님의 땀에 젖은 모습!

어디바루나
까만 치마허리 줄라매신 어머님
너맹원들의 앞장에 서시여
질통가득 흠을 저나르신곳은

어디바루나
터져오르는 지하수 감탕속에
어머님 남먼저 뛰어들어
온 공사장을 격동시키신 그곳은-

어데를 둘러봐도
화강암층계 물결에 비껴오고
웃음소리 그칠새 없는 유보도엔
향기로운 꽃송이들 봄바람에 설레어

력사의 그날, 보통강기슭에 찍으신
어머님의 발자욱 보이지 않아도
마음속엔 또렷이
숫눈우의 발자욱처럼 안겨오누나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토성랑의 불행을 영영 가셔버리시려
비발속을 달리시던 그 자욱
감탕길을 밟으시던 그 모습!...

아, 어디선가 봄바람 타고오는
유정한 피리소리, 버들피리소리
간절한 마음
그리운 마음 더해주는데

머리수건 벗어 땀을 씻으며
어머님이 저기 걸어오시는것만 같구나
어머님의 그 영상 언제나 어려있어
력사의 강은 흐려지지 않는구나!

비 단

신국봉

내 어렸을 땐
명절날도 입고나갈 옷 한벌 없어
동무들 찾아와도 누데기 쓴채 배앓는 시늉...
차마 옷없단 말조차 부끄러워 못했더니
오늘은 날마다 명절인듯 비단옷을 입누나

우리 수령님!
돌에서도 인민의 옷감을 뽑아주시고
외진 섬마저 비단섬으로 꾸려주신 은덕
얼마나 알고 비단옷을 나는 입는가
알고 입어야 마음도 비단이 되리

명제해설

《자연주의는 현실을 현상적으로, 기계적으로 묘사하며 생활의 본질과 진실을 외곡하는 부르조아문학예술의 주되는 사상조류입니다.》

김정일

자연주의는 생활의 본질을 진실하게 그릴것을 요구하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과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부르조아문학예술의 주되는 조류이다.

자연주의는 19세기중엽 유럽에서 신흥부르조아지들의 취미와 사상, 심리 상태를 반영하여 발생하였다.

자연주의는 순수 자연을 찬미하면서 생활을 《있는 그대로 그린다》는 미명하에 현실을 현상적으로, 기계적으로 묘사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시하고 잡다하고 무의미한 신변잡사들을 늘어놓음으로써 생활의 본질과 진실을 외곡하여 그려낸다.

자연주의작가들은 사람을 사회적존재로 보는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존재로 간주하면서 인간의 생리적특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부패타락하고 추잡한 생활을 추구하고있으며 개인의 리기주의적인 무위도식하는 생활잡사와 비본질적인 세부들을 불필요하게 묘사하면서 거기에 그 어떤 예술적 《미》와 《진실》이 있는것처럼 떠벌이고있다. 그것은 생활을 자연그대로 그린다는 구실밑에 생활의 본질을 비본질적인것으로 감싸고 진실을 외곡하려는 저들의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문학에서 자연주의적 경향은 부르조아문학에서처럼 자연을 찬미하는 공공연한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현실을 미화분식하고 과장하거나 형상적비유의 외피를 쓰고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을 외곡하는 방법으로 많이 나타난다.

지난 시기 3대혁명소조운동에 대하여 쓴 어느 한 가사에서는 《싸우라 하신》, 《승리하고 돌아오라》 등의 표현을 씌으로써 마치도 우리 사회에 적대적모순이 있으며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싸워야하며 그 싸움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는것처럼 생활을 과장하여 묘사하였다. 이렇게 되면 작가의 주관적의도와는 관계없이 사회주의제도의 참다운 우월성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며 사회주의현실을 외곡하여 그려내게 된다.

전쟁시기 생활을 그리면서 인민군대는 어려운 정황에서 악전고투하는것처럼 보여주고 반면에 원수들은 화려한 환경에서 안락하게만 생활하는것처럼 묘사한것도 생활에 대한 외곡으로써자연주의적경향이다.

조국통일주제작품에서 썩어빠진 남조선사회를 미화분식하여 그리는 편향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향은 작가가 계급적원칙에 확고히 서서 생활의 본질을 일반화하지 못한데서 오는것이다.

사회주의문학에서 자연주의는 형상적비유를 옳게 하지 못하는데서도 나타난다.

형상적비유는 일정한 대상의 본질과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언어표현수법의 중요한 형태이다. 형상적비유를 잘하면 대상의 본질과 특징을 선명하게 풍부한 뜻을 담아 잘 나타낼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생활에 대한 과장과 분식을 낳게 하며 결국은 자연주의적경향으로까지 굴러떨어지게 된다.

지난 시기에 창작된 한 가사에서는 당을 흘려가는 물결에 비유함으로써 자연주의적형상수법을 발로시켰다.

가사에서 시인은 《흐르는 물결》, 《설레이는 은빛물결》을 노래한 다음 3절에 가서 《나도야 너처럼 즐기치게 달려가리, 당을 따라 한마음 굴함없이 나도 가리라》고 애매하게 표현하였다. 여기서 《당》과 《흘러가는 물결》은 론리적으로나 형상적으로 도저히 비유가 어울리지 않는것이다.

이러한것은 작가의 주관적의도가 어떻게 형상적비유의 외피를 쓰고 사회주의사회의 현실을 외곡하는 자연주의적창작경향이다.

문학작품창작에서 자연주의적경향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우리 문학예술을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기초하여 건전하게 발전시켜나갈수 없으며 문학을 우리 식으로 건설할수 없다.

작품창작에서 자연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작가자신이 자연주의적요소를 식별하여 볼수 있으리만큼 정치적 식견과 안목이 높아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작가들은 우리 당의 주체적문제사상과 리론으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하며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적사실주의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자연주의를 비롯한 온갖 부르조아반동문학조류의 침습을 반대하여 투쟁함으로써 우리 인민이 좋아하는 우리 식 문학예술작품을 더 훌륭히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고철웅

우리의 국화-목란

리명근

깨끗하고
아름답고
청신하여
이름만 들어도
한번만 보아도
아, 정드는 꽃
우리의 국화-목란!

하얀 꽃잎
파란 잎사귀
억센 줄기
그 모든것 가깝게만 느껴져
소중히 마음속에 안아보는
조선의 꽃- 목란

슬기와 근면과 소박성을 지닌
백의민족의 넋인양
부드러우면서도 강직한
수수하면서도 눈부신
송이송이 하얀 꽃잎에
오래도록 오래도록
입맞추고싶구나

우리 수령님
금강산에 피여난 너를 보시고
그리도 기뻐하시며
아름답다고
향기롭다고
그 넓으신 품에 안으실 때
아, 이 땅의 모든 아름다움이
여기로 다 모여온것만 같았더라

우리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수령님 사랑하시는 꽃이 여서
인민이 사랑하는 꽃이여서

온 나라 어디에나 더 활짝
너를 피워주시었거니
은혜론 그 사랑에 받들려
온 강산에 만발한 목란꽃이여

그래서 이 땅에 솟구치는
시대의 기념비들에
네 모습 새겨지고
울려가는 조국찬가에
네 이름 담겨지고
아이들의 고운 옷감에
네 모양 수놓아지는것 아닌가

해빛을 안고
별빛을 안고
피여 언제나 아름답고
피여 언제나 향기로운
조선의 상징- 목란꽃
내 나라와 더불어 영원할
우리의 국화- 목란꽃이여

축원하노라
천년을 만년을
번영하는 조국과 함께
우리 나라 국화로
삼천리강산에 만발하라
그 아름다움
그 향기로움
만방에 떨치라

아, 조선의 꽃
우리의 국화
목란꽃
목란꽃이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작가가 노는 역할

김려숙

작가는 어떤 사람이며 우리 시대 작가의 영예와 행복, 보람과 긍지는 무엇인가, 작가는 문학작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당과 혁명에 복무하는 혁명가이다. 수령의 높은 평가와 크나큰 믿음, 이것은 작가에게 있어서 최고의 표창이며 최대의 행복이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이것은 당 건설과 활동에서 우리 작가들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새롭고 독창적인 해명이다.

당 건설과 당활동은 당을 창건하고 조직사상적으로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령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이다.

로동계급의 당건설위업과 그 활동은 대를 이어 계승발전된다. 당건설에서 계승성을 보장하는 문제는 당의령도의 계승성을 보장하는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나가는 당의령도계승문제가 우리 나라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해결되었다.

오늘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당을령도하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련된령도와 정력적인 활동에 있다. 다시말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제시하신 주체의 당 건설 사상과 리론을 철저히 구현하며 당사업전반에 대한 그이의 유일적령도를 더욱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우리 당을 영원히 주체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그 전투력과 령도력을 높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데 있다.

이로부터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작가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충성과 효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혁명가의 자세와 립장, 혁명적인 창작기풍과 창작활동에 관한 문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작가들의 위치와 역할을 력사상 처음으로 영광스러운 우리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 건설과 활

동의 건지에서 새롭게 천명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하고 독창적인 사상은 당을 따라 준엄한 혁명의 길을 충실하게 걸어온 우리 작가들에 대한 높은 평가이며 혁명의 앞길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추호의 동요없이 영원히 당의 작가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크나큰 믿음의 표시로 된다.

참으로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의 고귀한 칭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작가들을 아끼고 보살피며 깨우치고 이끌어주어 이 세상 가장 긍지높고 행복한 작가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사랑과 믿음의 결정체이며 령도자와 인민, 수령과 전사간에 혁명적의리와 동지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일심단결의 뚜렷한 상징이며 작가들의 창작활동에 거대한 활력을 주는 영원한 생명력으로, 고무적기치로 되고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오늘 우리 작가들처럼 이렇듯 크나큰 행복속에 보람찬 창작활동을 벌리며 참다운 삶을 누리는 작가들이 있었으며 또 있는가.

지난 시기 정치가, 사상가들은 작가를 포함한 지식인들의 특성을 동요성, 이중성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노는 역할을 옳게 해명하지 못하였다.

최근 일부 나라들의 실패는 사회가 발전하고 혁명과 건설이 심화될수록 지식인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지 못하면 지식인들속에서 당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사회주의에 대한 신심을 잃고 동요가 일어나며 복잡한 사회정치생활의 와류속에 휘감겨들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을 준다.

그러나 우리 나라 지식인들은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식 사회주의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가지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주체의 한길을 따라 신심 드높이 나아가고있다.

특히 우리 작가들은 당과 수령으로부터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라는 값높은 칭호를 받아안고 작가로서의 최상의 높이에 서게 되었다.

현실은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이 얼마나 정당하며

그 불패의 생활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혁명적문학예술이
노는 거대한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 발전에 깊
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새 민주조선 건설에서 작가, 예술인들을 비롯한 우
리 지식인들을 혁명의 주체의 한 구성부분으로, 혁
명의 동력으로 보시고 당마크에 마치고 낮과 함께
벗을 새겨넣어주시었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화전선의 투사, 우리 인민의 리익의 옹호자, 대
변자로서 건국의 초행길도 걸었고 준엄한 전쟁의
포화도 헤쳤으며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에도 참가했다.

그 과정에 우리 작가들은 시대와 인민의 요구를
반영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여 인민들
을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차게
고무추동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드시어 우리 문학예술로 하여금 당
의 위력한 정치사상교양수단으로서의 자기의 기능
과 역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개척해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사상의 빛발, 빛
나는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으로 문학예술혁명이 일
어나고 20세기 문예부흥기, 주체예술의 대전성기
가 마련되게 되었으며 그 거창한 투쟁과 변혁의 길
에서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원대한
구상과 의도를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당의 친위
대,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새롭게 밝혀주신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작가들이 노는 역할을 되새겨
볼수록 당과 수령을 따라 걸어온 로정이 자랑스럽
고 걸어갈 앞길에 신심넘친다. 정녕 걸어온 자욱을
뒤돌아보아도, 앞으로 나갈 먼길을 바라보아도 우
리는 하나의 곧바른 길, 주체의 길우에 서있음을 긍
지높이 느끼게 된다. 그 길우엔 우리 작가들의 정치
적생명의 어버이이시고 보호자이시며 창작의 목적
과 방향을 뚜렷이 제시해주시고 창조적환상의 나래
를 펼쳐주시는 위대하고 자애로운 스승의 따사로운
빛발이 눈부시게 빛을 뿌린다.

작가와 문학작품은 떼수 없으며 그의 역할 역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혼연일체를 이루고있다.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작가가 노는 역할도 그
가 창작한 문학작품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작가는 무엇보다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
한 동행자이다. 이것은 작가의 지위와 역할을 규제
하는 근본문제이며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

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된다는것은 당에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당과 끝까지 운명을 함
께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된다는것을 말
한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는 주체위업을 위한 성
스러운 길에서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충신,
효자이다. 당의 영원한 동행자만이 우리 시대의 참
다운 충신, 효자이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작가들은 길가에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길동
무나 혁명의 일시적동반자가 아니라 친애하는 지도
자동지께 자기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는 영원한 동행자로 될 때에만 주체
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는 길에서 참다운 충신, 효
자로 될수 있으며 당 건설과 활동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다.

혁명위업은 수령의 위업이며 혁명적 신념과 의리
는 수령의 위업에 대한 확신과 그에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혁명적량심에 기초하고있다.

그런것만큼 작가들은 혁명적수령관을 인생관화
하여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린다고 하여도
오직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 혁명의 한길을 변함없
이 끝까지 걸어나가며 그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서
슴없이 바쳐야 한다.

혁명적수령관을 인생관화하는것은 다른 말로 하
면 충성과 효성을 인생관화하는것이라고 말할수 있
다. 작가들은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리고 자나깨나
즐거울 때나 피로울 때나 먼저 당과 수령을 생각하
며 삶의 순간순간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
으로 이어나가는것을 삶의 요구로 삼아야 한다. 이
것은 작가가 인간으로서 참된 삶의 보람을 찾고 행
복을 누리기 위한 근본요구일뿐아니라 붓으로 당의
위업을 받들어나가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우리 작가들은 모든 사람들을 수령님과 당만을
믿고 따르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드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 영예롭고도 책임적인 임무를
지니고있다.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이 성스러운 임무는 작가
자신이 당의 영원한 동행자가 될 때에만 원만히 수
행될수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조선문학창작사 시인
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어깨걸고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의 노래를 부르시었다는 감동적인
사실에 접하였을 때 과연 우리 작가들은 무엇을 생
각했던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결에 자기자신을 나란히
세워보았고 그이와 함께 이 노래를 부르면서 혁명
의 앞길에 그 어떤 우여곡절이 있다고 해도 추호의

동요없이 오직 당을 따라 나아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이것은 영원히 그이를 믿고 따르려는 우리 작가들과 우리 인민의 불타는 신념과 의지의 노래, 충성의 맹세였다.

작가는 자신이 당의 영원한 동행자로 되어야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공고화된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 수령, 당, 대중이 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로 결합된 우리 사회의 공고성과 불패성의 원천, 대를 이어 계승되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사상 감정을 그대로 문학예술작품에 반영할수 있다.

항일혁명투사 김혁동지는 혁명송가 《조선의 별》에서 조선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령도자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받든 청년공산주의자들과 우리 인민의 무한한 흠모와 신념을 노래했다면 오늘 우리 작가들은 가사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수령님을 따라 천만리, 당을 따라 천만리》, 《우리의 신념은 하나》 등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받들어 준엄한 날, 영광의 날 변함없이 운명을 함께 할 우리 인민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를 노래하고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그 감화력에서 그 어떤 교양수단과도 대비할바없이 크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고 그 업적을 빛나게 형상화한 작품창작은 여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은 사상과 령도, 품모의 위대성이 낳은 결실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고귀한 재부이다.

작가들은 우리 인민모두에게 영생하는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령도업적과 그이를 믿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충성의 사상감정을 깊이있게 형상화한 문학작품들을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창작하는데 모든 창작적 정열과 지혜를 바쳐야 한다.

그래야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모든 사람들을 일시적인 동반자로서가 아니라 혁명의 영원한 동행자로 믿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똑똑히 인식시키며 대를 이어 충성다하도록 교양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게 된다.

장편소설 《아침해》, 《예지》, 《불구름》을 비롯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 소설문학작품들과 최근에 더욱 왕성하게 창작되는 충성의 송가작품들은 그이를 높이 받들어모시고 따르는 우리 인민의 필승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하여주고있다. 작품들은 언제나 마음속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영상을 소중히 간직하고 기쁠 때도 피로울 때도 그이를 우러르며 힘과 용기를 얻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살며 투쟁하도록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다음으로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작가는 당의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이다. 이것은 작가가 당이 맡겨준 혁명임무수행을 통하여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문제이며 영원한 동행자로 되게 하는 확고한 담보이다.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로 될 때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로 당의 영원한 동행자가 될수 있다.

당의 충실한 방조자로 된다는것은 당의 의도와 구상, 로선과 정책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옹호하며 당의 위업을 실천적성으로 받들어나가는 믿음직한 협력군으로 된다는것을 말하며 당의 훌륭한 조언자로 된다는것은 당의 위업의 정당성과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건설적인 방안과 방도를 제기하는 당의 정열적인 사색가, 적극적인 활동가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작가는 직업적인 당일군이 아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작가는 당 건설과 활동에서 이처럼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의 역할을 할수 있는가, 그것은 문학예술작품이 당의 수중에 장악된 위력한 당사상사업의 무기이며 작가는 당사상사업의 중요한 일익을 맡고있는 혁명가이기때문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정권을 쥔 우리 사회,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그가 어떤 초소에 있든 다같이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어떻게 이바지하고있는가 하는데 따라 좌우된다.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맡고있는 혁명임무는 서로 달라도 혁명임무에는 귀천이 있을수 없으며 사람들은 저마다 당과 수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자기의 힘과 지혜를 다바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창작적 재능과 지혜로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결정적고리인 인간개조사업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작가들은 문학작품창작의 실천적성으로 당의 사상과 로선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그것을 변함없는 자세로 관철해나가는 당정책의 열렬한 지지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되어야 한다.

작가들이 당 건설과 활동에서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의도하시고 요구하시는 문제를 제때에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의도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쓰는 작가가 바로 당의 작가이며 당의 위업에 충실한 방조자, 조연자이다.

당이 구상하고 의도하는 문제, 당이 안타까와하는 문제, 당이 극복하자고 하는 문제, 당에서 힘을 낼자고 하는 문제를 제때에 예리하게 포착하여 작품을 써야 당을 지지해주고 당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된다.

우리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예술영화 《보중》을 보시고 신심과 용기를 얻었으며 자신께서 한 일에 대한 긍지감도 가지게 되었다고 하신 감동적인 말씀을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를 보면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당하기때문에 작가가 그것을 받아물고 영화문학을 썼고 영화에 나오는 허진성이나 원석해같은 사람들이 당을 어머니로 여기고 것처럼 눈물을 흘리는것이 아니겠는가.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사람들의 가슴속에 맺혀있는 문제를 당에서 풀어주니 그들이 당을 얼마나 믿고 따르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생각하시었다고 하시면서 영화를 통하여 허진성이나 원석해같은 사람들에게도 당의 해빛이 따사롭게 비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알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현실속에서 체험하고있는 수령의 위대성과 당정책의 정당성을 훌륭하게 그려낸 작가와 작품, 수령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준 작가와 작품, 이런 작가, 이런 작품이 바로 당의 위업수행을 믿음직하게 보좌하는 방조자, 조연자로 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조연자로서의 작가의 창작활동은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고 일심동체가 된 우리 작가들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다.

당이 요구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를 반영한 문학작품은 단순한 문예물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그대로 당정책이라고 말할수 있다. 작가들은 모든 작품을 정책적인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작품의 내용상특성에 따라 당정책적인 문제를 직접 취급하는 작품은 더 말할것도 없고 다양한 주제와 양상을 띤 모든 작품들에서의 형상체계와 형상요소들에 주제적 문에 사상과 리론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우리 당의 의도와 구상, 당정책을 민감하게 반영함으로써 주제적문학예술 발전력사에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혁명투쟁력사를 빛나게 구현할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력사, 우리 당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한 사업,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그 필승불패의 위력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주체의 혁명적기치 높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칠데 대한 문제, 당사업을 개선강화하며 각계각층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우리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데 대한 문제, 조국통일문제 등 오늘 우리 당이 내세우고있는 정책적문제들은 그 어느것이나 다 작가들이 관심하고 풀어야 할 창작적문제로 된다.

모든것을 당정책적건지에서 사색하고 체험하며 상상하고 창작적열정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당에 기쁨을 주고 사람들의 가슴을 격동시키는 훌륭한 작품이 나오게 된다는것은 현실에서 확증된 진리이다.

일군들이 높은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지니고 전후복구건설과 천리마대고조시기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당의 요구를 구현하여 락원의 10명당원들과 강선의 로동계급의 영웅적투쟁을 형상한 작품들이 창작되였다. 우리 당의 위대성과 그 공고발전의 무궁무진한 원천으로 되고있는 숨은 영웅들과 숨은 공로자들의 고상한 품모를 형상한 작품들, 정치적생명의 보호자인 당일군들이 당의 의도대로 일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반영한 작품 등 높은 사상예술적수준에 이른 작품들은 레외없이 당의 요구를 심장으로 접수한 작가들의 고심어린 창작의 결실이다.

또한 우리 작가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선민주제일주의정신으로 교양할데 대한 중요한 요구를 제기하시였을 때 가요 《우리가 제일일세》,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이라는 민족적색채가 짙으면서도 모두가 부르기 쉬운 명곡을 창작하였으며 검덕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돌파구를 열어제길데 대한 당의 구상이 펼쳐졌을 때에는 제일 먼저 검덕땅으로 달려나가 검덕땅 사람들의 내면세계를 반영한 수많은 작품들을 내놓아 온 나라를 기쁘게 해주었다. 하기에 인민들은 이 노래들을 무심히 부르지 않으며 작가들의 창작품들을 흥미거리로 대하지 않는다.

노래속에서, 인간성격속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뜻과 구상을 가슴뜨겁게 느끼는것이다. 인민들이 작품을 통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상과 다심하신 아버지사랑을 느끼며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갈 때 우리 작가들은 참으로 자기 사업에 대한 더없는 긍지를 가지게 된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모든곳, 모든 사람들속에서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작품은 고무적기치로 되고 있으며 그들의 심장속에 살아있는것이 아닌가.

불꽃튀는 용해장과 수천척지하막장에서, 통일거

리 건설장과 북부철길 공사장들에서 장편소설 《녀당원》, 《빈터우에서》와 《철의 신념》의 주인공들인 주용녀, 로장섭의 이름은 당을 받드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의 대명사처럼 불리우고있다. 청년건설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이 가슴깊이 간수한 수첩들에는 서정시 《어머니》와 《용서하시라》가 적혀있으며 우등불이 타오르는 밤하늘에서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의 맹세가 노래가 되고 시가 되어 울려 퍼진다.

오늘 당일군들속에서는 차석빈, 박신혁, 원학범이와 같은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을 따라배워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의 구호를 철저히 관철해 나가기 위한 투쟁이 심화되고있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공장과 농촌, 학교와 일터에서 우리의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이 생활의 교과서로 되고있고 작품의 주인공들을 생활의 거울로 삼아 실효투쟁을 벌리고있는 사실만을 가지고도 우리의 문학예술작품이 얼마나 거대한 인식교양적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있으며 당건설과 당활동에 어떻게 실천적으로 이바지하고있는가를 충분히 알수 있다.

작가들이 당의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오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위한 하나의 심장만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문예전선을 책임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자신을 혁명적수령관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밖에는 그 어떤 다른 사상도 모르며 오직 주체사상을 고수하기 위한 창작활동을 벌려야 한다.

그리하여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를 비롯하여 우리 당이 당건설과 활동에서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독창적인 원칙과 그 위대한 생활력을 생동한 형상으로 보여주며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데 대한 당의 요구를 높은 혁명적자부심과 민족적궁지속에 형상화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작가들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필승불패의 비결을 형상적으로 밝힌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작가들이 당의 로선과 정책을 민감하게 받아물고 그것이 꽃피고있는 우리의 현실에 깊이 침투하여 우리 시대, 로동당시대를 열렬히 긍정하고 공감하는 뜨거운 심장을 지녀야 한다.

단편소설 《고향의 모습》, 중편소설 《들장미》,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도시쳐너 시집와요》, 텔레비존극 《종달새》들은 작은 형식, 아담한 형식의 작품으로서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긍지를 참신하고 뜨겁게 느낄수 있게 하는 작품들이다. 주제가 다르고 형태 또한 각이해도 주인공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가 광만적인 색조로 진하게 안겨온다.

우리 인민이 누리고있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열렬히 긍정하고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지향과 념원에 적극 공감하여 창작한 작품들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소중한 꿈과 이상, 희망과 포부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옹호고수하며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시키도록 교양한다.

현실의 다양한 분야에 더 깊이 파고들어 참신하고 의의있는 문제를 제때에 민감하게 포착하며 90년대의 새로운 인간성격을 창조하는것은 오늘 우리 작가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충성과 효성을 다해나가는 인간본보기들은 수없이 많다. 우리 작가들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인물들과 미담들도 그려야 하지만 거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평범하고 소박한 인간들의 정신세계에서 진실하고 매혹적인 성격을 새롭게 찾아야 한다.

현시점에서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창조에 계속 거대한 의의를 부여하면서 특히 기충당조직일군인 세포비서의 성격창조와 같은 문제들에 응당한 관심을 돌리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미 중편소설 《불바람》의 주인공인 당세포비서 박진수, 영화문학 《월미도》에서 당분조장 민국, 영화문학 《심장에 남는 사람》에서 다이아 직장 당세포비서 등의 형상창조에서 이룩된 성과도 있지만 기충당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높일데 대한 당의 요구를 문학작품에 반영하는 데서는 아직도 새롭게 탐구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적지 않다.

우리 작가들은 현실에서 새로운 수많은 문제점들을 찾고 진지하게 모색하고 탐구하며 집체적지혜를 발동하여 그것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해결하여야 한다.

높은 사상성과 고상한 예술성이 결합된 문학예술작품은 우리 식 문학예술, 주체적문학예술의 본질적특성이다.

모든 작가들은 독자들에게 흥미있게 읽히우고 교양과 교훈을 주는 다양한 주제의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하여 시대의 지향과 인민의 요구에 적극적인 대답을 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작가들은 당 건설과 활동에서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가 될데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어머니조국이어

윤명숙

내 머리 회여가도
눈앞에 떠오르는것은
나를 낳아준 어머니의 얼굴이 아니다
오늘도 베개머리에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유년시절의 그 음성
잊지 못할 그 사랑의 발자국소리

저물녘
강가에서 나를 찾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어도
학원 담장을 에돌아오시던
평생 귀에 익은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의 발자국소리
꿈결에도 내 찾는 그 사랑의 자욱
오늘도 나의 순회길 직기결에 다시 울리나니

아 흐르는 세월속에
더더욱 깊어지는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
그 누가 다 안다더나
철없는 그 시절엔 철없어 모르고
이젠 철이 들어도 다 모르고

아름다운 노래처럼
조용히 이 가슴에 스며든 사랑이 아니다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피의 대가로
가장 값높은 위훈과 고결한 사랑으로
나를 키운 어버이 그 사랑이어

모든것이 파괴되고
불길속에 타버리어도
머리오리 하나 다칠세라 안아주며
나를 요람속에서 키워주었어라

아 세상에 없는 풍파와
시련을 뚫고 헤치며
세상에 없는 락원을 일떠세우려
우리 수령님 걸으신 반세기가 넘는 걸음이
조국의 걸음이였다

내 심장속 피가 되어 흐르고
뼈가 되어 의지로 다져진 어버이사랑
가도가도 풍요한 들과 기름진 이 땅은
내 나서자란 뜨락이 아니더나
맑고맑은 저 하늘조차
내 희망 내 운명 지켜주는듯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이
땅에는 금빛으로 설레이고
기대앞에선 꽃물결로 흐르는 사랑의 그 품이어

어디까지가 내 바쳐갈 삶이더나
나에게 준 사랑 끝이 없는 나의 조국이어
나의 삶을 영원히 빛내주는
어버이수령님 품이어

매 력

류정옥

이슬 머금은 머루알같은 눈동자들이 반짝거린다. 작업반에 새로 받아들인 양성공들이다.

나는 하고싶은 말이 있어 이들과 마주앉았다. 많은것을 기대하는 호기심어린 눈빛들이 나를 바라보고있다.

허나 나의 이야기는 별로 흥미를 주지 못할것이다.

...비극은 내가 지예보다 《우월》하며 《강》하다고 생각한데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지.

지예, 그는 나의 고등중학교 동창생이며 졸업후에는 한작업반에서 일을 한 첫 로동의 벗이다.

중학교때 학과실력에서 나를 위협하는 경쟁자였으며 내가 따를수도 없고 누를수도 없는 장점을 가지고있다.

그것은 동무들을 깊이 사랑하는 착한 마음씨와 준수한 외모였다. 부채살같은 눈섭에 쌍꺼풀이 진 그의 눈은 아름다운 녀이 샘솟듯이 황홀감을 자아냈고 선이 끝은 코마루는 어딘가 도그한 인상을 주면서 가름한 얼굴에 조화를 이루었다.

그와는 반대로 인상적인데가 있다면 매달린듯한 들창코가 특징인 내가 어떻게 지예와 겨룰수가 있겠는가.

곱게 생기고 공부 잘하며 마음이 착한 지예를 동무들은 모두 좋아했다.

그러나 나는 그를 내가 쳐다보며 동경할 인물들의 부류에는 넣지 않았다.

그 시절에 나는 삶에 대한 내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있었다. 사람은 생의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하며 그것은 반드시 영웅적이어야 할것이고 그것을 향해 이악하게 돌진해야 한다는것이였다.

그때 내 단어장 갈피들에는 이런저런 책들에서 베껴쓴 상식적인 명제들이 있었는데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영웅적인것, 숭고한것》, 《목적없는 생은 죽음과 같다》, 《행복은 곧 투쟁이다》, 《과학의 요새는 넓고 끝은 길로만 가는것이 아니다. 가시밭도 진창길도 넘는자만이 성공에 이를수 있다》 이러루한것들이였다.

물론 그 의미를 깊이 리해한것은 아니다. 무언가를 동경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런것을 외우는것이 고상한 멋으로 느껴지던 시절이였다.

그 막연한 동경이 구체적인 나의 리상으로 뚜렷하게 자리잡게 된것은 이웃인 지금의 우리 방직공장에서 로력영웅이 났을 때였다.

그때 우리 학교 축하단에 속했던 나는 황홀경에 묻힌 영웅의 모습에서 크나큰 충격을 받았다.

꽃보라와 꽃다발, 번쩍이는 렌즈들이 저마다 따르는 행복한 얼굴, 수많은 사연과 위훈을 간직했을 빛나는 금별메달, 만사람들의 축복속에 떠받들린 영웅이였다.

무한한 선망에 잠긴 나의 가슴속에서는 하나의 결심이 굳어졌다.

(나도 꼭 방직공이 되어서 영웅처럼 명성을 떨쳐보리라.)

그것으로써 나의 꿈은 확고했었다.

헌데 지예는 그렇지 않았다. 그에게는 뚜렷한 꿈과 지향이 있는것 같지 않았다. 졸업을 앞두고 모두들 자기의 리상을 운운하면서 흥분할 때 그가 하는 말이란 대학에도 가고싶고 사회주의대건설장에도 가고싶다는것이였다.

얼마나 두리뭉실한가. 대학이면 어느 대학인가, 사회라면 어느 분야인가, 그 테두리마저도 없었다.

파념이 없는 리상이란 있을수도 없지만 있다 한들 명중할수가 있는가.

이처럼 갈피가 없던 그가 졸업후 절반이상의 녀학생들이 방직공장으로 쏠리자 그 역시 흐름을 따라 직포공이 된데서 더욱 명백해졌다.

또한 그에게서 무시할수 없는것은 지내 착해서인지 아니면 지향점이 없어서인지 그릇에 따라 변하는 죽처럼 조건에 따라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했다.

우리는 자주 복습문제풀이나 책읽기경쟁을 했는데 돌려가며 보아야 할 책같은것을 차지하는데서도 날째지 못해서 맨 뒤꼬리를 잡는 때가 많았고 학과실력이 낮은 학생들이 방조를 청하면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 계획마저 미루어버렸다.

이것은 크건작건간에 한번 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고야마는 강한 의지력과 결단성이 없는 표현이였다.

그러면서도 그 모든것에 아무런 불만도 느끼지 않는 지예라는것이 더욱 이상했다.

나도 지예의 청에 못이겨 학습방조에 한두번 따라선적이 있었는데 인차 부담을 느꼈다. 나의 자학습시간을 빼앗기는것이 무엇보다도 싫었다.

그러나 지예는 그것을 우당한 일처럼 생각하는것 같기도 했고 하나의 기쁨처럼 여기는것 같기도 하였다.

나는 그것이 그의 타고난 천성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공부를 잘하는것도 그저 머리가 나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기며 크게 경계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한번은 선코를 떼웠다. 전교적인 학과 경연에선 지예가 나를 누르고 1등을 한것이다.

가슴에 안은 꽃다발보다 더 아름다운 그의 사진이 벽보판에 나붙고 선망과 감탄의 시선들이 그에게로 쏠렸다.

나는 짓밟힌듯한 자존심과 모멸감, 참을수 없는 수치감, 시기심으로 하여 견딜수 없었다. 일부러 벽보판을 멀리 피했으며 어쩔수 없이 그앞을 지나게 될 때는 랭랭하고 무심한 표정을 짓고 사진을 외면했다.

가슴속에서는 두번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기동같은 결심이 솟구쳤다.

그후 나는 기본과목은 물론 체육이나 예술소조같은 과외활동에서도 수십배의 노력으로 지예는 물론 학급 전체를 앞섰다.

이 성공은 나에게 보다 큰 쾌감을 주었다. 나는 역시 리상에서, 의지력에서, 두뇌에서 지예를 앞섰다는 자존심의 만족이었다.

이와 같은 시기심과 경쟁심이 내포된 나의 자존심은 공장에 와서도 계속되었는데 나는 이 점을 나 자신과 또 누구에게나 인정시키고싶었다.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무엇때문에 구태여 나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시위》하려 하는가.

나는 그것이 강자앞에서 약자가 느끼는 위구심이며 위선적인 약자의 슬픔이었다는것을 세월이 흐른 뒤에야 느낄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자신을 스스로 피롭힌 하나의 비극으로 된듯싶다.

직포공이 된 우리 학급 처녀들은 모두가 한작업반에서 일했다. 헌데 그저 흐름을 따라 무난하게 흘러온 지예라고만 생각한 그가 공장에 와서도 무시할수 없는 대상으로 내결을 바투 따라섰다.

우리는 둘다 2, 3년대로 남다른 일숨씨를 보이며 기능공 대렬에 들어서게 되었다.

어느날 지예와 나는 우연하게 출근걸음이 맞아서 함께 현장으로 들어서다가 복도에 새로 써붙인 속보를 보고 주춤 멎어섰다. 그리고는 합창이나 하듯이 입을 모았다.

《쌍둥이 충성동 리지예와 문경실동무!...》

당의 경공업혁명방침을 높이 받들고 1.4분기계획을 10일이나 앞당겨 초과완수했다는 내용이었다. 지예는 118프로였고 나는 118.5프로였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다가 웃음을 터뜨렸다.

《어마나, 우릴 보고 쌍둥이라구?!... 지예, 너 자존심 상하겠구나. 너같은 이쁜이를 이 못난 들창코와 쌍둥이라니 될말이니?》

《아니야, 너의 들창코는 아주 매력적이야. 뭔가 높은 지향성을 가지고 항상 쳐들려있거든.》

우리는 허리를 꼬부러가며 즐겁게 깔깔거렸다.

그러나 잠시후 내 가슴속에서는 웃음이 결히었다. 이대로 방임했다가는 지예한테 또 뒤질수 있다는 위구가 불쑥 들었다. 어떻게 되어 특별한 지향점도 없이 사는듯한 지예가 내뒤를 바싹 따르는지 알수 없었다. 반대로 내 걸음이 그만큼 굼뜨다는것을 말해주는 증거인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든 안심치 않았다.

현실도 부단히 혁신할것을 요구한다. 작업반에서는 높은 증산목표를 내걸고있다. 누구보다 그 앞장에 서서 당의 경공업방침을 훌륭히 실현할 때 나의 꿈도 앞당겨질것이다.

도무지 열흘을 앞당겨 118.5프로가 무엇이람, 2.4분기계획은 적어도 한달이상 앞당길테다.

이런 결심을 가다듬고있던 나는 내옆에 섰던 지예가 없어졌다는 느낌이 들어 돌아보았다.

그는 어느새 저쪽벽에 붙은 다른 속보앞에 서있었다.

그 역시 방금전의 명랑하던 기색은 없어지고 어딘가 흐린 표정이었다. 웬일인가싶어 나도 지예쪽으로 다가서며 그의 눈길을 따라 속보를 바라보았다. 제목자체가 벌써 심상치 않았다.

《〈80년대속도〉에 발을 맞추라!...》

비관의 위압이 느껴졌다. 아니나다를까 그 내용은 우리 동창생들인 리춘희와 몇몇 직포공들이 증산과제를 미달하고있다는것이였다.

학교때는 별로 남의 눈에 나지 않던 그들이었는데 공장에 와서는 웬일인지 점점 뒤로 밀리고있었다. 그러다보니 찍하면 로력동원같은데나 자주 걸리곤하였다. 하지만 누굴 탓할것이 못된다. 그자신의 열정문제이고 립장문제일것이다.

《언제 가면 정신들을 차릴려는지...》

나는 경멸적으로 뇌까렸다.

하긴 아무리 줄기찬 흐름속에서도 기슭으로 밀려나는 거품이 있듯이 락오자는 어느 시기에나 있기 마련인듯했다.

저런 사람들의 몫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 많은 천을 짜야 할것이였다.

《...하루에만도 500여메터구나.》

귀가에서 울리는 지예의 말이였다.

《?!...》

《우리 작업반에서 매일 잃어버리는 천이야.》

《잃어버리는 천?!》

《우리 동창생들 모두가 꼭같은 쌍둥이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니.》

《그건 또 무슨 소리니?》

《그렇게 되면 하루에 500여메터나 더 짤수 있

어.》

어느새 계산도 빨랐다. 나는 한참만에야 지예가 춘희네들을 두고 하는 말이란걸 짐작할 수 있었다.

긴 속눈썹에 가리운 지예의 눈길엔 진정으로 안타까와하는 기색이 그대로 담겨있다.

《저네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가?!》

제가 무슨 작업반장이라도 되는것 같다고 룡말을 하려다가 나는 그 눈길을 보고 그만두었다.

그대신 내판으로는 그럴듯한 말을 하였다.

《세상만물은 일렬횡대가 아니야. 높고낮고, 길고 짧고, 앞이 있고 뒤가 있는 법이야.》

《허지만...》

《됐어, 작업준비 늦어지겠다. 그들대신 우리가 한결음이라도 더 뛰면 돼.》

나는 지예의 등을 밀며 현장으로 들어섰다.

작업총화가 끝났으나 반원들은 그냥 앉아있었다. 작업반에 동원로력을 내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주변구역에 있는 분공장 확장공사가 있었다. 지예나 내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일이다. 동원에는 언제나 기능이 어리거나 말석에서 머물거리는 직포공들에게 해당되는 일이었다.

작업반장의 눈길이 벌써 그런 직포공들을 더듬고 있는것 같았다.

모임때도 늘 뒤구석만 찾는 춘희며 속보의 주인공 처녀들은 반장의 눈길을 피해 얼굴을 숙였다.

갑자기 지예가 내 옆구리를 건드리며 귀속말을 했다.

《경실아, 이번엔 우리가 나가는게 어때?》

《우리라는건?》

《나랑 너지 뭐.》

나는 그가 실없는 룡담을 한다고 생각하고 그저 시무룩 웃고말았다.

또다시 그의 입김이 내 귀를 간지럽혔다.

《아무래도 우리가 나가는게 옳을것 같애.》

지예는 내가 어쩔새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반장동지, 한가지 제기하겠어요.》

《어서 말해요.》

《이번 동원엔 제가 나가겠어요.》

《지예동무가?!》

작업반장의 표정은 놀라와하면서도 어딘가 반가와하는 기색이다.

허나 나는 믿지 않았다. 생산이 긴장한 때에 날새 같은 직포공은 때내고 둔쟁이들을 붙여둘수 없다는 걸 모를 작업반장이 아니었다.

허나 재차 울리는 그의 어조는 뜻밖이었다.

《지예동무가 나가겠단 말이지요.》

저건 분명 재확인이며 공감이었다.

《나도 생각을 좀 달리 하던중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작업반의 몇몇 사람이 아무리 빼여지게 생산을 초과한다 해도 전체적으로 볼 때 모든 직포공들이 가기 몫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게 발동될 때와는 대비도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중요한것은 우린 다같은 직포공인데 로력동원도 차별없이 하고 생산도 다같이 높이도록 하는것이 좋을것 같아서...》

지예는 말을 멈추고 작업반장을 피곳 쳐다보았다. 반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받았다.

《그런데도 작업반장은 기능이 높고 열성이 있는 직포공들에게는 생산조건을 잘 보장해주면서 계속 내세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찍어놓고 동원이나 내보낸다는것이겠지요.》

지예는 밝은 미소로 긍정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욕도 잘 내지 않고 늘 어깨를 펴지 못하는것 같어요.》

《지예동무가 옳게 봤어요. 뒤떨어진 동무들이 분발하도록 서로 이끌고 도와주어야겠어요.》

이때 있는듯 없는듯 뒤편에 앉았던 춘희가 슬그머니 일어서며 지예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고마워요. 애당초 잘못은 전적으로 내게 있지요 뭐. 처음부터 뒤꼬릴 잡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제부터 발바닥에서 불이 일도록 된바람을 일켜보겠어요.》

춘희와 함께 속보에 갔던 직포공들도 같은 심정으로 지예와 작업반장을 쳐다보았다.

반원들이 술렁거렸다.

《지예가 역시 팬잖아.》

《마음이 비단결같다니까.》

《겉보기가 속보기라잖아.》

소근거리는 귀속말들이었다.

지예가 춘희를 향해 말했다.

《한낱한시에 똑같이 기능을 배우고 직포공이 된 우리들인데 마음먹고 나선다면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요. 춘희동무랑 믿는 조건에서 동무들을 돕는 마음으로 이번 동원엔 저와 경실동무가 나가도록 해주세요.》

지예는 마지막 말을 작업반장에게 하였다.

(아니, 저 애가?!)

나에게는 지예의 말소리가 단순한 공기의 울림으로만 전달되지 않았다. 부드럽고 조용한 그의 목소리가 마치 커다란 쇠집게가 되어 내 머리를 집어대기라도 하는듯이 골살을 찌프렸다.

지예는 나의 침묵을 수궁으로 인정한 모양이다.

작업반장이 생각을 달리 해주지 않겠는가 하여 신경을 도사렸으나 허사였다. 그는 의례히 다른 의견이 없으리라 믿는다면서 그대로 락착짓고 말았다. 한달이상 앞당기자던 2.4분기계획은 지예의 발

밑에 깔아버리고말았다. 억이 막히고 화가 났다. 남을 돕겠으면 할일 없는 저나 혼자 나설게지 같길이면쁜 남까지 끌어들이면서 딱하게 노는가.

하면서도 차마 반박이나 싫다고 잡아제칠 용단은 생기지 않는것이 더욱 약이 올랐다.

나는 코페인 송아지처럼 마지못해 끌려나온 셈이다. 작업은 힘든것이 없었다. 모래나 세멘트삽을 들기도 하고 호수로 몰탈에 물을 뿌리기도 했다. 록음이 질어가고 정향꽃향이 실바람에 날리는 계절이라 서늘러운 대기가 전신을 가뿐하게 띄워주는듯한 상쾌한 날씨에 밖에서 하는 일이란 사방이 둘러막히고 기계소음이 가득한 직기앞에 서는것과는 대비할바가 없이 기분좋을수도 있을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것이 내게는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직포공의 평가는 오직 천으로 계산된다. 내가 짜는 천 한치한치가 나의 과녁으로 될것이다. 과녁을 향해 줄달음칠수 있는 끝은 길이 필요한것이지 여기저기 한눈을 팔며 걸가지를 치거나 쓸데없는 헛걸음을 하고싶지 않았다.

하루종일 심사가 좋지 않았으나 지예와는 작업조가 달라서 한마디 꾸밈도 못하고. 애꿎은 삽질에만 화풀이를 했다.

지루한 하루일이 끝났다.

휴게실에서는 처녀들이 거울앞에 서서 요즘 어떤 샵즈가 유행이라느니, 누구의 머리빈침이 어떻다느니 하고 떠들어댔다.

나는 별로 흥심이 없어서 웃도 되는대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다.

빠스정류소를 향해 몇걸음 걷는데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다.

《경실이.》

지예였다. 그는 내 기분따위는 눈치도 못채고 또 왕청같은 말을 꺼냈다.

《우리 이제 직장에 가보지 않겠니?》

나는 마뚝지 않게 흘금 쳐다보며 툭 내쏘았다.

《직장엔 왜?》

《난 하루종일 걱정이 뻘어. 춘희랑 가네들이 오늘부터 당장에 증산계획을 어김없이 해낼수 있을가 하고말이야.》

《넌 그런 타산도 없이 나까지 끌어냈니?!》

가시듯한 응대에 지예는 나를 지켜보기만 했다.

《그렇단들 그제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내 가슴속에서는 독설이 연방 튀어나갔다.

《너 왜 그러니?》

나는 더 대답하지 않았다.

놀란 눈길로 나를 바라보던 지예의 눈은 점차 신속섭에 가리워졌다. 목소리도 가라앉았다.

《난 어제 벌써 생각했댔어.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리라고. 그들이 결심은 하고 나섰지만 굳어진 느

린 동작이 하루이틀사이에 꺾 달라질수는 없을것 같아서 그래.》

지예는 도와줄 방법까지 내쳐 말했다. 우리 작업반이 마침 종교대여서 지금 인계를 받아 일을 시작한 때였다. 지예와 내가 그들을 한명씩 맡아가지고 순회길앞에서 나가면서 우리 동작을 그대로 뒤따르게 한다는것이다. 그러면 생산이 부쩍올라갈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미안해서라도 더빨리 각성될것이다.

그렇듯한 방법이였다. 아니, 신통한 생각이였다.

하지만 기본은 선뜻 내키지 않았다. 심사가 뒤틀린데도 있지만 다음순간 떠오른것은 자존심이였다.

무엇때문에 또 지예의 장단에 춤을 추어야 하는가. 꿈과 지향, 결단성, 의지력에서 자기의 주견을 확고히 가지고있는 내가 우습지 않은가. 어째서 지예에게 끌려다니기만 해야 하는가.

나는 부지불식간에 반발심이 튀어나왔다.

《난 안가겠어.》

《왜?》

《그저 싫을뿐이야.》

너무도 단호한 나의 태도에 지예는 멍하니 보기만 했다. 그의 눈빛은 점차 의혹이 짙어지더니 나중에 실망과 의분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빚진것이 없단말이겠지?!》

《?!...》

뜻밖이였다. 저 말은 언젠가 분명 내가 한 말인데 지금 지예의 공격무기로 된것이다.

언제였던가?... 나는 한참동안 기억을 더듬어서야 생각이 떠올랐다.

고등학교시절 학습방조를 가자고 지예가 찾아왔을 때다. 그날은 내가 나의 학습과제를 미쳐 끝내지 못했었다. 나는 그것을 핑계로 그날부터 시간만 때우는 그 달갑지 않은 일에서 아예 손을 떼자고 마음먹고 못가겠다고 잘랐다.

그러자 지예는 기다리던 동무들이 실망하고 섭섭해할걸 생각해보라면서 사정하듯 성화를 맥었다.

나는 짜증이 나가는대로 쏘아붙였다.

《넌 정말 분수없이 마음이 넓은지 아니면 너무 어진지 알수 없구나. 우리가 뭐 그들에게 빚진거라도 있다던?!》

내 말엔 가시가 돋혔지만 지예는 오히려 어쭙게 여전히 사정하듯 말했다.

《원 애두, 생똥같이 빗이란건 무슨 소리니, 난 그들이 시험때랑 선생님이 질문할 때랑 씨원히 대답을 못하면 막 안타까워 죽겠어.》

나를 주시하는 그의 눈길엔 애원의 빛이 어렸다.

《동무들을 도와주는거야 좋은 일이지뵤. 우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인데 동무들을 깊이 사랑하고 잘 도와주는것은 자기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하셨어.》

《?!》

뭔가 의미심장한 말갈기는 했지만 나로서는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지예 자신도 그저 남의 말을 영무새처럼 외우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후 나는 그 말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그날 나는 끝내 지예에게 끌리워 나서고야말았는데 동무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이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서가 아니라 지예의 그마음에 지고말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벌써 학생때부터 지예에게 끌리워 다녔다는 피할수 없는 사실앞에 더욱 기분이 상했다.

이제 지예는 그때처럼 사정하며 나를 설복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자존심에 못이겨 몇마디 엇서다가 끝내는 또 따라설지도 모른다.

그것은 지예의 힘에 맞설 나의 힘이 모자란다는 것이 아닌가. 바로 지예에게 눌리고있다는 증거가 아니라고 할수 없지 않은가.

허나 나의 예측은 인차 뒤집어지고말았다.

동정비슷한 눈길로 나를 잠시 지켜보던 지예는 그 무슨 추한 물건에 침뱉고 돌아서듯이 아예 외면해버렸다. 그리고는 공장쪽으로 가는 뺄스정류소를 향해 곧추 걸어갔다.

(아니 저애가?!)

뭔가 지탱하던 팽팽한 줄이 툭 끊어지며 허공 나뭇굴은듯한 심정이였다.

그 무언속에 숨은 동정, 외면 그것은 분명 질서와 경멸이였다. 웅당한 징벌을 당했다는 의식이 섬광처럼 뇌리를 쳤다. 하면서도 가슴속에서는 무시당한 모욕감과 반발심이 몸부림쳤다.

나는 참지 못하고 달려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넌 뭐야, 저 혼자만이 잘난체하면서.》

나를 피득 쳐다보는 지예의 눈길엔 뜻밖에도 패재의 빛이 언뜻 비끼였다.

《글쎄, 그러면 그럴테지.》

지예는 나의 얼토당토않은 생트집에 성을 낼대신 너그럽게 미소를 지었다.

《이 들창코의 자존심을 어쨌으면 좋을가.》

깊은 이해와 아량, 그러면서도 자기의 정당성을 확신한 사람만이 가질수 있는 자신만만한 태도였다.

나는 지예앞에 더는 성낼수도 엇설수도 없었다. 내 자존심은 벌써 손을 들었다. 폭발적인 감정이나 자존심파위를 밀어버리는 그 어떤 다른 힘이 나를 제압하고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는듯 지예의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꽃술처럼 휘여든 속눈썹밑에서 은은하게 발산되는 광채, 어딘가 도고해보이는 아름다움에 위압감

을 느끼게 되는 얼굴이다. 허나 그 모습에서는 보다 아름다운 강렬한 지향성과 굽힘없는 자신심이 풍기고있다.

나는 그것이 어떤 힘이였는가를 후날에 가서야 알았다.

춘희네들을 돕자는 지예의 발기는 크게 은을 냈다.

지예와 나의 일숨씨는 실물적으로 그들의 증산목표에 도움을 주었을뿐만아니라 정신적변화에 박차를 가했던것이다. 정신적변화는 육체적잠재력을 비약적으로 분출시켰다.

며칠 안가서 그들은 언제 뒤떨어졌더냐싶게 앞선 궤도를 따라섰으며 우리를 더는 현장에 들어서지 못하게 하였다.

작업반에서는 2.4분기계획을 보름이나 앞당겨 직장적으로 제일먼저 끝냈다.

우리가 분공장확장공사를 끝내고 돌아왔을 때 작업반은 경사로 들끓었다. 분기간 생산총화에서 직총중앙위원회 표창장과 기념상품들이 수여되였다.

춘희도 표창장 수여자의 한사람이였다.

그는 지예와 나의 손을 잡고 진정에 넘쳐 말했다.

《난 동무들을 일생 잊지 못할것 같애. 이렇게 표창장까지 받고보니 동무들에겐 좀 미안해.》

자기대신 동원에서 수고한 우리들은 빈손이라는 의미다.

《무슨 소릴... 난 동무들이 막 사랑스러워 죽겠어.》

지예는 춘희의 허리를 담썩 끌어안고 한바퀴 빙 돌았다.

《내가 표창을 받은것보다 몇배나 더 기쁜걸.》

《어마나, 이러지 말어.》

춘희가 어쩔바를 몰라했다.

순식간에 반원들 모두가 우리를 둘러쌌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은 꽃다발과 상품들을 지예와 내게 마구 안겨주며 작업반의 성과가 마치 우리 두사람에게 전적으로 달린듯이 떠받들었다.

《이러지들 말아요. 주인공이 온통 뒤바뀌겠어요.》

그들과 기쁨의 호흡을 같이 하는 지예의 얼굴은 더 이상 큰 행복이 없는듯, 그 어느 표창에도 비길바가 없는 축복이라도 받는 사람처럼 환희에 넘쳤다.

허나 나는 지예처럼 가슴트인 기쁨을 느낄수가 없었다. 오히려 지예의 회열이 리해되지 않았다.

(저런 칭찬에 도대체 남울것이 무엇이람, 이 순간이 지나면 흔적없이 사라질 하찮은 일이다.)

나는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은 또 개운치 않았다. 동원으로 해서 밀진것도 적지 않은데 옆친데엇친격으로 나는 또 발목을 묶인 샘이 되였다.

우리 작업반에서 경공업혁명방침에 따라 새로운 고급천을 짜게 되었는데 그 시제품을 내 기계가 속한 1호단위에서 맡게 되었다. 벌써 틀거리가 거의 다 바뀌고있었다. 웅당 공지를 가져야 할 일이지만 나로서는 그렇지만 않았다. 아직 짜본 경험이 없는 천이다보니 한동안 애를 먹게 될것이다. 그러니 나의 먼 행군길은 또 곡선상에서 헤매게 된다.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그동안 밀진것까지 봉창하자고 결심했는데 시작부터 앓아몽개게 된격이다.

작업반장은 시제품생산의 정상화가 우리 작업반의 기본고리라고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경실동무의 기능과 책임성을 특별히 믿어요. 기능이 좀 약한 옆에 기대공들도 도우면서 한번 잘해보지요.》

나는 작업반을 위해서 어려운 모퉁이를 말아나신다는 희생적리를 보이면서 무겁게 받아들였다.

내 기색을 살피던 지예가 격려비슷한 말을 했다.

《우리 집단 모두의 믿음이야. 경실동무 이 믿음에 훌륭한 실천으로 대답하리라 믿어.》

나는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말이 어쩐지 배부른자의 혼시처럼 느껴져 귀에 거슬렸다.

지예의 기대는 나와는 거리가 뜬 중앙복도쪽인 6호단위인데 종전에 짜던 천을 그대로 짜고있기때문에 그는 아무런 곡선도 없이 쪽쪽 뻗어갈것이다.

그는 꽃밭에서 날고 나는 풀밭에서 헤매게 된격이다.

하지만 나는 우는 소릴 한다면가 자신없는 기미 같은것을 보이고싶지 않았다.

나는 마음을 가다듬고 기대앞에 나섰다.

하나 시제품의 정상화는 하루이틀에 쉽게 풀리지 않았다. 힘은 곱절 들이지만 성과는 미미했다.

내게 있어 불쾌한것은 이 모든것에 외면하고있는 지예의 처사였다.

지예네 6호단위는 설비의 가동상태가 좋고 직장의 중심이여서 기자들이 사진찍기 좋은곳이다.

그 모퉁이를 가리켜 작업반의 《얼굴》이자 직장의 《얼굴》이라고들 했다. 지예를 거기다 배치한 것도 그가 기능도 높지만 얼굴도 곱고 품성이 좋아서라고들 했다. 하나 기실 그런것은 아니다. 이모저모로 늘 칭찬을 받게 되는 지예이다보니 그런말이 불게 된것 같았다.

지예는 일을 시작한 다음날에 벌써 기대당 생산량에서 새 기록돌라라는 소문을 놓았다.

텔레비죤기자들이 그것을 놓칠리 없었다.

나는듯이 직기사이를 순회하는 지예의 모습이 황홀한 예술작품처럼 화면에 펼쳐졌었다.

뒤떨어진 동무들을 돕고 작업반을 위한다면서 남까지 끌어내던 그가 중요관심사로 되는 시제품에는 애 발을 들여놓지 않는가... 좋은 기계, 좋은 자리

에서 그 가치를 깨닫고 기쁨을 맛보자. 더 아름다운 화면들과 신문, 방송의 주인공이 될 화려한 꿈을 꾸고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고보면 지예는 역시 어느모로 보나 내가 쳐다볼만큼 가치있고 아름다운 세계의 인물은 아닌것이다.

일시적으로 내가 지예에게 뒤진듯해보이지만 결코 그럴수는 없을것이다.

이 시제품이 언제까지나 애만 먹일줄 아는가.

나는 이 시제품 《구역》을 아름다운 《백화원》으로 만들것이다.

이상하게도 나의 추측은 또 맞지 않았다. 그 일은 어느날 아침에 일어났다.

여느날처럼 출근하여 현장에 들어선 나는 지예의 기대옆을 지나다가 우뚝 서버렸다.

지예의 기대에서는 난데없이 한 양성공이 작업준비를 하고있었다. 나는 그의 귀에 대고 물었다.

《어떻게 된 일이니?》

《지예언닌 오늘부터 분공장으로 간대요.》

《뭘라구?!》

나는 내 귀를 의심하며 양성공을 지켜보았다. 아무리 그의 기색을 살펴보아야 룡담기는 없었다. 지예가 자원했을까? 아니면 직장에서 그를 보냈을까? 직장에서는 그를 보냈을것 같지 않았다. 아무런 일 잘하는 보배덩이를 내놓자고 할 사람들이 어디 있으랴. 그렇다면... 리해가 안됐다. 그래도 일을 해서 소문을 내려면 큰 공장에서 해체껴야 간부들도 알게 될거구 성과도 더 빛이날것이 아닌가.

나는 양성공의 귀를 붙들고 또 소리쳤다.

《왜 그리로 보낸대?》

《그건 나도 잘 몰라요. 그저 직장장동지의 지시라는것밖에.》

(직장장이?!... 무엇때문에...)

나는 지예의 운명이 그 어떤 번두리로 밀려났다는 측은한 생각이 들면서 그에 대해 품었던 좋지 않은 감정이 싹 없어졌다.

지예에 대한 동정심과 함께 의분이 솟구쳤다.

무엇때문에 직장장이 그런 지시를 했단말인가?

마침 출근하는 작업반장이 출입문가에 들어서고 있었다. 나는 맞받아달려가 기계소리의 장애가 없는 문밖으로 떠밀고 나가서 사연을 들었다.

확장된 분공장에서는 앞으로 전망을 위해 기둥감이 될 기능공들을 요구하였다. 분공장 지배인과 직장장은 같은 수리공출신의 옛 친구지간이다. 의리로 봐도 그렇고 분공장을 돕는 의미에서도 실무적으로 아무나 보낼수 없는 직장장이었다.

그는 지예를 점찍어놓고 작업반장을 구슬렸다.

《큰집답게 마음을 좀 후하게 씹시다. 우리가 보낸 기능공이 분공장을 추켜세우는데서 기둥이 되면

그것도 우리 직장의 사랑이고 궁지가 아니겠소.》

작업반장 역시 그런 처녀를 아낌없이 쏘는다면 제일먼저 집히는것이 지예였다. 그러나 작업반을 위해서도 내놓기 아쉬웠고 또 지예자신을 위해서도 높이고 자유로이 날아야 할 수리개를 작은 우리 안에 밀어넣는것 같아서 매번 (안돼, 지예는 안돼.) 하고 뒤로뒤로 깊숙이 감추어놓으면서 대답을 안했다.

이번에도 시제품생산이 예상보다 굵게 되자 거기서 일하는 기능이 어린 직포공과 자리를 바꿔달라고 제기해왔다. 어느모로 보나 아까운 처녀였다.

하지만 직장장의 의사를 무작정 끝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지예가 분공장으로 안가겠다고 말하기를 바라면서 일부터 지나가는 말처럼 만약 지예 보구 누가 분공장으로 가라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그의 의향을 물었다.

지예의 표정은 한순간 굳어지더니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면서 반장의 기대와는 달리 대답했다.

《그 의도를 알만해요. 가겠습니다.》

작업반장은 더 어쩔수가 없었다...

놀라운 일이었다.

나는 지예가 어느 탄광이나 광산, 북부철길 건설장같은데를 자원해간다면가 동지들에게 피와 살을 나누어주었다고 한다면 쉽게 이해하고 공감했을것이다.

어렵고 힘들며 거창한곳엔 청춘들을 부르는 위험이 있고 행복의 상징인 투쟁이 있으며 사회가 우려러보는 빛발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명예와 기쁨을 얻을수 있는 일 자리를 내놓고 이것도 저것도 없는곳으로 선풍 나선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혹시 이번 일 역시 어지고 착한 마음씨때문에 거역 못한 천성적인 움직임일까?... 아니면 별다른 꿈과 지향이 없는 이상 시키는대로 아무 일이나 해도 매한가지라는 속빠대 없는 무미건조한 생활방식이겠는가?... 그렇다면 내가 어쩔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은 무엇때문이고 작업반장이 그토록 아끼면서 보내기 싫어한것은 어째서인가?... 지내온 그의 모든 행동은 결코 그 무엇을 거절할수 없어서 응해나선 그런 나약성은 아니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는 언제나 주동에 섰던것이다. 피동에 선것은 지예가 아니라 나였다. 솔직하게 말해서 나는 결국 강자가 아니라 약자였다는것을 고백하지 않을수 없다.

《왜들 여기 서있어요?》

시내물처럼 맑은 지예의 목소리가 긴박도를 가볍게 울렸다. 눈부시게 흰 레스깃샤츠에 자주색치마를 받쳐입은 지예가 바깥과 통하는 복도끝에서

다가왔다. 다른 때라면 앞치마를 가뜰하게 졸라맨 작업복차림이었을 그가 탈의실에 들리지 않고

곧바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엔 그 무슨 그늘비슷한것도 없이 여느 때나 다름없는 미소가 어렸다.

나는 그것이 속마음을 감추기 위한 꾸밈처럼 생각되었다. 잠시나마 그를 오해하고 멸시적으로 여긴것이 가슴에 걸렸다.

나는 미안하고 측은한 마음을 숨길수 없었다. 그러한 나를 지예는 의아스레 마주보았다.

《왜 그렇게 보니?》

아마도 내 눈길이 무척 어두운 모양이다.

《다 들었어.》

《응, 그것때문에.》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듯 여전히 미소를 띠고 나와 작업반장의 기색을 번갈아 살폈다.

그 눈길엔 어쩔수 없는 석별의 애수가 언뜻 지나갔다.

작업반장 역시 벌써부터 우울해지는 기색을 피하기 위해선지 한발 먼저 현장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의 뒤모습을 눈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반장동문 무척 섭섭해서 그래. 너를 딱히 짝은 것도 아닌데 모르는척할게지.》

《내가 그러면 혹시 네가 가야 할지도 몰라.》

지예는 누구든 가야 한다는 의미를 담아 롱조로 반었다. 그는 정녕 아무런 불만도 없는 얼굴이다.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믿는 처녀일까. 어떤 힘에 떠밀리워 저렇게 구김없는 마음으로 혼연히 나서는것일까.

《작업반을 떠나는것이 무척 섭섭할뿐이야. 더구나 중학교때부터 정든 동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걸 생각하니 막 못할것 같았어.》

지예의 어조엔 안개가 서린듯했다.

《헌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스스로 내렸니?》

《나도 사실 처음엔 아팠했었어. 나는 단 한번도 내가 우리 작업반이나 공장을 떠나 어디로 간다는걸 상상해본적도 없고 또 그럴수 있으리란걸 예상조차 못했어.》

명상에 잠긴듯한 지예의 눈길에선 무한한 애착과 사랑의 넋이 물결쳤다.

그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을 이었다.

《그만큼 나는 공장과 작업반원들이 마음에 들었고 정들었으며 그 모든걸 무척 사랑했던가봐.》

(맞았어. 그래서 너는 반원들의 성과를 그렇게 자기것처럼 기뻐했구 그들의 칭찬에 그리도 행복해했구나.)

《난 처음 작업반장의 말을 들었을 땐 마치 내가 나서자란 우리 집에서 나를 다른 집으로 보내겠다고 한것만큼이나 뜻밖이였고 놀라웠어. 그리고 일시에 복잡한 생각들이 엉켜들었어. (내가 왜 정들고 사랑하는 내 집을 두고 생판 모를 남의 집으로 간

단말인가... 마음껏 나래를 펼수 있는 직기바다를 두고 하필이면 분공장으로 가야 한담... 내가 만약 싫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가? 작업반장이 저렇게 힘들게 말할 땐 피할수 없는 일이기때문이 아닐가... 만약 이 마음을 아버지가 아신다면?!...) 나는 사람이 한순간에 이처럼 많은 생각을 할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어.》

지예의 눈은 흙사 꽃술에 둘러싸인 흑진주같이 빛났고 랑불은 장미색으로 물들었다.

《사실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신건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우리 형제들이 조금이라도 제 욕심을 부리는 기미만 보여도 가만두지 않으서. <매사에 자기의 리기적인 타산만 앞세우는건 의리도 도덕도 없는 불효막심한 자식들이다. 그런 버릇이 붙으면 사회에 나가서도 칭찬은 커녕 규탄을 면치 못한다. 서로 위하고 도우면서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것이 우리 사회의 룰리이고 도덕이 아니냐.> 이걸 우리 아버지의 <록음테프> 야.》

지예는 익살기어린 눈웃음을 지었다.

《아버진 내가 공장에 첫 출근을 하는날 또 이 <록음테프> 를 꾸셨어. <사람이 사회적본분을 다하고 의리와 도덕을 지키는것은 자기 인격을 높이는 고결한 품성이다. 이걸 명심하거라.> 하고 말이야. 이 말쑤이 떠오르자 나는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 별일도 아닌 그썸한걸 두고 잠시나마 이 생각, 저 생각에 허둥거렸으니 말이야. 뒤이어 마음이 현현해졌어. 크건작건 이걸 다 자신을 가꿔가는 길이라고 생각되면서.》

지예는 맑은 얼굴로 의미깊은 미소를 띠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 미소의 의미를 리해할수 있었다.

벌써 전에 지예는 그에 대해 중학교때 이미 말했었다.

명예욕과 공명심이 《높은 리상》이라는 허울속에 숨겨있는 나로서는 알아들을수도 없었고 구태여 리해하려고도 안했으며 받아들일수도 없었을뿐이었다.

그것이 바로 나와는 다른 지예의 꿈이었으며 지향이였고 매력이 아닌가. 나를 제압하면서 마음대로 끌고다닌것도 그 매력의 힘일것이다.

내가 자신을 《우위》를 강조하고 인정하러 한것도 은연중 무엇인가 놀리우고있는 약자의 설움과 자존심때문이었다.

지예는 역시 외모뿐만아니라 내면세계도 내가 따

를수도 누를수도 없는 처녀다. 총명한 머리도, 직포 기능에서도 나는 이미 그에게 진 사람이다.

이 엄연한 사실을 기어이 외면하면서 《높은 꿈》이라는 허영에다 자신을 얹어매고 속박하며 피롭히는 비극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

나는 쓰겁게 자신을 비웃으며 꼴살을 찌프렸다.

《경실이, 무슨 생각을 해?》

지예가 나를 주시했다.

《이제부터라면 너에게 끌려다니는것이 하나의 기쁨으로 될텐데.》

이것은 내가 지예앞에 처음으로 아무런 자존심도 없이 진심으로 한 말이다.

《그건 또 무슨 소리니?》

나는 그에 대해 더 까밝힐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지예와 헤어져야 한다는 섭섭한 생각이 불쑥 솟구쳤다.

《지예, 자주 와야 해.》

《한공장이나 다름없는데 늘 만나게 되겠지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지예 역시 석별의 정에 눈굽이 젖어올랐다.

나는 귀중한 보물을 바라보듯 뜨거운 이슬이 반짝이는 그 눈을 이윽도록 지켜보았다. 사랑의 아름다운 녀이 분출하고있다.

저 소중한것이 있기에 지예는 어디에 가거나 여기서처럼 이내 정들것이며 모든것을 사랑하게 될것이다. 그는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수 없는 품성을 지녔다.

모든 사랑의 표적은 헌신이고 사랑이 없을 때 헌신할수 없기에 사랑은 귀중한것이다...

그때로부터 해들이 지나고 년대가 바뀌었다.

지예는 분공장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 혁신자이고 3대혁명붉은기작업반장이 되었다.

나도 얼마전부터 작업반장사업을 맡았다. 내가 지난날 자기의 흥허물을 숨김없이 털어놓는것은 인생의 첫걸음을 떼는 세대들에게 기능이나 기술 그리고 포부와 리상이 어디에 기초해야 하는가를 말하고싶어서이다.

나에게로 향해지는 눈빛들은 각양하다.

로골적으로 비웃는 눈길, 반신반의, 그럴수도 있으리라는 동정과 리해, 자기들예겐 이미 때늦은 혼시라는듯 무관심한 표정 등이었다.

얼마나 좋은 일인가. 나는 더없는 기쁨속에 그들을 바라볼수 있었다.

한생을 당의 작가로

최준경

돌이켜보면 내가 병사배낭을 메고 인민군협주단 작가로 소환되어온 때로부터 어언 20년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 나는 보통병사로부터 문학창작의 푸른 꿈을 활짝 꽃피우며 행복하고 긍지높은 당의 작가로 자라났다. 이 보람찬 나날은 나에게 있어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의 참뜻을 창작의 지침으로 삼고 실천에 구현해온 참으로 값 높은 나날이었다.

우리 조국을 주체적문학예술로 꽃피워 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혁명적문예 방침들과 현지지도의 나날에 주신 명석한 가르치심, 그것은 리론과 실천으로 결합된 귀중한 지도적지침으로서 나의 창작활동의 고귀한 열매로 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영화혁명에 뒤이어 가극혁명의 포성을 울리시고 아직은 미숙한 나의 재능의 싹을 귀중히 여기시며 여러 혁명가극 창작 집단에 망라시켜 가극혁명의 담당자로 손잡아 키워 주시었으며 그후 편이어 음악무용소품창작을 위한 명가사 창작전투와 5천명대공연 《영광의 노래》 창작전투에로 불러주시어 나의 창작적 지혜와 열정의 나래를 힘껏 펼치도록 하여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의 손길아래 작가로 성장하는 과정에 나는 당과 혁명을 노래한 가사 《친애하는 그이는 우리와 함께》, 《친근한 이름》,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사회주의조국애와 군민일치, 병사생활 등 다양한 주제내용을 취급한 가사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 《금수강산 내 조국 수놓아가세》, 《조선아 다시 안아보자》, 《고마운 내 조국》, 《령넘어 오고가는 정》, 《훈련도 전투다》, 《도시쳐너 시집와요》를 비롯하여 110여편의 가사를 창작하여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이것은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를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다.

가사 한편을 지도해주시는데 보통 5~10분 걸린 다해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10여편의 가사를 지도해주신 시간을 합친다면 참으로 막대한 량의 시간이 될것이다. 게다가 어떤 노래들은 록음테이프를 후진하여 여러차례 들어주시거나 또 어떤 노래들은 재형상, 재록을 하여 다시 반복하여 들어주시면서 친히 미흡한 가사들까지 명가사로 완성시켜 주시었다. 기울이신 시간까지 다 합친다면 더 엄청난 량의 시간이 나올것이다. 더구나 친애하는 지도

자동지께서 당과 국가를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천금같이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110여편의 노래를 지도하는 과정에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기울이신 끝없는 심혈과 로고는 그 무엇으로 써도 채일수 없을것이다. 이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생각할 때 수기를 쓰는 이 시각에도 한 작가를 위해 돌려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끝없는 고마움과 감사의 정으로 하여 자꾸만 눈시울이 후터워짐을 금할수 없다.

그런데 얼마전 뜻깊은 4월 15일에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또다시 보천보전자악단에서 작곡형상한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지도해주시고 파분한 평가와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베풀어주시었으니 나는 한동안 충격적인 무아경속에 잠기지 않을수 없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민족적색채가 진한 노래인것만큼 대대적으로 보급하여 남녀로소 할것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르게 할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또한 창작가들이 모여 《내 나라 제일로 좋아》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잘 조직할데 대해서와 이 노래 가사의 주제사상적내용에 근거하여 다부작영화를 만들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도 안겨주시었다.

그리고 이 노래를 지은 동무들은 나의 영원한 동행자이며 충실한 방조자라고 분에 넘치는 최상의 신임을 안겨주시었으니 이 고마운 은정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으랴.

외국출장길에서 느낀 소박한 감정을 꾸밈없이 그대로 피력한 한편의 가사가 우리 인민들에게 민족제일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데 가치있는 작품으로 당에 크나큰 기쁨을 드릴줄이야 그 어이 꿈엔들 생각할수 있었으랴.

내가 가사 《내 나라 제일로 좋아》를 창작하게 된 동기는 철두철미 위대한 수령님께서 세워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빛내여나가시는 주체의 우리 조국,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다는것을 멀리 이국땅에 가서 더욱 절실히 통감하였기때문이다.

누구나 흔히 다정한 혈육들이 있는 자기 고향집, 자기 고향땅이 한없이 정답고 소중한 모습으로 꿈결에도 떠오르며 못견디게 그리워지는것은 동구밖 산넘어 강 건너 멀리 타향땅에 갔을 때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산설고 물설고 낮설은 이국땅에

서 그곳 현실을 체험하면서 평범한 나날에는 미처
다는 느낄수 없었던 내가 사는 사회주의 내 나라에
대한 애뜻한 사람의 감정과 민족적 긍지를 더욱더
절절하고 강렬하게 체험할수 있었다.

넓고넓은 이 세상에 어떤 나라들은 초원과 사막
의 나라, 동토와 열풍의 나라도 있다. 또한 장글과
빙설의 나라, 공해와 안개로 뒤덮인 나라, 백야가
엇바뀌는 나라 등 천태만상이다.

또한 제각기 서로 다른 사회제도의 내부를 투시
해보면 돈과 권력으로 약육강식이 지배되는 나라,
제국주의 식민지로 전락되어 민족적 자주권을 잃은
나라, 세계의 동란속에서 실업대군과 거지들이
홍수처럼 불어나는 나라, 살인강도와 도적들, 매춘부
들이 판을 치고 색정적음악의 불협화음이 사람들의
정신문화생활을 마비질식시키는 나라 등 실로 사
회악의 이모저모도 천태만상이었다.

그러나 주체의 우리 조국, 사회주의 우리 락원은
얼마나 아름답고 정다우며 살기좋은가. 백두산의
장군봉, 정일봉이 높이 솟아 맑은 하늘을 받들고 천
지의 푸른물이 흘러내려 락원의 강토를 적시는 금
수강산 내 나라 마을과 도시들은 류달리 풍요하고
깨끗하고 산과 들에는 오곡백과가 주렁지는 나라,
이 세상에 진귀한 **김일성화**, **김정일화**가 활짝 피어
내 나라의 자랑으로 향기풍기고 사람들도 락원의
꽃, 행복의 꽃으로 활짝 피어 밝게 웃는 내나라, 그
누구의 모습을 보아도 식의주에 대한 걱정, 치료받
을 걱정, 배울 걱정, 세금걱정 등을 찾아볼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 계시고 위대한 우리 당이 있으며
이 세상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가 있기
에 정녕 지난날 한참던 우리 조국은 오늘 선만 있
고 악이 없는 나라, 복만 있고 화가 없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락원으로, 일심단결의 조국으로 누
리에 빛을 뿌리고있다.

참으로 발목이 시도록 온 세상을 다너본대도 눈
뿌리 아리도록 온 세계를 다 휘둘러 살핀대도 내
나라와 같이 인민이 주인된 살기 좋고 화목한 나라
는 찾지 못할것이다.

그래서인지 나에게서는 이국의 들가에 피어난 꽃도
당의 해빛아래 사람도 산천도 붉게 핀 아름답고
정깊은 내 나라의 꽃보다 곱지 못하게 느껴졌고 벗
들이 부어준 한모금의 차도 어머니가 떠주는 내 고
향의 샘처럼, 그리고 행군길을 지날 때 마을아낙네
들과 처녀들이 정답아 떠주는 내 조국의 시원한 샘
물처럼 달지 못함을 느꼈다.

내가 이국땅에서 외국방문공연반향을 취재하기
위해 자주 관람석에 나가 외국인들을 만났을 때였
다. 그중에는 해외교포들도 적지 않았다. 그들은 우
리 배우들이 부르는 민요를 듣고 저으기 흥분해하

면서 자기도 조선사람이니 우리 민요를 들으니 이
국풍토에 오래동안 묻혀 살아왔지만 조선민족의 얼
이 새삼스럽게 되살아난다고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
였다.

그러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의 현명한 령도아래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꽃
핀 고국산천의 모습을 죽기전에 한번이라도 보고싶
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것이였다. 그러던 그 교
포가 몇해전 4월의 봄축전때 어느 한 예술단에 망
라되어 사회주의조국땅을 밟는 일생의 소원을 풀고
화려한 축전무대에서 아리랑민요를 마음껏 부르는
것을 나는 목격하였다. 이렇게 되어 나는 외국출장
중에 느낀 나의 감정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절절한
감정을 시적으로 함축하여 가사 1, 2, 3절을 써나갔
다.

나는 먼 이국땅의 황량한 초원과 사막을 지나 그
림같이 아름답고 황홀하게 안겨오는 사회주의락원
의 밝고밝은 참모습을 한눈에 굽어보며 비행장에
내릴 때 그림그림그림던 어머니 품에 안기듯이 가슴
가득 북받치는 흠모의 정을 담아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초상화를 우러러 감사의 큰
절을 올리게 되었다.

해와 별 비치여 밝고 정든곳
내 다시 안길 땐 절을 하였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

이렇게 되어 나는 모두가 다 심장으로 체득하고
있는 어머니조국에 안겨사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을 핵으로 가사를 완성하게 되었다.

내가 다소나마 당이 의도하고 인민대중의 기호에
맞는 가사작품창작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가르치심이 있었기때문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우리 작가들에게 조선
민족제일주의를 반영한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원칙
적인 문제들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가사창작에
서 개성과 통속성, 간결성, 운물성, 인민성을 구현
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지 않았던들 내 어
찌 인생의 가장 높은 사랑과 행복의 절정에 올라설
수 있었으랴.

바로 그 위대한 스승의 품에서 나의 삶의 기쁨과
나의 창작의 보람도 꽃피난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1979년 12월 24일 친
히 저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가사를 재간있게 잘 쓴

다고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고 얼마전에는 또다시
당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라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은정을 베풀어주시었으니 한량같은 그
믿음, 대해같은 그 사랑을 무엇으로 어떻게 다 갚을
수 있단말인가.

크나큰 믿음에는 신념화된 충성과 의리가 따라야
하는 법이다.

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믿음, 그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오직 그이의 사상과 경도를 받
들어가는 당의 참된 작가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충성의 심장을 한껏 불태울 맹세로 가슴들먹이고있
다.

나는 앞으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매한 덕성
과 위대성을 형상한 명가사들과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반영한 작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창작함으
로써 우리 인민과 인민군군인들로 하여금 당과 수
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의 길에 더 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도록 하겠다.

하여 영원히 당의 참된 작가로서의 사명과 본분
을 더욱 빛내어나가겠다.

내 너를 사랑함은

황성하

꽃이라면 그저는 못지나는
이 시절의 즐거움때문이 아니라네
목란꽃 내 너를 사랑함은
너를 두고 끝없이 노래하고싶음은

다치면 티라도 앓을가봐
차마 손을 대지 못하는 내 앞에
눈부시게 희디흰 꽃송이 함뿔 펼치고
뿌린듯 풍기는 그윽한 향기

아름다워라
온통으로 순결함이 가득차 흘러라
어찌면 이 나라 사람들을 보는듯
절로 사랑스럽고 귀중해지는 너

너를 바라볼 때면
이 마음에 조용히 생각나라
조국보위초소에 자식을 세우며
동구길에서 손저어 바래던
흰옷입은 어머니 그 모습이

꽃이여 백설같은 꽃송이에 안고 핀것은

비바람속에서도 흐려지지 않는
이 나라 사람들의 고결한 넋이 아닌가
변함없이 흰모습 펼치고 피고피는것은
은혜로운 태양의 품을 향해
아낌없이 바치는 이 나라의 마음들이 아닌가

산에 들에 그 어디에 피여도
의로운 이 나라의 모습같은 꽃이여
나를 키워준 어머니조국에
순결한 마음만 바치고싶은
이 마음조차 담아 핀 사랑스런 꽃이여

너는 귀중한 내 나라의 꽃으로 피였으며
네가 필 이 땅은 얼마나 넓고 아름다우며
너를 축복해주는 해와 별은
얼마나 눈부신것이나

아름다운 이 강산에
내 나라의 꽃으로 만발하고 만발하는 꽃
너처럼 순결한 넋을 약속하며
나는 소중히 이 마음에 심네
목란꽃 나의 사랑하는 꽃을!

민족제일주의가 짙은 시대의 명작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에 대하여-

신경애

오늘 행복한 생활이 꽃피어나고있는 그 어느곳을 가보아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높이 모신 내 나라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우리 인민들의 사랑과 절찬 속에 널리 불리워지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최근에 창작된 노래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진한 노래로서 모든 사람들의 심리에도 맞으며 어제도 맞고 오늘의 시대에도 맞는 참으로 훌륭한 노래이라고 하시였으며 이 노래를 부르면 강냉이밥에 된장을 먹어도 조선이 제일이라는 감정이 강하게 안겨온다고 높이 평가하여주시였다.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우리 시대 정신과 인민의 사상감정,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훌륭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시대의 명작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날로 룡성변영하는 사회주의조국에서 태어나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지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긍지높은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있으며 주체위업완성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은 이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하고있다.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최준경 작사, 인민예술가 리종오 작곡)는 내가 사는 내 나라,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전진하며 날로 룡성변영하는 사회주의 내나라가 제일이라는 우리 인민의 숭고한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이 가요는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라는것을 사상적알맹이로 하고있다.

이 가요의 사상적알맹이는 내 나라에 대한 일반적인 찬양이나 긍정이 아니라 서정적주인공의 깊은 체험과 사색에 의하여 분출된 내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에 철저히 기초하고있다.

이 가요가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진한 노래로 되고있는것은 우선 가사의 시형상에 의해 담보되고있다.

주체적문제사상은 함축되고 세련된 시형식속에 고상한 사상적내용을 담아 생활적이며 철학적인 가사를 창작할데 대하여 가르치고있다.

가요는 우리 당의 명가사창작에 대한 주체적문제사상을 철저히 구현한것으로 하여 시형상의 높은 경지에 오르고있다.

우선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가 진실하게 반영되어있고 그것을 생활적바탕으로 하여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정서적으로 깊이있게 구현하고있다.

서정적주인공은 온 세상을 다 돌아본 자기의 생활체험에 기초하여 가사의 종자를 골라잡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심도있게 밝히고있다.

가사전반의 형상을 놓고 볼 때 서정적주인공은 우리 나라뿐아니라 넓고넓은 온 세계를 다 돌아본 생활체험이 아주 풍부한 인간이다. 여기에 우선 가사의 개성적인 면모가 있다.

가사의 구절을 다시 음미해보느라하면 인생의 파란곡절을 다 겪으며 다리가 저리도록 그 넓고넓은 세상을 다 돌아본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방불히 떠오르며 그의 내면세계가 정서적으로 드러나고있다.

이국의 들가에 피여난 꽃도
내 나라 꽃보다 곱지 못했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벗들이 부여준 한모금 물도
내 고향 샘처럼 달지 못했소
...

노래도 아리랑곡조가 좋아
멀리서도 정답게 불러보았소
...

이처럼 서정적주인공의 내면세계가 진실하게 안겨오는것은 이 가요의 가사형상이 시적발견에서뿐 아니라 서정적주인공의 체험세계가 새롭고 독특하며 진실하기때문이다.

넓고넓은 세상을 돌아보면서 서정적주인공이 얻은 생활의 철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계지도우에서 빛을 잃었던 내 조국을 주체의 광휘로운 빛발로 사회주의강국으로, 인민의 살기좋은 낙원으로 꽃피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 우리 인민들에게 보람찬 사회정치생활과 행복하고 유족한 물질문화생활을 마련해주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내 나라에 대한 고마움이며 조국의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고 그 품에서만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갈수 있다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이다.

하기에 가사 1, 2, 3절에서 서정적주인공은 이 땅에 피어나는 한 떨기 꽃도 그토록 아름답게 안겨오고 한줄기 샘도 그처럼 달게 가슴속에 흘러들며 민족적향취가 짙은 아리랑곡조도 정답게 부르는것이다. 가사 4절에서는 이 소박하고 생활적이며 구체적인 주인공의 내면세계를 더욱 승화시켜 더없이 귀중하고 소중한 어머니조국에 드리는 감사의 정으로, 조국을 더욱 빛내이려는 우리 인민의 높은 자각과 의지의 사상감정으로 더욱 부각시켜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정서적으로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이러한 사상정서적주장이 마감절에 가서 고조를 이루고 더욱 뜨겁게 울리고있다.

해와 별 비치여 밝고 정든곳
내 다시 안길 땐 절을 하였소
돌아보면 세상은 넓고넓어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이 마감절에서 특히 《내 다시 안길 땐 절을 하였소》라는 시행은 사람들에게 깊은 정서적여운을 안겨준다.

이 하나의 시행속에는 조국을 떠나 이 세상 방방곡곡을 다 돌아보며 세상풍파를 겪어온 서정적주인공이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고마움을 심장으로 느끼고 인간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참다운 사회주의조국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리러 경건히 머리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뜨겁게 비껴있다. 하기에 사람들은 이 하나의 시행을 통하여 서정적주인공이 일생의 체험으로 터득한 생활의 진리를 감각하게 되며 주인공과 함께 내 사는 조국을 우리러 승엄한 감정에 휩싸이는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인 어머니조국에 머리굽혀 충심의

큰 절을 올리는것이다.

가요는 이처럼 《내 사는 내 나라가 제일로 좋아》라는 사상적핵을 서정적주인공의 내적체험에 기초하여 그것을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으로 세련된 시형상을 통하여 깊이있게 일반화해나가고있다.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높은 시형상은 또한 가사가 심오한 철학성을 띠고있으면서도 생활적으로 되어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가사는 시적인 생활세부를 잘 선택하여 그것을 재치있게 구사하고있다.

시형상에서 생활세부를 잘 선택하여 시적으로 훌륭히 구사하는것은 생활적인 가사창작에서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이 가사는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심오한 사상을 시적으로 형상하기 위해 서정적주인공의 마음속에 표상으로 간직되어있는 생활세부들을 여러모로 찾아내어 참신한 생활적느낌으로 표현하였다.

가사에 구사된 이국에서 피어나는 꽃 그리고 물, 아리랑곡조 등은 주인공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추상적으로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을 통해 깊이있게 개방해주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쓰이고있다 이렇게 가사는 가장 특징적이고 감성적인 생활세부인 꽃, 물, 노래 등을 시형상전반에 정서적으로 융해시켜 노래함으로써 주인공의 숭고한 애국심의 본질을 섬세하고 예리하게 표현하였으며 넓고넓은 세상을 돌아보아도 내 나라가 제일이라는 사상적핵을 생활적이면서도 철학적깊이가 있게 해명하고있다.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또한 시적표현들이 진실하고 뜻이 깊고 소박한것이 특징이다.

시적표현은 시형상을 특징짓는 기본징표의 하나이다.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평범하면서도 독특하며 소박하면서도 민족적맛이 나고 뜻이 깊은 생활적인 시적표현들로 진실하게 형상되어있다.

가사에 나오는 들가, 꽃, 내 나라, 벗, 한모금의 물, 고향, 샘 등 언어표현들과 《노래도 아리랑 곡조가 좋아》, 《내 사는 내 나라 제일로 좋아》, 《절을 하였소》 등의 표현들은 다 우리 인민들이 예로부터 흔히 써오던 생활어들이고 다정하고 친근감을 주는 소박한 표현들이다.

특히 《해와 별 비치여 밝고 정든곳》이라는 표현에는 실로 많은 뜻이 집약되어있어 사람들에게 강한 여운을 안겨준다. 사람들은 흔히 하늘의 태양이 있어 만물이 소생하고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

고 희망을 생각한다. 이 짧은 시구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여 것처럼 자랑높은 주체의 내 조국이 있고 그 품속에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우리의 보람찬 생활이 있다는 심오한 뜻이 깊이 숨배여있다.

보는바와 같이 이 가사에는 까다롭고 딱딱하고 직선적인 표현이 없고 한마디의 말속에 수천마디를 대신하는 깊은 뜻이 집약화되어있다. 이런 측면에서 가사는 혁신적성과를 이룩했다고 볼수 있다.

또한 이 가요는 생활어의 활용과 더불어 서정구조, 감정조직을 특색있게 하면서 아무리 세상을 돌아보아도 내 사는 내 나라가 제일이라는 하나의 문제점으로 정서의 흐름을 일관시켜나감으로써 형상의 초점을 집중시키고있다.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매절의 전렴에 넓고넓은 세상을 돌아본 주인공의 체험을 시적계기로 하고 그로부터 환기되는 생활감정을 두행의 시술에 집중시키었으며 다음 후렴 두행에서는 전반부에서 제시된 생활정서를 바탕으로 내 나라, 내 조국에 대한 긍지와 레찬의 감정을 강조하는데로 서정구조를 치밀하게 조직하고있다. 가사는 작품의 기본사상을 안고있는 후렴구를 매절에 재차 반복하여 강조하면서 랑만과 긍지에 넘친 상대감정에 맞게 《랄라랄라 랄라라》라는 표현을 줌으로써 1절부터 4절까지를 관통하고있는 작품의 사상정서적주장을 활동적인 시형상과 결합 속에서 정서적으로 높이 승화시키고있다.

이와 같이 가요의 높은 가사형상은 민족제일주의를 서정적으로 힘있게 부각하는 근본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다음으로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가 조선 민족제일주의가 진한 노래로 되고있는것은 다음으로 가요의 선률에 의해 담보되고있다.

가요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조국, 내 나라에 대한 전인민적찬사의 감정이 절절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예술적정서에 맞는 곡조의 독특한 형상에 의거하고있다.

원래 우리 인민은 일상 생활에서뿐아니라 노래에서도 유순하고 은근한것을 좋아했고 번잡하고 까다롭거나 걸치레를 하면서 멋부리는것을 좋아하지 않

았다. 오랜 세월을 거쳐 이루어진 우리 인민의 고유한 예술적정서에 가장 적절한 곡조를 선택한 바로 여기에 이 가요의 매력에 있다.

특히 매절에서 단일하고 통속화된 대중적인 선률이 여러번 반복되어 규칙적으로 은근하게 흐르다가 《랄라랄라 랄라라 랄라랄라라》와 같은 밝고 명랑하면서도 서정적이고 활동적인 선률로 점차 고조되어 시원하면서도 호기있는 선률의 개방으로 종자를 줌으로써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격조높이 선률적으로 강조하고있다.

또한 규칙적인 3, 3, 5조로 되어있는 가사의 운률을 음역을 넓히지 않으면서도 감정을 고조시키고있다.

이렇게 선률이 민족적인것이 짙으면서도 유순하고 아름답고 랑만적인것으로 하여 이 가요는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면서 누구나 쉽게 부를수 있게 되어있다. 하여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한번 들으면 따라부르고싶고 부를수록 인상이 깊어지며 뜻이 새로새로이 안겨오는 우리 시대의 명곡으로, 대중가요로, 조국찬가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시대의 찬가를 부르며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의 조국에서 사는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주체혁명위업완성으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참으로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는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방침을 빛나게 구현하여 명작으로 창작된 우리 시대의 본보기작품이다.

시대의 지향과 념원이 반영된 명작은 오직 생활에 대한, 시대와 혁명에 대한 창작가의 뜨거운 열정과 높은 사상미학적수준에 의해서만 창작될수 있다.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의 창작가들이 시대의 명작을 창작할수 있는것은 누구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모시고 사회주의길로 꽃꽂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 우리 시대와 생활에 대한 애정, 긍정, 열정이 강렬한데 있다.

우리는 가요 《내 나라 제일로 좋아》와 같이 조선민족제일주의가 투철히 구현된 시대의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함으로써 사람들을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한 투쟁으로 더욱 힘있게 고무해야 할것이다.

대동강반의 밤에

홍창원

꿈같이 황홀한
대동강반의 밤
쌍쌍이 버들숲을 거니는
청춘남녀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노래소리

벽찬 생활의 음향이
한껏 실린 정다운 흐름을 따라
산책의 유보도를 오가는 사람들속에
나는 한 외국인 벗과 나란히 걷는다

어이하여 말이 없는가?
아득히 흘러간 인생의 아쉬움을
사무치게 절감하고있는것인가

아니면
너무나도 꿈만같은 행복상앞에
그 어떤 타협 못할 두 극단의 대결을 안고
터질듯한 가슴
진정 못하는것인가?

나는 생각한다
그가 사는 나라를
거기엔 이처럼 맑고 고상한 음향이 없어
오가는 사람들의 정신을 결박하고있으리

그속에서
한조각의 빵을 구걸하는
거지떼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있으리
사람들은 절망에 쫓기고
무서운 악몽에 허덕이고있으리

벗이여 상상이나 했던가
우리의 행성우에
차레지는 행복이 너무도 아름답차서
낮에 다 누리지 못한 행복을
이밤에 또다시 이어누리는
인민의 락원이 여기 동방에 있었음을

정녕 이 시각
산원의 보석주단우에선
세쌍둥이들이 태어나 경사를 알리고
소년궁전 불밝은 무대에선
재간둥이들의 춤노래가 펼쳐지고

저기 통일거리 건설장에선
또 한층 인민을 위한
행복의 층계가 솟아오르고있음을

아 인민이 주인된 나라
누구나 근심걱정 모르고
누구나 기쁨과 밝은웃음
미래에 대한 드팀없는 신념을 안고
희열과 랑만에 넘쳐 즐기는 이밤

이것이여라
핵폭탄보다 무서운것
전쟁을 이기는 우리의 힘
자기의 신념에 따라 선택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밝은 영상이,
그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이 승승장구하는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패성이,

벗이여
깨달으라
이 땅에선 밝고 어둠을
낮과 밤으로 규정하지 않음을,
위대한 수령님 마련해주시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빛내이시는
내 나라는 영원히 삶의 그늘을 모르는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의 밝은 나라!

나는
온 세상에 소리높이 선언한다
썩고 병든 자본주의- 너는
헤여날수 없는 인간의 영원한 악몽
우리 식 사회주의- 너는
밤에도 어둠을 모르는
해와 별이 빛나는 인민의 락원

낮과 밤의 한계가 없는
조선의 비결은 어데 있는것인가
벗이여, 가슴깊이 간직하시라
인류는 일찌기 한하늘에서
해와 별을 볼수 없었던만
여기 조선에선 낮에도 밤에도
영원히 빛나는 해와 별을 한하늘에서
한하늘에서 볼수 있기때문이어라

물길공사장에서 쓴 일기

윤승상

3월 2일

가장 친근한 동무에게 자기 마음을 숨긴다는것은 피로운 일이다. 나는 미옥이와의 관계에서 아직 그 무엇도 숨겨본 일이 없으며 그 또한 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는데 습관되어왔다. 하지만 나는 요사이 우정에 저촉되는줄 알면서도 미옥이에게 마음속 비밀을 말할수가 없었다. 때아닌 폭풍같이 가슴속 고요를 불어내치고 뜨거운 불같이 급작스레 심장을 달구어주는 그 류다른 감정을 홀로 간직하고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드러날줄 어이 알았으랴.

《채순아, 요즘 홍일동무가 이상하지 않던? 웬처럼 사랑하고있더구나!》

점심을 먹고나서 단둘이 먼저 일터로 나갈 때 미옥이가 던진 말이었다. 그 말은 돌덩이처럼 내가슴에 날아들었다.

《뭐라구?... 누굴?...》

나는 야릇한 공포에 가슴이 호드드 떨리는것을 느끼며 미옥이를 돌아보았다. 미옥의 동그란 얼굴에서 두눈이 새물새물 웃는다. 미옥이는 어느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것 같았다. 가슴속에서 돌연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온몸의 피가 우로 물린듯 귀밀이 달아오르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누구나구? 이걸 보렴!》

미옥이는 주머니에서 손거울을 꺼내더니 나의 코앞에 가져다냈다. 네모난 거울속에는 빨강게 익은 가름한 내 얼굴이 비쳐들었다. 상큼한 불이며 오뚝한 코, 반반한 이마며 얇은 눈시울까지 내 얼굴은 온통 복숭아빛이었다.

《호호, 네 얼굴이 참 볼만하지? 호호호...》

미옥이는 깔깔거리며 줄달음치더니 공사장의 모래더미에 가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나는 뒤미처 달려가 그의 곁에 앉으며 목을 휘여잡았다.

《어디서 그런 말 들었니? 누구한테서?...》

《호호... 목을 놓으렴. 그래야 말을 하지.》

나는 그의 목에서 조금 팔을 늦추주었다.

《난 듣는게 아니야. 홍일동무가 몹시 속타하는걸 봤지. 네 얼굴에도 그런 감정이 띄여있구...》

순간 나는 몸이 나른해졌다. 그의 목에서 아주 손을 떼고말았다. 미옥의 말에는 진실이 배여있었다. 미옥이앞에서는 정말 움작할수가 없다. 나는 늘 그의 뒤를 따르는 심정이다. 언제 한번 그보다 앞서볼 생각을 못해본다. 중학교때에도 미옥이는 나보다 공부를 잘했고 물리소조에 들어 함께 이마를 맞대고 실험을 할 때도 나보다 먼저 정확한 수치를 잡

아내군했다. 미옥이는 둘도 없는 나의 짝패이다. 동해북변의 바다가마을에서 태어나 유치원시절부터 함께 공부한것보다도 설상 우리들의 우정이 굳건해진것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수산사업소에 배치된 뒤였다. 우리들은 함께 기능공학교를 나왔고 물고기 가공직장에서 다같이 양수기운전공으로 일했다. 키도 늘씬하고 인물도 고운 미옥이, 일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말도 씨원스럽게 하는 미옥이, 거기에 참을성있고 너그러운 성미까지 지니고있어 나는 같은 나이지만 때로 미옥이를 언니처럼 느끼기도 한다.

여기 물길공사장으로 함께 온것도 다름아닌 그 우정때문이다. 동무따라 강남간다는격으로 나는 미옥이를 따라 여기로 왔다. 전국이 물길공사를 지원할데 대한 당의 호소를 받들고 미옥이가 선참 탄원했을 때 나는 감동되었고 마침내 그를 따라 나섰다. 와보니 물길공사장은 청년들이 한번 땀을 흘려볼 만한곳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 청년돌격대에는 우리처럼 지원온 동무들이 더러 있기는 하지만 기본은 이곳 청년들로 무어졌다. 정확히 말하면 이곳 군에서 조직한 청년돌격대에 우리들이 배속된셈이다. 따라서 중대장도 소대장들도 연백별 청년들이다. 우리들의 직속소대장은 바로 문제의 그 최홍일 동무이다. 그와 나 사이에 아직은 마음속에만 있는 그 비밀을 미옥이가 알아냈것이 놀라움기만 하다.

나는 모래더미에 등을 기대이고 비스듬히 누웠다. 미옥이도 가지런히 누웠다. 이른 봄날 한낮의 따스한 햇빛이 콧속 찌르듯 얼굴우에 쏟아져내린다. 하늘에는 구름조차 없다. 우리들의 눈길은 공상을 쫓아 끝없이 청옥색의 하늘을 난다.

《미옥아.》 누운채로 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네 생각엔 어떠하니? 홍일동무가...》

《어떻긴 난 찬성이다. 네가 막 부럽구나.》

미옥의 대답은 오돌차고 명랑하였다.

《또 나를 놀리는거니?》

《놀리긴? 애두 참...》

미옥이는 고운 눈을 활기죽거렸다. 미옥이는 정말로 곱게 생겼다. 동그란 얼굴, 긴 살눈썹에 둘러싸인 크고 쌍꺼풀진 눈, 방싯 열린 얇은 입술... 문득 미옥이에게도 나와 같은 마음속비밀이 있을것만 같은 생각이 들며 어느날엔가 중대장동무가 그를 불러내던 일이 떠올랐다. 중대부에서 돌아왔을 때 따져묻지는 않았으나 나는 미옥이가 몹시 흥분하고있음을 눈치채였었다. 나는 은근히 그의 마음속을 두드려보고싶었다.

《미옥아, 난 뭐 모르는줄 아니? 네가 중대장동물 사랑하는걸 말야!》

《뭐라구? 호호호호… 내가 중대장동물 사랑한다구?… 하긴 중대장동물 그런 생각이 있나봐, 그렇지 난…》

미옥이는 말끝을 흐리우더니 별안간 한숨을 내쉬었다. 그에게도 필경 고민이 있는것 같았다. 나는 더 캐어묻고싶지 않았다. 생각하면 꿈많고 번뇌많은 청춘시절이 우리들에게 이런 날들을 어쩔수 없이 가져다준 모양이었다.

우리는 팔배개를 하고 나란히 모래더미에 기대어 누워있었다. 어디선가 종달새가 울었다. 종달새는 한번 쪼르릉 우짖더니 잠짓해졌다. 그것은 마치 무대우에 나서기전 성악배우의 발성연습과도 같았다. 종조르르 지중 지지 종중… 마침내 종다리는 푸른 하늘을 무대로 벌을 향해 마음껏 지저귀기 시작했다. 나는 종다리의 울음소리에 귀기울이며 하늘멀리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종다리는 보이지 않았다.

《어딜 보니, 저길 보렴.》

미옥이가 한손을 들어 가리키었다. 나는 미옥이의 손끝을 따라 오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종다리는 하늘 멀리에서가 아니라 바로 운하처럼 넓게 뻗어가는 새 물길우에서 작은 날개를 파닥거리며 한 자리에 머물러 쉽없이 지저귀고있었다.

3월 3일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개가 유별히 뜨겁게 달군하여 자꾸만 뒤척이었다. 이미 마음속 비밀이 드러난 그때문인지, 미옥이한테서 홍일동무에 대한 찬성의 말을 들은 그때문인지 온밤 홍일동무의 모습이 머리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동실하니 큰 얼굴, 늘 입고다니는 색날은 제대군복…

이곳에 처음 왔을 때부터 홍일동무는 청년들속에서 이채롭게 눈에 띄었다. 한것은 소대장이라는 그 직무와 노상 입고다니는 군복때문만도 아니었다. 큰 키에 몸매가 그쫘하고 어깨가 짙 벌어진 그는 언제나 힘에 충만되어있는 모습이었다. 미옥이와 내가 남먼저 일터에 들어설라치면 거기에는 어느새 홍일동무가 나와있었고 어려운 대목에는 늘 그가 서있군했다. 그는 룡이 세고 웃음도 해웠다. 웃을 때면 눈은 거의 없어지고 동실하니 큰 얼굴에 짙은 눈썹만 실오리같이 남는다. 그는 자기 할바를 알며 성실하고 열정적이었지만 간혹 분별없이 도도한 기풍으로 상대방을 위압하려드는 때가 있었다.

나는 지금 홍일동무가 어떻게 되어 나한테 남다른 눈길을 보내는지 그 까닭을 생각해본다. 술한 처녀들속에서 왜 나를 플라잡으려는지 아무래도 알수가 없다. 그 동무가 나를 좋게 생각할 근거는 조금도 없지 않는가? 오히려 나에게서 불쾌감을 느꼈을 그런 순간은 있었어도…

처음 왔을 때 미옥이와 함께 밤을 새우며 휘틀을

뎨 개거웅벽뒤에 흙을 메웠던 일이 생각난다. 날이 밝기도전에 일찌기 현장으로 나온 홍일동무는 우리들의 소행에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여기에 누가 흙을 메우라고 했소?》

홍일동무는 나와 미옥이를 번갈아 돌아보았다. 나는 삽자루를 쥐고선채 그의 눈길을 피했다. 처음엔 영문을 알수 없었으나 우리가 한 도적작업이 잘못된 일이였음을 감촉하면서부터 나는 몸돌바를 모들 지경이었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 흙을 메우라고 지시한 사람은 없었다. 하루일이 끝나면 나와 미옥이는 의례히 남몰래 더 할 일감을 찾아내곤하였는데 그날도 우리는 스스로 결심하고 그 일에 접어든 것이었다. 우리는 그저 웅벽뒤의 공간을 흙으로 채우면 그만인줄 알았다.

《참 한심하군.》

홍일동무는 내가 쥐고있던 삽자루를 책 나꾸채더니 메운 흙을 도로 파내기 시작했다.

《삽을 주어요. 내가 하겠어요!》

나는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감정을 느끼며 그한테로 다가갔다. 그는 아무말도 듣지 못한듯 씩씩거리면서 그냥 삽질을 했다. 나는 아래입술을 감추어 깨물었다. 홍일동무가 삽으로 흙을 푹 떠지를 때면 가슴속으로 선뜩하게 못이 박혀드는 심정이였고 흙이 허공중 날아오르면 우리의 존재마저 산산이 흩어지는것 같았다. 드디어 내가 삽자루를 빼앗아냈다.

《동문 심술쟁이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일깨워주진 않구…》

《어디 그럴 형편이 뻘소. 웅벽이 넘어지는걸 보고싶소?》

《아니, 이게 넘어진대구요?》

나도 미옥이도 놀라와 두리번거렸다.

《그렇소. 당장은 모르지만 앞으로 지압을 받으면 웅벽이 안으로 넘어질수 있단말이요. 그래서 한메터넉이로 속돌을 채운 다음 그 뒤에 흙을 메우게 되어있소. 일을 착실히 하겠으면 그런 공법부터 알아야지… 이게 어떤 물질이요? 이 물질과 운명을 같이할 사람들은 이런 본새로 일하지 않소!》

《뭐라구요?》 나는 반발하듯 부르짖었다. 《그럼 우린 손님이라는건가요? 어쩌면…》

왜선지 분한 마음이 앞서며 눈에서 눈물이 솟구치려고 했다. 미옥이가 한발자국 나에게로 다가서며 팔소매를 툭 건드리었다.

《좀 가만 있으렴. 우리가 잘못된 일인데…》

《우릴 손님취급하려고 드는데 어떻게 가만 있니? 넌 분하지도 않니? 소대장동무 왜 그런걸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지 않았는가말야. 이것부터가 우릴 손님으로 안거지 뭐야!…》

나는 발끈해서 미옥이한테 달려들었다.

《너두 참 공연한데 신경을 쓰는구나. 우리가 손님이야 손님이지 뭐냐.》

《아니 왜 우리가 손님이라는거냐?》

《됐다 됐어.》

홍일동무와 시작한 다름질이 하마트면 우리들의 우정을 깨는 싸움으로 번질뻔했다. 나는 확실히 리해성이 좁은 녀자다. 미옥이가 제때에 나에게서 물러나 홍일동무한테 잘못을 사과하지 않았던들 일은 수습되기 힘들뻔했다. 그 일이 있은뒤부터 홍일동무는 자주 나와 눈길이 마주치곤했다. 내가 얼른 눈길을 피하면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것이 애정의 눈길이고 사랑의 한숨임을 느꼈을 때 나는 놀랐다. 격랑을 안은 바다처럼 내 가슴은 설레이었다. 숨가쁜 호흡이 시작되고 때로는 타는듯 심장이 달아올랐다.

3월 9일

오늘은 왜 이렇게 어머니생각이 날까? 오빠들, 동생들의 생각도 간절해진다. 집에서 지금 나를 생각하고있겠지. 이 딸이 어떻게나 일을 하고있는지 어머니는 궁금해하실거야.

《채순아, 가거든 일을 잘해라. 몸두 돌보구...》

떠나올 때 눈내린 고향의 역두에서 나를 바래우며 하시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따듯하다. 크지 않은 고기배를 타고 선장으로 일하시던 아버지가 뜻밖에 풍랑을 만나 동지들을 구원하고 돌아가신뒤 홀로 우리 여섯남매를 키우신 어머니, 그때도 어머니는 홀로 나를 바래우시었다.

미옥이네는 어머니와 함께 항에서 부항장으로 사업하는 아버지까지 나왔다. 미옥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와 한배에서 일했었다. 아버지의 희생적인 도움으로 살아난 미옥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 가정에 대해 끔찍이 마음을 쓴다. 나와 미옥이사이의 우정이 깊어진것도 따지고보면 부모들의 그 의리적인 연고때문인지 모른다.

《자, 그럼 영웅들이 되어 돌아오길 바란다.》

허우대 크고 몸이 난 미옥의 아버지가 웃음띤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당부하였다.

《몸 조심해라!》

미옥의 어머니는 사뭇 울상이 되어 차창밖에서 손을 저었다.

떠나는 렬차, 점점 멀어지는 역홈... 가지빛숨옷을 입은 어머니의 모습이 작은 점으로 되었다가 완전히 시야에서 벗어났을 때에도 나는 차창에서 얼굴을 떼지 못했다. 까닭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됐어, 그만 보렴.》

미옥이가 내 무릎을 건드리었다. 나는 눈물을 닦고 바로 앉았다. 미옥이는 마치 들놀이이라도 가는듯 명랑한 기분이었다. 나는 공연히 눈물을 흘린 자신을 나무래었다. 이리자고 미옥이를 따라나섰을가 하는 생각이 들며 동무에게 미안한 마음이 갔다. 현실이 바라기에, 조국이 힘든 초소로 청년들을 부르기에 모든 사념을 버리고 떠나는 길인데 벌써부터 나약한 마음을 먹은것 같아 나는 자신을 다잡았

다. 그리고는 짐짓 웃음을 지으며 미옥이를 바라보았다.

《이제 가면 일이 수월치는 않을거야. 그렇지만 우리가 내딛는 발자국들에 청춘시절의 보람이 새겨진다고 생각해보렴. 후날엔 그것이 뗏뗏한 추억으로 남게 될거야.》

미옥의 말은 내 가슴을 뿌듯하게 했다.

렬차안에서 우리는 오래도록 인생을 론했었다. 청춘시절에 대하여, 귀중한 그 인생의 한구간에 대하여...

이렇게 떠나온 고향에 나는 무엇을 안고 돌아가야 할까? 직장의 동무들은 앞가슴에 훈장을 번쩍이며 오라고 뽕삼아 말들 했지만 어떻게 일을 해야 그런 영광이 차례지려는지 알수가 없다. 미옥이는 그것을 깨달았는지 밤마다 새로운 일감들을 찾아내지만 그 일들이 때로는 빛을 보지 못한다.

어머니는 내가 여기로 떠나올 결심을 말했을 때 이제야 네가 뭘가 보답을 할 생각을 한 모양이라고 미소를 지으셨지. 그리고 지나온 가정사를 이야기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지...

《너희 여섯남매를 내가 키웠다는 생각지 말아라. 내힘으로야 어떻게 너희들을 다 학교에 보내구, 철따라 새옷을 입히구. 한끼두 건넌이 없이 밥을 먹일수 있었겠느냐? 옛날같으면 아마 너희들은... 그걸 깨닫게 되면 무엇을 위해 살구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하겠는지 알수 있을게다.》

어머니, 믿어주세요. 집을 떠나온 이 길을 나는 보답의 길로 이어가겠어요!

3월 12일

점심먹으러 들어올 때 미옥이는 나에게 약속하였다.

《채순아, 아무래도 우린 전번에 잘못된 일을 봉창해야겠어. 개거옹벽뒤에 흙을 메운것 말이야. 오늘밤엔 거기에 돌을 채우자, 응?》

《그래, 그게 좋겠구나!》

나는 미옥이의 생각에 감탄하였다. 미옥이는 마음속으로 그 일을 수치로 여기고있는 모양이었다.

저녁식사가 끝난뒤 나는 미옥이를 기다리며 물길로 나가는 길목에 서있었다. 그런데 얼마를 기다려도 미옥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어찌된 일일까? 이렇게 구물거리다니... 먼저 나갔을가? 하긴 내가 늦게야 저녁밥을 먹지 않았는가?... 나는 천천히 물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개거현장에 다달으니 옹벽뒤에서 돌부딪는 소리가 났다.

(애두 참, 혼자서 먼저 나올건 뭐람.)

나는 그쪽으로 다가갔다. 방금 떠오른 둥근달이 별절게 구름뒤에 숨어 희미한 빛을 뿌리는데 어스크레한 옹벽뒤에서는 돌부딪는 소리만 들려왔다. 미옥이는 나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이 일에만 열중하는 모양이었다. 나의 머리속에서는 피륙 미옥

이를 놀래워주고싶은 생각이 스쳤다. 나는 물길쪽 밖으로 내려가 살금살금 다가갔다. 그리고는 고개를 남썩 쳐들고 미옥이쪽을 내려다보았다. 웅벽위는 그저 캄캄했다. 나는 자그마한 흙덩이를 집어 들고 가볍게 던졌다.

《누구요?》

돌연 남자의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어마나!》

나는 팔씩 그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나의 피는 내가 놀라는것으로 끝장이 났다. 그 사람은 미옥이가 아니었다. 엄청나게 큰 그 목소리의 임자는 다름 아닌 홍일동무였다.

(이 일을 어쩌나?)

나는 아예 어디론가 달아나버리고싶었지만 몸을 움직일수가 없었다. 싸늘한 공포가 엄습해왔다. 두근거리는 심장의 고동소리만이라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좀 자유로울것 같았다. 저벅저벅 발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푹 떨어버렸다.

《아, 채순동무요!》

우렁우렁한, 그러면서도 기쁨에 젖은 목소리였다. 이런 순간을 기다려온듯 홍일동무는 스스럼없이 내걸로 다가와 앉았다. 나는 뒷에 걸린 참새마냥 가슴만 할딱거릴뿐 움작할수 없었다. 숨막힐듯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은 무엇인가 엿서고싶지 않으나 엿서지 않을수 없는 그러한 감정의 호소처럼 생각되었다. 홍일동무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다.

오랜 침묵(사실은 그렇게 느껴졌을뿐이라.)끝에 점차 마음이 안정되었다. 그가 여기로 나온것이 결코 나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였음을 느끼게 되었다. 소대장인 그는 무엇인가 일이 있어 나왔을것이였다. 내가 늘 미옥이와 붙어다니는 까닭에 그는 이밤에도 따로 만날 그러한 생각은 못했을것이였다. 언제나 소대의 앞장에 서서 일을 작전하고 내미는 그의 성격을 나는 잘 알고있다. 때문에 나는 그가 싫지 않은것이고 사나이다운 그에게 마음이 이끌려가는것이라. 이상한것은 미옥이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사실이었다. 나는 미옥이가 의심스러워졌다. 혹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려고 우정 작간을 부린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굳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저러 비키세요. 이제 미옥이도 나올거예요.》

《걱정마오. 미옥동문 오늘 선동원회의에 갔소. 가면서 나한테 이야기하더군. 채순동무와 함께 밤일을 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말하지 못하고 간다구... 그래서...》

나는 더럭 겁이 났다. 그렇다면 홍일동무는 나 혼자 오리라는것을 미리 알고있었는가? 미옥이가 원망스러웠다. 애두참, 시간이 바빠도 나한테 알려줄게지... 숨가빠하는 나의 심정을 느낀듯 홍일동무는 푹 갈았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난 사실 뭔가 좀 생각되는게 있어서 나왔댔소.

저 웅벽위에 돌을 채우는 일 말이요. 그걸 난 달리해볼 결심이요! 기왕 한메터널이로 돌을 채울바에는 먼저 돌을 쌓구 휘틀없이 콩크리트를 타입해넣는게 더 좋을것 같거든, 휘틀은 물길 안쪽에만 대주면 되오. 어떻소. 될것 같소?》

홍일동무는 언지시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 목소리는 겨우 입밖으로 새어나갔다. 생각하면 나는 공연히 지레짐작으로 홍일동무를 경계한것 같다.

《동무라구 왜 그걸 모르겠소. 난 사실 동무들이 웅벽위에 흙을 메운 그날부터 이런 생각을 해왔소. 말하자면 동무들이 이런 창안을 하도록 부추긴 셈이지. 돌을 먼저 쌓으면 휘틀이 절약되는건 물론이구 콩크리트를 칠 때 돌째으로 혼합물이 흘러들어 결국 한덩어리로 굳어질게거든. 그러면 웅벽이 넘어질 념려도 없을게요!》

홍일동무의 목소리는 확신에 넘쳐있었다. 나는 등불이 켜진듯 마음속이 환하게 밝아오는것을 느꼈다. 나는 이 물길과 운명을 같이하려는 그 진정에 감동되었다. 고향의 물길을 만년대계로 건설하려는 그 지향이 이처럼 훌륭한 창안을 불러온것이라 생각하니 그가 더욱 듬직해보였다. 나는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군복입은 그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불끈 솟은, 힘으로 충만된듯한 그 어깨는 불시에 내 마음을 설레이게 했다. 그의 가슴속에는 고향 연백벌의 미래가 담긴 크나큰 꿈이 깃들어있고 온몸 가득 불같은 정열이 숨어있을것이였다. 문득 홍일동무를 찬성해주던 미옥의 말이 생각났다. 미옥이는 어스센가 벌써 청년의 가슴속에 숨은 그 모든것을 엿본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앉아만 있겠소? 나온김에 나를 좀 도와주오.》

홍일동무도 나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달은 익은 감빛이 되여 구름우로 떠올랐다. 물길이며 드넓은 벌우에 달빛이 흘러내렸다. 달은 점차 감빛이 바래고 누렇게 되더니 마침내는 하얗졌다. 어둠속에 자취없이 누웠던 안개가 달빛에 퍼뜩 생기를 띠고 파스한 이불처럼 벌을 덮었다. 안개속 어디선가 이름모를 밤새가 울었다. 녹녹한 습기를 머금은 밤바람이 봄을 맞은 땅의 훈훈한 흙냄새며 두렁가에 갓 돌아난 풀잎들이 내뿜는 연연하고 상긋한 냄새를 몰아왔다. 나는 깊숙이 숨을 들이그었다. 달빛도, 봄향기도, 새소리도 이밤에는 류달리 아름답고 친근하게 젖어들었다.

《연백벌이 마음에 드요?》

돌을 쌓다말고 문득 홍일동무가 물었다.

《예, 맘에 들어요. 이고장은 참 좋은곳이에요!》

나는 돌을 섬겨주면서 무심결에 대답했다. 그런데 홍일동무는 돌을 받아들 대신 내 손을 덧잡고 힘껏 끌어당기는것이였다. 뜨거운 열이 손등을 통

해 나의 심장으로 퍼져왔다. 나는 돌을 놓을수도 손을 뿌리칠수도 없었다. 홍일동무의 숨결소리가 높이 들렸다.

《동문 참 좋은 동무요. 난 사실 동무가... 동무가 맘에 드요!》

후끈한 입김이 내 얼굴에 풍겨왔다. 아끼고 아끼던 마음속의 고백이 터져나온것이다.

순간 나는 몸을 비칠거렸다. 몸도 마음도 그만 중심을 잃고말았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가슴벽을 쿵쿵 두드리며 심장이 재게 뛰었다. 나는 돌을 놓아버릴 것 같아 겁이 났다. 홍일동무는 돌보다도 내손을 잡고있는것 같았다.

《손을 놓아요. 그리구 어서 돌을...》

《돌이 무겁소? 내가 이렇게 받들고있는데...》

그제서야 나는 내 손과 더불어 기운것 돌을 거머쥐고있는 남자의 역센 힘을 느꼈다.

《놓아주지 않겠소. 말하기전엔... 그래 동문 내가... 내가 맘에 없소?》

《몰라요!》

나는 열결에 손을 뺐아내었다. 힘의 균형을 잃은듯 홍일동무가 허리를 굽히더니 돌을 툭썩 놓아버렸다. 돌이 그의 발등을 치는것 같아 나는 가슴이 죄였다.

《허허, 성났소?》

《아니예요. 어디 다치지 않았어요?》

《일없소.》

그의 목소리에는 돌을 떨군것보다도 무언가 소중한것을 놓쳐버린듯한 아쉬움이 배여있었다.

밤깊어 함숙으로 돌아온 나는 잠든 미옥이곁에 살그머니 끼어들었다. 창문으로 절반쯤 달빛이 흘러들고있었다. 나는 한동안 미옥이를 내려다보았다. 섯뽕중계 잠든것이 알미워났다. 동무를 떼어두고 어찌면 이리도 맘편히 잠들수 있단말인가?

누군가 저쪽에서 잠꼬대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얼른 담요를 덮고 누웠다.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고 뜻밖에 벌여졌던 꿈같은 일들이 되살아났다. 웅글고 부드러운 홍일동무의 목소리, 고향에 대한 사랑과 미래에 대한 꿈으로 가득찬 억세고 든든한 모습, 창안으로 열띤 재빠르고 민첩한 동작, 돌을 섬겨주는 나의 손에 얼핏얼핏 와닿던 이상한 감촉... 그때는 소중히 간직하려고조차 생각못했던 그 모든것들이 이 순간 못건디게 마음을 흔드는것은 무엇때문일까? 나는 그 어딘가로 자꾸만 마음이 이끌려가는것을 느꼈다. 그러다가 소스라치듯 놀라며 자신을 다잡았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나는 무엇인가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고있는것 같았다. 갑자기 홍일동무가 무섭고 두려워졌다. 하마터면 사랑의 함정에 빠질뻔한 자신이 어리석게 생각되었다. 문득 고향의 바다가, 그 유정한 파도소리가 귀가에 메아리쳐오고 눈내린 역

두에 서계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삼삼 떠오른다.

어머니에게 잘못을 빌고싶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잠시나마 판생각을 한 이 딸을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저는 아무일없이 성실한 딸을 바치고 어머니품으로 돌아가겠어요!

3월 15일

식당근무를 서는 동무가 감기로 앓는 바람에 나는 오늘 대신 밥을 지으려고 일찍 일어났다. 밥을 다 지어놓고나서 나는 냉이며 콩나물을 씻을겸 물을 길러 샘물터로 갔다.

푸름푸름 동녘이 밝아왔다. 새벽빛에 쫓기여 창백해진 달이 서쪽하늘가에 고요히 걸려있었다. 어디선가 멀지 않은곳에서 소쩍새가 울었다. 그 울음소리에 도간도간 끊어지는 정적이 벌을 낀 야산밑에 가득차있었다. 이지러진 달이 박우물속에서 가볍게 춤을 추었다. 바가지로 물을 풀 때면 달은 삽시에 부서졌다가 재빨리 제모양을 되찾곤했다. 나는 쭈크리고 앉아 달과 희롱하듯 물을 푸고는 냉이며 콩나물을 씻어 버치에 담았다.

버치를 이고 물이 든 바께쓰를 들면서 일어서던 참에 나는 그만 도로 그자리에 주저앉고말았다. 안개며 무서리에 눅눅해진 산기슭의 해묵은 잔디일을 밟으며 두사람이 걸어오고있었다. 그들이 바로 미옥이와 돌격대중대장임을 알아보았을 때 나는 야릇한 흥분으로 가슴이 울렁거리는것을 느꼈다. 아닌보살하지만 미옥이는 중대장을 따르고있지 않는가? 중대장은 정말로 미옥이에게 짝지지 않는 총각이다. 림름한 키, 굽술굽술한 머리카락, 길쭉한 얼굴에 크고 억실억실한 눈... 일은 또 얼마나 담차게 내미는가. 청년다운 패기와 열정의 화신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이런 동무를 미옥이가 무엇때문에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다음 순간 나의 마음속 한구석적으로는 이상한 감정이 스며배어들었다. 그들이 참으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그 애정은 아름답게 꽃피야 하지 않을까? 꽃피면 열매로 맺어야 한다. 하지만 공사가 끝나면 미옥이는 고향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어찌선지 그가 중대장동무를 사랑하는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일로 생각되었다.

나는 샘물가에 키를 낮추고 앉았다가 그들이 사라져간 뒤에야 함숙식당으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미옥의 마음을 한번 떠보고싶어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었다.

아침식사가 끝난 뒤에 나는 일터로 나가려는 미옥이를 붙잡고 조용히 물었다.

《너 중대장동물 정말로 사랑하니?》

《응? 호호호...》

미옥이는 놀라와하더니 한바탕 웃고나서 가슴을 짹 펴고는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사랑한다. 네가 홍일동물 사랑하는것처럼.》

《애 누가 듣겠구나. 내가 언제 홍일동물 사랑하던?》

《아이고 이 새침대기야. 아직도 날 속이려드니?》

《속이는게 아니야. 사랑하고싶어도 그러질 못해. 우린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니.》

《호호호... 애두 참. 그제 무슨 걱정이니. 랑군님들을 척 데리고 고향에 나타나면 못쓰던? 난 그럴 결심이다. 한번은 슬쩍 중대장동무한테 우리 고향을 자랑했어. 그랬더니 <참 부러운 고장이구만> 하지 않겠니. <가서 살고싶진 않나요?> 하고 물었더니 <글쎄...> 하고 말꼬릴 끌더구나.》

미옥이는 크게 웃고 명랑하게 말했다.

그가 일터로 나간 뒤에 나는 여러가지로 생각을 굴려보았다. 그들의 사랑은 결실을 볼수 있으리라 믿어졌다. 지금은 돌격대 중대장직책을 걸머졌으나 공사가 끝나면 그는 관개관리소의 평범한 로동자인것이다. 그가 어찌 아름다운 처녀를 놓아줄수 있겠는가. 그는 십분 미옥이를 따라나설수 있다. 그렇게만 되면 일은 얼마나 리상적인가!

나는 이들의 사랑을 고스란히 지켜주고싶은 충동으로 온 하루 가슴이 뛰는것을 누를길이 없었다.

3월 21일

우리는 오늘 새로운 구간으로 일자리를 옮기었다. 홍일동무의 창안이 은을 내어 개거구간은 예상외로 빨리 완공을 보게 되었다.

새로 말은 구간은 100메터짜리 잠관공사였다. 유유히 흘러가는 한교천밑으로 초당 수십톤의 물이 통과할수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구조물을 들이얹힌다고 생각해볼 때 이것은 난공사가 아닐수 없다.

잠관공사는 시간적으로도 긴박한 대상이었다. 이 구간은 이미부터 다른 중대들이 맡아해오던것인데 준공날자가 하루하루 다가오는것과 관련하여 지휘부에서는 우리 돌격대중대를 증파하기로 했던것이 다.

그만큼 우리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야 했다. 이 일이 끝나면 레성강으로부터 저 멀리 룡매도간까지 이르는 200리물길이 전부 완공되는것이다.

작업장소가 좀 떨어진 조건에서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서둘렀다.

잠관공사장은 정말로 눈이 휘둥그레질 지경이었다. 100메터나 되는 강폭을 절반 줄여잡아 가물막이를 했는데 넓게 파들여간 기초구덩이에 물이 호수처럼 피어있었다. 양수기 두대가 그림없이 물을 퍼올리었다. 하건만 굴착기들은 여전히 침범거리며 물속에 바가지를 떨구었다가 조심조심 감탕끼 모래흙을 떠내고있다.

《채순아, 너 무슨 말 못들었니?》

굴착기가 파낸 흙을 좀더 밖으로 밀어치우느라고 불도젤이 우렁거리고 사람들이 가래질, 삽질을 하며 뚫는속에서 미옥이가 문득 내 옆구리를 찌르면서 물었다.

《무슨 말?》

나는 삽질을 멈추고 미옥이를 돌아보았다. 미옥이는 여느때없이 심각한 표정이었다. 미옥이는 무슨 말을 할듯하더니 주위를 훑어보고는 머뭇거렸다. 설참에 미옥이는 강변으로 나를 이끌고가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자격있는 양수기운전공들을 장악한다는구나.》

《그건 왜?》

《지금 여기 공사장에 양수기를 큰것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당장 그 운전공이 결린다는거야.》

《그런데 왜 그렇게 겁먹은 얼굴이니? 우리가 말자꾸나. 우리가 당당한 양수공들이 아니냐!》

나는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근심에 싸여 걱정스레 말하는 미옥이를 이상스레 쳐다보았다.

《애두 참.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말아서 하면 좋겠지만 한가지 우려되는게 있어. 그렇게 되면 아예 여기에 눌러 앉을수도 있거든. 생각해보렴. 새 물길이 뻗고 곳곳에 양수장들이 일떠서는 조건에서 술한 양수공들이 필요할건 뻔하지 않니?》

《하긴 그래...》

나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미옥이는 정말 머리가 총명한셈이었다. 그는 벌써 앞일을 예측하며 내가 입빠른 소리를 할가봐 미리 충고를 주고있지 않는가?

《그러니 누가 묻거든 양수기는 모른다고 해. 알겠니?》

나는 잠시 얼떨떨해져서 미옥이를 마주보았다. 그의 이 말은 잘 리해되지 않았다.

《어떻게 그걸 숨기겠니. 난 량심에 그렇게는 못 할것 같구나.》

《원 애두. 양수기운전공이 뭐 우리뿐이겠니? 우리말고도 그걸 말을 사람은 있어.》

나는 더 대답할 말을 못찾고 그를 쳐다보았다.

작업이 시작되자 우리는 아무일도 없듯 가볍게 일터로 달려갔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무겁기만했다. 바위같은 집이 량심을 타고누르는듯한 압박감을 이겨낼수가 없었다. 시대가 바라기에, 조국이 부르기에 우리는 여기로 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부닥친 현실이 당장 양수기운전공을 찾는데 우리가 어찌 숨박꼭질을 할수 있단말인가? 차마 자신을 속이지는 못할것 같았다. 다시금 미옥이와 토론해보자, 그리고 함께 대형양수기를 말아내서자.

오후에는 내가 미옥이를 강변으로 이끌고갔다. 그러나 미옥이는 되려 나를 설복시키려 했다. 나는 종내 미옥이한테 지고말았다. 내 마음에 동요가 온 것이었다. 갑자기 집생각이 간절해졌다. 어머니가

그리고 동생들이 보고싶었다. 아차하면 여기에 남을수도 있으리라, 나의 집,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과 영영 헤어질수도 있으리라 의식이 은연중 나의 머리에 지배한 까닭이리라.

자신을 공개하면 여기에 떨어질수도 있다. 미옥이도 이것때문에 주저하고있지 않는가. 그가 못한 결심을 내가 어찌 쉽게 내릴수 있단말인가? 미옥의 심정이 리해되었다. 하지만 마음은 끝없이 괴롭기만 했다. 삽질을 해도 흠이 떠지는지 어쩐지를 알수가 없었다. 미옥이가 너무 앞질러 생각한건 아닐까? 여기에 떨어지는 문제가 어디까지나 본인의 마음에 달린것이 아니겠는가? 당장 양수기를 맡는다고 그렇게 락착지를 필요는 없을것 같았다. 자신을 숨긴다는것은 피로운 일이다. 어느때든 량심만은 깨곳이 안고살아야 할것이 아닌가.

저녁에 나는 중대장동무를 찾아가 양수기를 맡겨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중대장동무는 그 잘생긴 환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사업노트에 내 이름을 적어넣었다. 나는 무거운 짐을 부러놓은것처럼 마음이 홀가분해지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이것은 한순간의 감정이였다.

《미옥동문 수산사업소에서 벨트콘베아를 운전했다더군?》

조용한 물음이었으나 그 말은 우뢰처럼 나의 가슴을 흔들어놓았다.

나는 자신이 곤경에 빠진것을 느꼈다. 나는 아무 말도 할수가 없었다. 이미 쏟아버린 미옥의 말을 정정할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무턱 고개를 끄덕일수 있겠는가?... 이처럼 웅색한 립장에 서보기는 처음인것 같았다. 도무지 미옥이가 리해되지 않았다. 어쩌면 이럴수 있을까? 어떻게 중대장앞에서, 사랑하는 사람앞에서 자신을 숨길수 있을까?

중대장동무는 나에게서 딱히 대답을 기다리는것 같지 않았다. 다행한 일이었다. 나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있다가 슬며시 일어나고말았다.

3월 23일

이틀만에 대형양수기가 설치되었다.

내가 양수기를 맡아나서자 미옥이는 놀라와했다. 그러나 나를 탓하지는 않았다.

나는 미옥이를 대하기가 면구스러워졌다. 죄는 없으나 왜선지 미옥이에게 빚을 진듯한 심정이였다. 그래서 무슨 말로도 미옥이가 나를 질책하리라 믿었는데 아무 말도 없으니 오히려 마음이 더욱 편치 않았다.

현장에서 점심식사를 한뒤에 나는 미옥이를 강가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는 모래불을 걸으면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왜 나를 욕하지 않니?》

한낮의 햇빛이 강물우에 떨어져 어롱거렸다. 미옥이는 돌멩이를 집어 들고 강복판으로 가볍게 던졌

다. 강물에 드리웠던 햇빛기둥이 천조각만조각 부서졌다.

《뭐라고 널 욕하겠니. 너야 네 신념대로 말했을게 아니냐... 난 널 고맙게 여길뿐이야.》

《고맙게 여기다니?》

《정말이야. 난 중대장동무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런데 네가 잠자코 있었으니 나의 비밀은 지켜진셈이 아니냐!》

미옥의 얼굴에는 아랑기든 온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기에 대해 말하지 않은 나를 진정으로 고맙게 여기는상싶었다. 나는 그에게서 눈길을 떼었다. 가슴속이 답답해왔다. 량심을 파묻고 애인마저 속인 그것을 어떻게 떳떳이 말할수가 있을까? 마음이 괴롭지도 않을까?... 나는 우뚝 발걸음을 멈췄다. 다리맥이 풀려 서있기조차 힘에 겨웠다. 나는 모래불에 풀썩 주저앉았다. 미옥이도 내곁에 와서 앉았다. 나는 미옥이를 돌아보지 않았다. 지금의 미옥이는 내가 늘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던 그런 아름다운 처녀가 아니였다. 무엇인가 배반당한듯한, 얼리우고 속히운듯한 감정이 가슴속을 뻘뻘이쳤다.

《난 네맘을 알수가 없구나. 네가 그렇게 맘편해 있는걸 리해할수가 없어!》

나는 모래를 움켜쥐면서 말했다.

《조급해말어. 날 리해할 때가 있을테니...》

돌연 한숨을 내쉬는 미옥의 입김이 나의 귀등을 스치였다. 그의 마음도 결코 편안치는 않은것 같았다.

《아니야, 난 네맘을 끝까지 리해할수 없을것 같아. 생각해보렴. 우리가 무엇때문에 여기로 왔니. 시대가 바라기에, 조국이 부르기에 여기로 오지 않았는가말야! 그런데 눈앞의 현실이 당장 양수기운전공을 찾는 이 마당에서 넌 숨박꼭질을 하고있거든. 이러한 너를 내가 어떻게 리해할수 있겠니?... 난 중대장동무앞에서 얼마나 웅색했는지 몰라. 얼굴이 뜨거워서...》

《그만해라. 난 뭐 그 동물 속이고싶었겠니? 내맘도 피로왔어. 하지만 어쩔수가 없더구나. 두고보렴. 내 말이 틀리는가, 앞으로 속상한 문제가 꼭 생기지 않나?...》

《난 그게 두렵지는 않아. 여기에 남느냐, 가느냐 하는 문제는 각자의 결심에 따른게지 누가 강박할순 없다고 봐. 난 미리부터 그런걸 생각하면서 네가 현실을 도피하고 량심을 속인게 마음에 걸려...》

《됐다. 그만하자. 누가 보면 씹하느줄 알겠다. 정직한 네앞에 내가 머릴 숙이마.》

미옥이는 절을 하듯 깊이 머리를 수그리였다. 머리를 들자 그의 얼굴에는 맑은 미소가 어렸다. 하지만 나는 웃을수가 없었다. 내 가슴속에선 피로움이 스러지지 않았다. 이미 더럽혀진 미옥의 량심을 그 무엇으로 씻을수 있단말인가?

3월 25일

매일매일 성과가 오르지 않는 그때문인지 홍일동무는 요즘 기분없이 일을 했다. 일이 성차지 않아 어떤 때는 정갱이를 걷어올리고 구덩이안에 들어가 절반밖에 못채우는 굴착기의 바가지에 모래를 푹 푹 덧담아올리기도 했고 어떤 때는 맥이 풀린듯 양수기결에 다가와 투덜거렸다.

《앵이, 저놈의 모래두 물처럼 쭉쭉 빨아올릴수 없나?》

물이 뿜어나는 양수기의 토출구를 바라보며 이렇게 중얼거리는 홍일동무의 목소리를 나는 여러번 들어왔다. 양수기결에서 공기배출구의 볼트를 조이다 말고 나는 오늘 그에게 말을 걸었다.

《호호, 무슨 공상을 하는게 아니예요?》

《그렇소. 공상은 공상이요!》

홍일동무는 시무룩한 표정으로 군복저고리 옷주머니에서 담배를 한가치 뽑아물더니 철컹 라이타를 켜냈다. 뒤미처 입김배인 푸르스름한 연기가 그의 두툼한 입술사이로 후-뿜어났다. 방금 찬물에서 나온 뒤였으나 홍일동무는 정갱이를 걷어올린채로 담배만 피워냈다. 아직 날씨는 쌀랑한 기운을 가지지 못하고있었다.

(원, 저러다가 감기에라도 걸리면 어찌려나?)

이상스레 그에게로 마음이 쏠리는것을 느끼며 나는 스스로 놀랐다. 나는 얼굴이 흑 달아오르는것을 감추려고 고개를 수그리었다. 공기볼트를 마저 죄고나서 돌아보니 홍일동무는 어데론가 사라져버렸다.

교대운전공에게 양수기를 넘겨주고 함속으로 돌아온 뒤 나는 밤새껏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눈을 떠도 감아도 일때문에 고심하는 홍일동무의 모습이 얼른거렸다. 모래도 물처럼 빨아올리고싶어하는 그 일욕심을 내가 채워줄수는 없을가? 나는 양수기결에서 홍일동무가 사라져버린 그때부터 줄곧 이 한가지를 생각해왔다. 무엇인가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그것은 만전기 날리며 돌아온 배에서 물고기를 퍼올리는 고향포구의 흥성이는 광경이었고 물과 함께 퍼올린 고기들이 벨트를 타고 줄줄이 흘러가는 모습이였다. 그것처럼 물과 함께 모래를 퍼올릴수는 없을가? 꼭 그렇게는 아니 된다해도 분무의 원리를 적용하면 가능할것 같기도 했다. 약병에 《7》자로 된 깔대 한끝을 넣고 입바람을 불면 수직깔대에 진공이 조성되면서 약물이 밖으로 뿜어나지 않는가. 그것처럼 모래바닥우에 판을 세우고 그 끝을 양수기의 토출관에 이어주면 어떨가? 양수기가 고압으로 세차게 물을 뿜어주면 거기에 진공이 조성되며 모래가 올라오지 않겠는가? 문제는 양수기의 토출관에 모래관을 어떤 각도로 이어주는가에 달려있을것 같았다.

나는 담요를 चे치고 일어나앉았다. 그리고는 책상가로 다가가 탁상등을 켜다. 학교때 물리소조에

서 익혀온 실험들과 기능공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장그리 짜내고 온갖 상상을 모아 기계모형을 그려보았다. 지우고 다시 그리기를 그 몇번... 야속하구나. 소득없는 공상의 밤이여.

3월 26일

아침에 일터로 나가니 벌써 홍일동무며 청년들 여럿이 물고인 구덩이에 뛰어들어 굴착기가 능률적으로 일할수 있게 모래를 한견으로 모아쌓고있었다. 그들속에는 미옥이도 끼여있었다.

애쓰는 동무들을 보니 밤사이의 고민이 다시금 이어진다. 물과 함께 모래도 퍼올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나는 양수기결으로 다갔다. 그리고는 물이 뿜어나는 토출구를 이윽히 지켜보았다.

《뭘 그렇게 생각하니?》

언제 물에서 나왔는지 미옥이가 뒤에서 물었다.

나는 미옥이를 돌아보았다. 그리고는 안타까움을 이야기했다.

내가 모든것을 말했을 때, 홍일동무가 공상의 씨앗을 묻어주던 그 일로부터 시작하여 밤사이의 고민을 다 털어놓았을 때 미옥이는 갑자기 나의 두어깨를 끌어안았다.

《네가 얼마나 신통한 생각을 했니, 응.》

어찌나도 세차게 어깨를 잡아흔들었던지 나는 고개가 막 건들거릴 지경이였다.

《떠들지 말어, 넌 구체적으로 듣지도 았구 환성부터 지르면서 야단이니? 아직은 공상인걸...》

《아니야. 이건 공상이 아니라 하나의 발명이다. 어디 보자. 밤새 그랬다는 그 종이가 어디 있니?》

나는 미옥이가 지내 흥분하여 설레발치는것이 우스워났다.

《어서 보렴, 여기 있다.》

나는 작업복주머니에 접어넣었던 종이장들을 꺼내여 미옥의 손에 들려주었다. 미옥이는 그것을 받아 들고 한동안 들여다보더니 나를 마주보며 부르짖었다.

《채순아, 이건 정말 대단한거다. 우리 이걸 꼭 성공하자. 응? 한번 큰 일을 제껴보자꾸나!》

미옥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피어났다. 미옥이는 청년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종이장을 허공중 높이 추켜들며 맑고 청청한 목소리로 소리를 쳤다.

《홍일동무! 동무들! 이리 좀 나오세요!》

청년들이 삽질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다.

《빨리요, 빨리!》

철벽철벽 물을 걷어차며 청년들이 밀려나왔다.

미옥이를 둘러싸고 그들이 한동안 중구난방으로 떠드는 사이에 나는 양수기를 멈추고 교대정비를 시작했다.

홍일동무가 내앞으로 다가왔다. 빙글거리는 얼굴, 걷어올린 맨발...

《고맙소, 채순동무!》

나는 민망하고 어리둥절하여 고개를 수그리고 말았다. 그것이 이처럼 세찬 반향에 부딪칠줄 그 어이 짐작이나 했던가!

어떻게 알았는지 오후에는 지휘부성원들과 기술자들이 몇명 현장으로 나왔다.

나는 미옥이가 미더웁게 생각되었다. 우정이란 역시 뜨거운 것이었다. 미옥이는 정말 머리가 채바퀴처럼 잘 돈다. 공상에 지나지 않는 그 착상을 번개같이 깨닫고 동무들을 불러 바람을 일군 미옥이, 지금은 또 공사지휘부에게까지 문제를 상정시키지 않았는가!

고맙구나. 미옥아 우리 영원히 그 우정 꽃피워나자!

4월 1일

홍일동무의 공상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창안은 결국 미옥이때문에 성공의 빛을 보게 되었다. 온 련대, 온 군의 관심과 강력한 기술집단의 노력으로 여러 번의 실패 끝에 오늘 새로운 기계가 탄생했다. 물과 함께 모래가 뿜어날 때 작업장은 온통 환희로 들끓었다.

동무들은 나를 《발명가》라고 높이 추어올렸다. 나는 그 말을 무심히 들어넘길수 없었다. 그 말이 나에게 궁지롭게 생각되는 까닭은 이제야말로 공사의 당당한 주인으로 된 듯한, 그래서 나도 이 땅, 이 벽찬 현실에 필요한 존재로 된 듯한 새로운 인식과 그 자부심때문이라.

4월 9일

미옥의 예측은 신통히도 들어맞았다.

잠판공사장에서 기초콘크리트치기가 끝나자 물을 푸는 작업이 필요없게 되었다. 그러자 거기에 립시로 놓았던 양수기는 가지물길에 새로 건설한 양수장으로 옮겨졌는데 문제는 그 양수기와 함께 나도 따라가지 않으면 안될 딱한 사정이 생긴 것이다. 양수기는 놓아도 거기에 운전공이 없다는 것이었다.

바로 어제저녁에 있는 일이다.

중대부에서 찾는다가에 나는 영문도 모르고 찾아가 있었다. 키낮은 책상앞에 앉아 무엇인가를 쓰고 있던 중대장동무가 웃으며 나를 맞이했다.

《동무한테 한가지 어려운 말을 하자고 불렀소. 갑자기 큰 공사를 하다나니 군에서 양수기운전공들을 미쳐 키워내질 못했소. 채순동무 그래 이 연백벌에서 아주 살고 싶은 생각은 없소?》

조용히 울렸으나 그 말은 내 가슴에 강하게 마쳐왔다.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다. 미옥이가 하던 말이 생각나고 한순간에 어머니며 오빠며 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다.

《허허, 대답을 못하는구만. 뭐 아주 떨어지란말은 못하겠소. 하지만 당분간만이라도 3호양수장을

좀 맡아주오. 이제 준공식을 하면 물을 퍼야 하겠는데 당장 운전공이 결렸소... 어찌겠소. 연백벌사람들을 좀 도와주오!》

중대장동무는 사정하듯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얼른 대답할수가 없었다. 당분간이란 말은 조건부로도 될수 없었다. 그 일을 맡으면 영영 여기에 눌러앉게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현실적으로 당장 양수공이 비어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자리를 떠날수 있겠는가? 나는 망설여졌다. 정작 결심을 하자니 마음이 떨렸다.

《대답하기 힘들면 가서 좀 생각해보오. 그리구 래일아침엔 나에게 말해주오. 그래야 다른 대책을 세울테니까...》

합숙에 돌아온 나는 온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배개 밑에서 정다운 고향의 파도소리며 만선을 알리는 배고동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어느때없이 더욱 고향이 그리워졌다. 이제는 어차피 고향에 돌아갈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가슴저리게 사무쳐오는 까닭이라.

사랑하는 고향, 정답고 그리운 내 집, 내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해도 나는 중대장동무의 말을 거절할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것이 현실의 요구이고 시대의 부름일진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마다할수 있겠는가.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은 미옥이와 헤어지게 되리라는 생각이었다. 어릴적부터 함께 뛰놀며 자란 사랑하는 나의 동무야! 그래 너와 나는 이렇게 헤어져야 한단말이냐? 아니야 헤어질수 없어!... 미옥이한테 말을 하자. 함께 떨어지자구... 자신을 숨긴 그 일을 두고 미옥이도 마음 괴로와하지 않았던가? 미옥이도 자기 량심을 깨끗이 씻고 함께 남도록 하자.

새벽녘에 나는 미옥이를 깨웠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갔다. 밖에는 달이 밝았다. 서쪽으로 기울어진 둥근 달을 바라보며 우리는 함속뜨락을 나눴다. 큰 길어구에서 나는 미옥이에게 모든것을 이야기했다.

미옥이는 표정이 굳어진듯 한동안 아무말없이 나를 지켜보더니 한숨부터 길게 내쉬었다.

《그것 봐라. 내가 뭐라던... 넌 그저 너무 솔직한게 탈이야!》

우리는 걷기를 그만두고 길옆의 녹록한 잔디우에 앉았다. 멀지 않은 야산기슭 그 어디선가 소쩍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벌에선 개구리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완연한 봄밤의 차분하고도 부드러운 대기속을 고요히 달빛이 누비고있다.

《아무래도 중대장동무한테 대답을 주어야겠어. 여기에 남겠다구...》

《아니, 넌 가만있어. 내가 중대장동무 만나겠어. 난 너와 헤어질수 없어!》

나는 미옥이를 돌아보았다. 미옥이는 끝내 결심을 한 것 같았다. 나는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아무렴 그가 끝까지 량심을 속일수 있겠는

가?… 그러나 다음순간 그의 입에서는 생판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난 너를 데리고가겠어. 난 여기에 떨어질수 없어. 우린 고향으로 가야 해. 거기서두 양수기가 우릴 기다리고있지 않니. 우리들의 손때묻은 그 정다운 기대가 말야!… 난 중대장동무에게 말하겠어. 널 잡아들 생각은 말라고…》

달빛에 어린 미옥의 동그스름한 얼굴에는 착잡한 심리가 그대로 내비쳐졌다.

《거기엔 우리말고도 기능공들이 많지 않니. 하지만 농촌엔 형편이 달라.》

《그럼 난 정말 여기에 남을 작정이냐?》

미옥이는 근심어린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

《난 어쩔수 없을것 같아. 우리가 무엇때문에 기술을 배웠니. 이런 재세나 부리라고 나라에서 우릴 키웠겠니? 난 중대장동무의 말을 듣고 처음엔 놀라왔지만 많은걸 생각했어. 로동계급이 농촌을 돕는 거야 응당한 일이 아니니? 우리가 여기에 남는건 시대의 요구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니?… 미옥아, 우리 함께 떨어지자꾸나.》

《난 건드리지 말어. 이건 운명적인거야. 그렇게 쉽사리 결심할 문제가 아니야!》

미옥이는 겁이 난듯 다급히 소리쳤다. 나는 그의 심중이 리해되면서도 가슴속이 답답해왔다. 무엇이든 말할수 없는 복잡한 심리가 내 가슴속을 어지럽게 했다. 내가 정말 너무 서두르는게 아닐까? 하지만 어떻게… 망설이며 진정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듯 미옥이가 또 입을 열었다.

《어쨌든 립시로 그 일을 맡으렴, 뒤일은 내가 처리할테니… 자, 이젠 그만 들어가자.》

미옥이는 움쭉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한참만에야 무겁게 몸을 일으켰다. 미옥의 의사를 따르는 수밖에 다른 길은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오늘 3호양수장으로 일을 나갔다.

4월 15일

오늘은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이다.

명절의 하루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 우리들은 진달래가 만발한 야산기슭에 올라 한것동안 야유회를 가졌다. 더러는 명절을 쇠러 집으로돌 갔지만 남은 동무들이 더 많았다. 너럭바위우에서는 구수한 고기국냄새를 풍기며 가마가 끓고 잔디밭에서는 춤추며 노래부르며 청년들이 들끓었다.

산에서 내려온후 나는 호실에 꼭 박혀 책을 읽었다. 호실에는 나혼자뿐이었다. 명절기분에 들뜬 동무들은 꽃놀이를 한다, 사진을 찍는다 하면서 아직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더러는 군문화회관으로 영화구경을 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명절을 쇠러 집으로 갔던 홍일동무가 나를 찾아왔다.

《채순동무, 좀 나가지 않겠소? 뭘 좀…》

홍일동무는 문가에 섰채로 말끝을 우물거리더니

영거주춤 허리를 굽히고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누가 들어설가봐 겁나하는 눈치였다. 그는 분명 무엇인가 중대한 문제를 안고있는것 같았다.

《난 오늘 이 책을 다 봐야 해요.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해도 되지 않아요?》

나는 그의 청을 거절하고싶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시간이 아까워서 이렇게 말했다.

홍일동무는 할수 없는듯 신을 벗고 온돌방으로 올라서더니 내결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안주머니에서 뚜껑이 빨간 수첩을 꺼내었다.

《그게 뭐가요?》

나는 홍일동무를 쳐다보았다. 그는 좀 망설이는 기색이더니 말없이 책상우에 수첩을 내려놓고는 쭈크리고 앉으며 한장한장 번지기 시작했다. 수첩장에는 깨알같이 박아쓴 글자들과 함께 울긋불긋하게 그린 그림들도 있었다.

《좀 방조를 받자구 찾아왔소. 이젠 우리 마을뒤 산에 있는 과수원이요. 이쪽은 배밭이구 여긴 사과밭이요. 아직은 수리화의 덕을 못입어본 땅이지. 작년말에 제대되어 집에 오니 어머니가 과일을 들여오는데 모두 주먹안에 들더라말이요. 가물어서 잘 안됐다는거요. 난 과일을 손에 들고 생각에 잠겼댔소. 농촌엔 아직 할일이 많구나 하교말이요.》

때마침 이 물길공사가 벌어지기에 난 선참으로 달려나왔소. 그래 날마다 꿈을 쫓소. 변천될 래일이요, 농촌테제가 실현된 그 앞날이 눈앞에 보이더라말이요. 난 내손으로 그 미래를 이 땅우에 꽃피우고싶었소. 허지만 욕망뿐이지 잘 모르겠소. 좀 도와주. 전번에두 나의 공상을 동무가 현실로 만들지 않았소! 난 그때 동무가 얼마나 고마웠던지 모르오!》

우물쭈물 하더니만 홍일동무는 병물북듯 단꺼번에 자기 생각을 쏟아놓았다. 조리없이 투박한 말마디들이었으나 거기에는 자기 고향에 대한 깊디깊은 애정이 숨배여있었고 농촌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그 미래를 향해 숨가빠 달리려는 강한 요구가 맥박치고있었다. 나는 그것을 느꼈다. 아는것 그를 돕고싶었다. 무슨 말이든 해주어야 하겠으나 얼른 대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옳은 방조를 주자면 미옥이와도 토론해보고 더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것 같았다. 나는 구릉진 밭들에 강우기들이 은하수마냥 물을 뿜어대는 환상같은 그림들과 층층 다락진 과수원들에 줄기줄기 뻗어오른 물길이며 물주머니들이 푸른색으로 장식된 그림들을 내려다보았다.

《수첩을 두고가면 안되겠나요?》

《나도 당장 도움을 받자는건 아니요.… 사실 난 연백별 토배기농사군의 아들이요. 동무도 알고있겠지? 어버이수령님께서 해방후 남연백농민들에게 물을 보내주신 얘기말이요! 그때 우리 할아버지도 수령님께 올릴 그 진정서를 품고 38선을 넘었던 대표의 한사람이었소. …그 할아버지가 지금 운하처럼 넓게 뻗어간 새 물길을 보신다면 얼마나 놀라와

하지겠소. 나는 늘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일하곤 했소. 할아버지가 매일처럼 우리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는것 같더라말이요. 난 할아버지한테 모든걸 아뢰이고싶었구 우리가 개척할 앞날의 세상까지 다 보여드리고싶었소. 그래서 이런 궁리를 해봤던 거요. 좀 방조를 주오!》

홍일동무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문을 열고나가버렸다. 나는 팽팽해졌던 풍선에서 갑자기 바람이 새나간듯한 허전함을 느끼며 문쪽을 바라보았다. 가슴속이 울렁거렸다. 어찌하여 홍일동무가 그토록 이 땅을 사랑하는지, 어찌하여 그렇게도 물길공사에 정열을 바치는지 그 까닭이 이해되었다. 아, 그런 동무였구나. 할아버지는 또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그때는 38선이 가로놓여 이 남연백벌이 북에 있는 구암저수지와 례의저수지물을 받을수가 없었다지. 물을 달라는 남연백농민들의 그 하소어린 편지를 받아보시고 어버이수령님께서 파괴된 저수지들을 복구하도록 몸소 국가적인 조치를 취해주셨을 때, 물문을 열어 마침내 남연백벌로 은정의 생명수를 보내주시였을 때 그 할아버지는 얼마나 크나큰 감격에 눈물지었으랴. ...온 벌이 펼쳐나 장군님만세를 불렀다는 그날의 이야기가 현실처럼 눈앞에 그려진다. 그 할아버지에 그 손자... 얼마나 좋은 동무인가. 이런 동무를 돕는 일에 무엇을 아끼겠는 가!

나는 수첩을 번지면서 오랜 시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어찌하랴. 맨 마지막장에서 나는 그만 심장이 푹 멎을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숨이 킁 막혔다.

《채순동무, 나를 욱하지 말아주오. 난 마음속에 늘 동무의 심장을 간직하고싶소. 정말이요. 동무와 심장을 합친다면 난 백배로 힘이 날것 같소. ...미안하오만 한가지 꼭 묻고싶소. 여기에 남아서 영원히 함께 일해볼 생각은 없는지...》

나는 얼없이 수첩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다가 펼쳐오는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눈을 꼭 감았다. 그가 찾아온 목적이 바로 이때문이 아닐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나는 눈을 번쩍뜨고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는 단순히 나를 사랑의 끈으로 결박하려는것은 아니여다. 그의 지향세계는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가!

가슴속이 훌훌 달고 머리가 어질어질해졌다. 나는 방안에 있을수가 없었다. 밖으로 나갔다.

따스한 봄벌이 대지를 무르녹이고있다. 아지랑이 피는 드넓은 벌에서는 트랙터들이 편대를 지어논을 갈고 파아랗게 높은 하늘에서는 종달새가 우짖는다.

나는 물길뚝을 따라 한교천 기슭으로 나갔다. 물길뚝에는 어느덧 새로 심은 잔디풀이 파릇파릇 돋아나고있었다. 나는 강물에 들어앉은 거대한 콩크리트구조물앞에서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사흘전까

지 우리는 밤낮없는 전투를 벌려 콩크리트치기를 마감지었다. 강밑으로 또하나의 강이 가로질러 흐르게 되는 이 잠판공사가 끝났으니 물길은 벌써 완공된 셈이 아닌가.

문득 고향의 포구가 눈앞에 그려지고 정다운 배고동소리가 들려오는듯싶다. 그 소리는 점차 트랙터발동소리로 바뀌고 생생한 농촌현실이 그대로 눈앞에 펼쳐진다. 나는 부모들이 터전을 닦고 현대적으로 일떠세운 아름다운 부두가에서 일해왔다. 그런데 여기 농촌에는 아직도 얼마나 할 일이 많은가. 홍일동무는 그 많은 일들을 제손으로 해제길 결심이라지... 나에게서 방조를 바라는 그, 사랑을 바라는 그... 어째선지 이것이 그의 개인적요구라고만 생각되지 않았다. 농촌현실이 나로 하여금 여기에 남을것을 바라지 않는가! 홍일동무, 남겠어요! 아는것 방조를 주겠어요. 하지만 동무가 바라는 그 사랑의 요구에는 아직 대답을 줄수 없군요!... 그러나 어느 사이에 벌써 나의 심장은 작은 새처럼 홍일동무의 가슴속으로 날아가 자리잡는것이였다. 나는 거기가 한없이 따스하고 포근한 사람의 보금자리임을 느꼈다.

4월 17일

점심시간에 나는 미옥이를 합숙뒤 잔디밭으로 이끌고갔다. 그리고는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홍일동무의 수첩을 보이며 사연을 이야기했다.

미옥이는 나의 말을 듣고나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 홍일동무한테 대답을 주었니?》

《아직은... 하지만 난 어쩐지 홍일동무한테로 마음이 끌리는구나.》

나는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미옥이는 갑자기 눈이 동그해졌다.

《알만하다. 네가 왜 여기에 떨어질 생각을 했는지... 홍일동무가 아니라면 넌 그런 결심을 못했을 거다. 사랑이란 참... 어쨌든 넌 좋은 동물 만났어.》

미옥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허나 그 미소에는 수공의 빛도, 감탄도 아닌 그 어떤 상실의 그늘이 비껴있었다. 무언가 동요를 안고 지치도록 씨름을 한듯한 얼굴이였다. 요즘 미옥이는 별로 말이 없고 침울해있었다. 명랑하던 그가 이처럼 조용해진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겨왔다. 공사가 끝나가니 나와 헤어질 일이 난감해져서 그러리라 짐작했지만 그것때문만도 아닌것 같았다. 무엇을 고민하고있는게 분명했다. 큰 눈은 반쯤 감긴채 긴 살눈썹에 가리워졌고 얇은 입술은 꼭 다물려졌다.

나는 잔디위에 비스듬히 모로 누우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난 결코 사랑때문에 떨어지자는건 아니야.》

《물론 그런줄은 알아. 난 그저 네가 부러워서 그

른다. 난 실패했어. 영민동문 여길 떠날수 없다는구나.》

미옥이는 가슴이 폭 꺼지도록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비로소 그의 고민세계가 짐작되었다. 나는 미옥이가 중대장동무를 별로 서먹서먹하게 대하는것을 몇번 보기는 했지만 그들의 사랑에 이처럼 금이 간줄은 모르고있었다. 이것은 두사람의 가슴에 영원한 상처로 남을것이였다. 그 아픈 상처를 아몰게 할수는 없을가? 문제는 미옥이한테 걸려있지 않는가? 미옥이가 여기에 떨어지면 모든것이 해결될게 아닌가?

《미옥아, 이제라도 네가 결심을 달리하는게 어떨니? 난 네가 여기에 남는게 옳다고 생각해. 나와 함께 떨어지자꾸나, 응? 미옥아!》

나는 사정하듯, 달래이듯 말했다.

《아니야, 난 가야 해. 난 사랑때문에 여기에 남을 생각은 없어.》

《넌 왜 그렇게만 생각하니? 이곳 현실이 너를 부르는 그 목소리를 왜 듣지 못하니? 넌 기능높은 양수기운전공이야. 지금 여기서선 우리같은 기능공들을 찾고있거든. 그런데 넌 끝내 자신을 숨기고 돌아가야만 하겠니? 고향에 가면 뭐 네마미 편해질것 같은가말야! 난 지금이라도 네가 량심을 털어놓고 중대장동무한테 모든걸 말하는게 좋을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미옥이는 거듭 머리를 가로저었다.

《이젠 늦었어. 아마 내가 여기에 남는다 해도 그 동문 다시는 날 돌아보지 않을거야.》

미옥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그의 눈에 그렇그런 눈물이 고인것을 보았다. 아마도 그들사이에 심각한 론의가 있었던 모양이였다.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는데 미옥이는 슬그머니 일어서서 다박솔이 우거진 야산기슭으로 달아나버렸다. 그의 뒤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눈길은 흐려왔다. 그가 측은해보였다. 그는 결국 사랑마저 잃지 않았는가? 우정도 사랑도 다 잃고 지금 그에게 남은것은 무엇인가? 남은것이란 오직 고향으로 가려는 고집스러운 그 한생각뿐이라. 이제에는 나도 그가 고향으로 가는 길을 막을수 없다고 생각되었다.

그러나 미옥이는 자신을 심중히 검토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고향으로 가는것이 또한 그에게는 공통일것이였다. 여기에 떨어지는것이 두려워 자기기능을 숨기고 량심을 저바린 그를 고향인들 반겨맞아줄것인가?... 문득 중학시절의 일이 떠오른다. 그때 미옥이는 웅변무대에서 열변을 토했었지. ...우리모두는 비옥한 조국의 토양에 뿌려진 한알한알의 씨앗이라고, 씨앗은 작지만 땅에 뿌리내리면 줄기로 뻗고 잎들이 피여 마지막엔 천만알의 이삭이 된다고. 그 이삭들은 키워준 땅이 고마와 감사드리며 고개를 숙인다고... 하지만 너는 씨앗이 아니구나. 너는 지금 푸른 잎 펼칠 춘천시절이지만 한갓 시대

의 락업으로 지고말리라. 바람결에 똥똥 뜨고 이곳저곳 정처없이 날리다가 그저 시궁창에 묻히고말리라. 그때는 이미 끝장이 아니냐. 가거라, 이걸 바란다면... 너는 그럼 무엇으로 너를 키워준 조국에 보답을 하려느냐? 보답은 커녕 너는 시대가 주는 임무를 저바리고 도망친것으로해서 일생 마음속에 후회를 안고살것이다.

4월 26일

드디어 미옥이가 떠나가는 날이 왔다.

나는 새벽부터 미옥이의 짐을 꾸리느라고 분주히 돌아쳤다. 옷가지들은 차곡차곡 개어서 트렁크에 넣었고 소지품이나 먹을것들은 배낭에 가득 채워넣었다. 동무들의 배웅을 받으며 역으로 나가는 미옥의 얼굴은 밝지 못했다. 눈에는 노상 눈물이 글썽이였고 자주 코물이 떨어졌다. 합숙마당을 나서는데 반시간도 더 걸리였다.

《자, 그만 떠나자꾸나.》

나는 배낭을 쥐고 한손에 트렁크까지 들고는 미옥이를 보냈다. 봄날의 해는 어느덧 동녘 지평선위로 한뼘이나 실히 떠올랐다. 역까지는 그닥 멀지 않았으나 시간이 빠듯했다.

나는 하는수없이 먼저 마당을 벗어났다.

큰길에 나섰을 때에야 미옥이는 맥폴린 걸음새로 천천히 따라왔다. 나는 잠시 서서 그를 기다리였다.

《트렁크 이리 주렴.》

미옥이는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어서 따라오거나 하렴. 이러다가 기차를 놓치겠구나.》

나는 앞장서서 씨엥씨엥 걸어갔다. 미옥이는 끝내 따라와서 트렁크를 앓아들었다. 우리들은 나란히 서서 걸었다. 나는 미옥이의 기분을 전환시킬 작정으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옥아, 가거든 우리 어머니랑 오빠한테 잘 말해주어. 난 여기 남을수밖에 없었다구... 참 고향의 파도소리가 듣고싶구나. 농사일이 바쁘지 않을 때 한번 가겠으니 이 팔에 대해선 아무 걱정말란다고 꼭 말해줘.》

미옥이는 묵묵히 걸기만했다. 내 말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가 점점 뒤떨어졌다. 그러더니 아예 발걸음을 멈추고말았다. 미옥이는 돌아서서 멀리 합숙쪽을 바라보는것이였다. 나는 조바심이 나서 그에게 소리를 쳤다.

《애, 정말 차시간 늦겠다. 빨리 걷자꾸나.》

그 말에 미옥이는 트렁크를 내려놓더니 풀썩 주저앉았다. 나는 하는수 없이 그에게로 다가갔다.

《너 어찌자구 이러니? 기왕 떠나는 길을...》

나는 안타까이 짜증섞인 목소리로 그를 나무라였다.

《못가겠다. 채순아. 제발 날 좀 떠나지 못하게 해

주렴... 넌 왜 끝까지 날 붙잡지 았구 이처럼 쫓기만 하니, 응? ...넌 우정이 식었어. 우정이 뜨겁다면 왜 아픈 말로라도 날 타일러주지 못했니. 응 채순아!...》

미옥이는 더 말을 잊지 못하고 아래입술을 꼭 깨물었다. 막 울음이 터지려는 모양이었다. 그의 눈에서는 철철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가슴속이 후두두 떨리는것을 느꼈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라 내 가슴을 치는 채찍이었다. 그 충격에 나는 소스라치듯 놀랐다. 정말이지 우정을 멀리한건 그가 아니라 내 자신이라고 생각되었다. 다름아닌 내가 미옥이를 이 모양으로 만든것 같았다. 나는 그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기를 저어했고 그의 고집을 돌려세울수 없노라 믿고 지레 물러나지 않았는가. 내가 왜 이처럼 매정해졌을까? 내가 무슨 그의 벗이란말인가? 용서해라, 미옥아! ...나는 마음속으로 빌며 두팔을 벌려 미옥이를 와락 끌어안았다.

《미옥아! 고맙다. 고마와... 네 스스로 남을 생각을 했으니... 난 그것도 모르고...》

《채순아!》

미옥이는 끝내 소리내여 울음을 터쳤다. 나는 그의 젖은 볼을 마구 비볐다.

《채순아, 날 옥해주렴. 이제라도 아프게 내뺨을 때려주렴.》

미옥이는 흐느끼며 부르짖었다.

《그래 때려주마. 어디 좀 보자. 네 얼굴을...》 나는 미옥의 볼에서 얼굴을 때고는 눈물범벅이 된 그를 찬찬히 바라보았다. 그의 두볼은 살이 쏙 빠져 상큼해졌다. 얼마나 속을 태웠으면 그 명랑하고 예쁘던 얼굴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나는 눈앞이 뿌연게 흐려왔으나 짐짓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얼굴이 이제 무슨 꼴이나? 눈물을 닦아라. 그리구 이제 웃어보자꾸나, 응? ...》

《그래... 난 웃고싶었어, 우정도 사랑도 다 되찾고싶었어. 시대앞에 뿔뿔이 살고싶었어!...》

웃으려 하나 웃음이 되지 않는 모양 미옥이는 입술을 떨며 흐느끼기만 했다.

나는 그에게서 물러났다. 그리고는 트렁크를 들어 그의 손에 들려주며 속삭이듯 말했다.

《자, 일어나렴. 이제 그만 합숙으로 들어가자. 동무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니. 어서 가자꾸나. 그리구 언제든지 시대의 요구속에서 너와 나의 우정을 꽃피우자꾸나. 미옥아, 우린 영원히 헤어지지 말자!》

《응, 고맙다. 채순아!》

미옥이는 트렁크를 들고 일어서며 방긋 웃었다.

멀리서 기적소리가 들려왔다. 렬차가 역에 들어서는 모양이었다.

하얀 오리떼 하얀 두루미떼

오필천

하늘도 벌도 시누런 한빛인데
하얀 오리떼 하얀 두루미떼
하얀 오리떼는 논둑타고 내리는데
하얀 두루미떼는 논둑타고 오르오

방울같이 짙랑짙랑 잘 여문 벼알들
한여름 가꾼 벌을 오리떼는 떠나는데
줄기줄기 휘늘어져 벼바다 설렁대는
풍년벌로 두루미떼 찾아오오

두렁길에 꼬리물고 내리고 오르고
논머리에 떼지어 떠나며 찾아오는
흰모자에 흰조끼 입은 교대자들
아, 하얀 오리떼 하얀 두루미떼

긴 주둥이를 이리저리 휘저으며
오리들은 무엇을 속삭일가
긴목을 이리저리 빼여들고

두루미는 무엇을 새겨들을까

기계농사 과학농사 흥겨운 벌에
오리를 길러 풀도 잡고 벌레도 잡게 한
그 논벌에 찾아온 풍년
풍년벌을 오리들은 인제하는걸가

레년에 없었던 이 풍년 좋아
벼이삭 휘늘어져 춤추는 대풍을
노래에 담겠다고 춤에 담겠다고
풍년벌을 두루미는 인제받는걸가

볼수록 희한한 풍년벌의
처음보는 새 모습
주체농법 나날이 꽃이 피는
농장벌의 만풍년 새 풍경이라오

아, 하얀 오리떼 하얀 두루미떼

지식인문제의 빛나는 해결에 대한 예술적형상화

윤종성

사람들의 가슴을 격동시킨 조선중앙통신사 5국2세포 당원들과 조선문학창작사 작가들에게 보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서한은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의 기초에 놓여있는 심원한 사상과 숭고한 정신을 뚜렷이 보여준다. 믿음과 사랑에 기초한 정책이 대중의 심장을 틀어잡고 위대한 생활력을 나타낸것은 당연한것이다.

1

원래 지식인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이 일정하게 깊어져 육체로동과 정신로동이 갈라지면서 생겨난 하나의 사회계층이다. 계급사회가 교체됨에 따라 지식인의 구성도 달라졌다.

지식인은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계급에게 복무하여왔다. 착취계급사회에서 지식인은 계급적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할것을 요구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배계급에게 복무하지만 그들의 대부분은 지배계급의 억압과 천대를 받으면서 고용로동을 강요당한다. 특히 식민지 나라 지식인들은 가혹한 민족적 억압과 멸시를 받기때문에 나라의 자주독립을 갈망하며 반제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혁명성을 가지게 된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투쟁을 먼저 시작한것도 지식인이였으며 처음으로 맑스-레닌주의를 보급하고 노동자, 농민들을 선진사상으로 무장시켜 해방투쟁에 나서게 하는데서도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혁명을 올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게 된 그때로부터 조선의 민족적광명을 가진 지식인들은 참다운 애국의 길, 혁명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한 구성부분으로서 자기의 역사적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올수 있었던것이다.

조국광복의 성업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각계각층의 모든 인민들과 함께 지식인들을 그 넓은 한 품에 안아 새 조국 건설의 영광스러운 초소에 세워주시으로써 애국적인 우리 지식인들은 조선혁명을 떠맡 주체의 한 성원으로서는 영광에 찬 로정을 걸어올수 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투철한 혁명리념, 원대한 구상,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근로인민출신의 새 지식인대군이 육성되었으며 이 새 지식인대군은 사회

주의혁명과 건설의 장엄한 투쟁속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지식인으로서의 역할을 빛나게 수행해나가고있다.

그리하여 당의 품속에서 교양육성된 우리 지식인들은 조국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확고부동한 혁명적수령관을 세우고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을 떠맡어나가고있다.

지식인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하는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것은 지난날의 력사만이 아니라 오늘 의 국제정세가 웅변으로 증명하고있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첫시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가장 정당한 인테리정책을 세우고 시종일관 철저하게 관철해나감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지식인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참으로 인테리를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으로 보고 그들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며 인테리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인테리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식인문제가 빛나게 해결되었다.

그것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전체 노동자, 농민, 지식인이 하나의 사회정치적생명체를 이루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전진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테리의 혁명화, 로동계급화와 함께 온 사회의 인테리화구호를 들고 력사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장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문학은 생활의 반영이다. 지식인문제의 빛나는 해결, 이 위대한 현실 역시 문학에 반영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와 주체의 문예리론에 의하여 우리 문학은 혁명화된 지식인의 전형을 훌륭히 형상하고있다.

2

우리 문학에서 지식인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상되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데

지식인의 지위와 역할을 높은 수준에서 새롭게 형상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심화될수록 혁명의 주체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지식인의 역할이 더욱 높아지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적현상을 문학이 정당하게 반영한것이라고 할것이다.

해방후 우리 문학에서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첫 작품은 윤세중의 장편소설 《시련속에서》(1957)라고 할수 있다. 이 소설은 전후복구건설시기를 력사적배경으로 하고 미제의 야수적폭격으로 말미암아 무참히 파괴된 황해철소 용광로채건을 위한 우리 인민의 노력투쟁을 반영한 작품으로서 대학교원이던 야금기사 림태운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고있다.

소설의 주인공은 로동계급출신의 새 지식인으로서 전후복구건설의 어려운 과제가 제기되자 높은 사상적각오를 가지고 당의 호소따라 학위논문집필을 중단하고 생산현장에 진출하였다.

그의 앞에는 자재와 기술의 부족, 적대분자들의 암해책동, 일부 책임일군들의 공명주의, 보수주의 그리고 일부 로동자들의 기술신비주의를 비롯한 애로와 난관들이 제기되었다. 그는 나약성으로 인하여 일부 사람들의 시비와 애로를 극복 못하고 공사를 포기해버리려고 하였다. 그럴 때마다 그는 당의 고마운 은덕을 생각하고 량심의 가책을 받으며 당조직에 의거하여 용광로 확장개건의 어려운 과제를 완수한다.

이 소설에서는 지식인 주인공이 난관앞에서 약간의 동요를 보이기는 하나 로동계급성과 지식인의 사명에 대한 자각이 높은 사람이며 새 지식인인것만큼 운명에서 포격도, 성격의 나약성도, 리기주의도 없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 높은 인물로 묘사되어있다. 이것은 작가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나라에서의 새 지식인의 성격적특징을 옳게 파악하고 묘사한 결과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보내바와 같이 지식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문학작품이 50년대 후반기에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지식인문제가 본격적으로 취급되기 시작한것은 70년대 후반기부터이다. 바로 이 시기에 와서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세인을 놀래운 사회주의건설성과들이 넓은 화폭으로 문학작품들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대표적인 작품으로서는 장편소설 《평양시간》(최학수, 1976), 중편소설 《강물은 한곡으로》(주유훈, 1978), 장편소설 《생명수》(변희근, 1978), 장편소설 《령마루》(임단웅, 1980),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변희근, 1984) 등을 들수 있다.

중편소설 《강물은 한곡으로》와 장편소설 《령마루》에는 지식인이 중요한 인물로 등장한다. 《강물은 한곡으로》에 등장하는 주인공 김연희와 그의 남편 리창민은 다 지식인이며 기술자이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물론 지식인가정에서 사회와 시대에

맞게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하는가, 그 가운데서도 부부간의 관계가 어떤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고 생활을 묘사하였으며 부부간에서도 응당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특히 남편이 안해를 혁명과업을 같이 수행하는 동지로 보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상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주제사상적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기술자로서의 리창민의 주관주의와 보수주의를 비판하고 주인공 김연희가 가정부인으로서 가정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과 함께 기술혁신에서도 자기 몫을 감당해나가는 천리마시대의 긍정적인물로 묘사되어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는 아직 지식인의 사명과 관련되는 근본문제가 제기되어있지 않다.

장편소설 《평양시간》에 등장하는 지식인 문화린은 주인공은 아니지만 《평양속도》를 창조함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인물이다. 그렇기때문에 작가는 로동자인 주인공 리상철과 함께 문화린의 인물형상, 성격적특징을 밝히는데 커다란 힘을 기울였다.

문화린은 일제시기에 공부한 오랜 지식인으로서 민족적량심과 인간적정실성을 가진 사람이지만 보수주의와 소극성, 낡은 도덕관념 등 낡은 사상잔재를 다분히 가지고있는 설계가이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친어버이사랑, 우리 당의 정당한 인테리정책에 의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벽란 현실속에서 낡은 사상을 극복하고 천리마속도, 평양속도를 창조하는 영광스러운 혁신자의 대렬에 들어서게 된다.

여기에서 작가는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의 정당성을 보여준 동시에 오랜 지식인의 혁명화과정, 혁명의 주체로서의 자각과정을 보여준것이다. 이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오랜 지식인이 새 삶의 길을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갈수 있는 사상적기초, 사회제도적바탕이며 지식인자신으로서의 량심과 성실성인것이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에 등장하는 기사장 림영택과 기사 박정호는 당조직의 적극적인 교양과 방조에 의하여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는 지식인들이다. 기사장 림영택은 평기사로 있을 때에는 적극적이고 창발적인 의견도 제기한 사람이였으나 사업범위가 넓어지고 사업경험이 많아짐에 따라 점차 경험주의, 보신주의에 빠지게 되어 당조직과 군중의 요구가 높아지면 적극성을 보이다가도 난관이 조성되거나 무슨 구실이 생기면 뒤로 물러서는, 일관성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되어간다. 지배인이나 당위원장에게 의거하여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심리가 그에게서는 항상 작용한다. 그는 결국 새 용광로 확장개건이 불가피한것으로 되고 성공이 내다보일 때에야 발벗고나선다.

림영택의 이러한 성격은 주인공다운 림장과 태도가 확립되어있지 않는것과 관련된다. 그도 용광로개건확장에서 결과적으로는 일정한 기여를 한것으로 되었으며 실천투쟁속에서 일정하게 혁명화된것으

로 되었는데 그가 사업과 생활의 참다운 일꾼으로 되었으나 할 때에는 아직도 믿음이 덜가는 인물로 남아있는것이다. 작가는 그의 사상정신세계에서 일어난 변화를 마지막까지 파고들어 형상하지 못하였다.

박정호기사는 림영택과는 다른 형의 지식인이다. 그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에 본의아니게 적강점지역에 떨어져 적들에게 다소나마 복무하는 죄과를 범했을뿐아니라 3천마력전동기기조공사에서 오작사고를 내어 권리정지의 책벌을 받은 사람이다. 따라서 보신적이며 소극적으로 행동할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있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용광로개건확장공사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중요인 설계를 만들어 놓고도 내놓지 못하는것이다. 그러나 이 인물은 당과 수령에게 충실하고 사회주의건설에 이바지하려는 욕망을 가지고있으며 기술자의 량심, 인간적인 성실성을 지니고있는것이다. 그의 이 욕망과 성실성이 당일군인 신철민에 의하여 빛을 내게 된다. 간단히 말하여 박정호는 지식인적나약성으로 하여 죄를 짓고 기술과 책임성의 부족으로해서 사고를 친 사람으로서 사업과 생활에서 능동성을 잃은 지식인인것이다. 그날그날을 보람없이 살아가며 조직에서 이끌어주고 인정해주기전에는 자기의 지혜를 발휘할수도, 자기의 충성심을 바칠수도 없는 나약한 지식인이다. 수동적자세에 있는 지식인, 이는 결국 생활에서,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다운 인간일수 없다. 과연 림영택이나 박정호같은 지식인이 우리 공업을 과학기술적으로 뒤받침하고있는 확고한 기둥으로 될것인가? 보다 주인다운 자각이 높은 지식인들이 있기때문에 우리 생활의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된것이다. 그러한 믿음직한 지식인의 전형을 묘사하여야 할것이다.

3

80년대의 현실을 반영한 지식인형상작품들은 그 전시기와는 다른 지식인의 새로운 성격을 보여주고 있으며 새로운 각도에서 지식인문제를 제기하고있다.

중편소설 《생활의 언덕》(김교섭, 1984), 중편소설 《해빛》(박찬은, 1985), 장편소설 《전변》(김길환, 1988),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권정웅, 1988)은 지식인을 형상한 80년대의 대표적인 작품들이라고 할수 있다.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력사를 그린 작품으로서 지식인이 주인공으로 되어있는 작품은 아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조국건설의 초창기에 혁명의 중요한 밑천인 기술인재를 어떻게 키우시였는가 하는데 초점이 놓인 작품이며 우리 당의 인테리정책이 예술적인 화폭으로 전개되어있는 작품이다.

소설에는 무엇보다도 오랜 지식인의 포섭, 개조

에서 이룩된 빛나는 성과가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져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류형의 오랜 지식인들이 등장한다. 안동국과 같은 사람은 세계적으로도 알려진 물리학자로서 민족적자존심, 애국적감정이 강하며 제나름의 학자적신조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확고한 세계관을 가지지 못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암둔한 학자였다. 그는 숭미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정치와 상관없는 과학의 세계가 존재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이다. 그는 평양에 대학을 창설해야 할 필요성과 의의를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미군이 강점한 서울에 나가 보고서야 자기 생각의 어리석음을 깨달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예지와 현명성에 깊이 감복하고 새조국 건설에 자기의 지식과 애국심을 바치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

기술로써 일제에게 복무하여 생계를 유지해온 양촌만은 자기의 존재가 근로인민대중, 공산주의와는 량립할수 없는것으로 단정하고 미군이 강점한 서울로 달아났으나 공산주의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일뿐아니라 가장 인간애가 풍부한 인간다운 인간이며 공산주의자들이 건설하는 사회야말로 참다운 조국이라는 진리, 인민을 위하여, 인민의 조국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이야말로 참다운 삶의 보람이라는 진리를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를 둘러싸고있던 완고하고도 두꺼운 낡은 사상의 오물층이 허물어져나가는것이다. 그는 자기의 기술과 량심으로 만들어낸 강철을 가지고 자기 죄를 씻고 인민의 신임을 쟁취하며 영광의 혁명대에 들어서게 된다.

소설에는 이미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건국의 책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지휘성원으로 활동하고있는 최준결을 비롯한 오랜 지식인들,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수령님의 위촉장을 받아안고 자기의 운명을 진정한 조국, 인민의 운명과 련결시킨 수많은 지식인들이 묘사되어있다.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형상은 강병철이다. 그는 원진범과 대비적으로 묘사되어있는데 원진범은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따르는 마음은 가지고있었으나 그것이 신념으로 굳어져있지 못했기때문에 부닥친 난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락오자가 되었다.

그러나 강병철은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과 현명성, 인간성에 감복하여 이 위인을 모시고 받들어가는 길에서만 참다운 인생도, 조국도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졌기때문에 절망적인 난관앞에서도 지조를 버리지 않았으며 마침내 혁명의 주체로서의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것이다.

강병철에게 있어서 중요한것은 그가 민족적량심, 애국적감정을 가지고있는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문제로 된것은 물질생활의 만족이 아니라 정신적만족, 자기의 애국심, 과학자의 량심을 바칠수 있는 위인을 찾는것, 위대한 사업을 찾는것이였다. 그는 고향이 남조선이지만 자발적으로 해방된 북조선에

은 사람이다. 일본, 만주, 미군강점하의 남조선을 두루 편답하면서도 자기를 바칠수 있는 위인도, 사업도 찾지 못했다. 북조선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서야 모든것을 찾았던것이다. 이 발견은 그에게 있어서 환희였으며 자기의 열정을 송두리채 불태워 헌신할 신성한 정신적기둥의 발견이었던것이다. 그의 이 애국자로서의, 과학자로서의 량심이 얼마나 뜨겁고 확고한것이었던가 하는것은 해방직후의 복잡하였던 사회적환경과 미제의 책동만이 아니라 극악한 종파사대주의자들의 범죄적인 책동이 그의 머리에 들썩워졌을 때에도 그가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않은 거기에서도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강병철의 형상을 통해서 방국노의 설음을 안고 공부를 한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의 민족적특성, 그들이 겪은 민족적멸시의 역사, 해방후에도 그들이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진리탐구의 험난한 가시덤불길이 어떤것이었던가를 절감하게 된다. 이것은 결코 작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지식인운명의 우여곡절이 아니다. 이것은 죄다 역사적 진실인것이다. 그러나 조선의 참다운 민족지식인은 이 모든 난관을 이겨냈으며 자기가 서야 할 몇몇한 자리를 찾았던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진리의 길을 찾는데서 성공할수 있는 요인이 결코 그들의 량심, 민족적특성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수령의 현명한 정도가 없었더라면 그들의 애국충정, 고귀한 지식은 영영 역사의 망각속에 파묻혀버릴수도 있었던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해방직후에 있는 역사적사실에 기초하여 근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와서 예술적으로 재현한 이 소설을 보고 감회가 새로울뿐아니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위대성과 현명성을 새로운 안목에서 깊이깊이 체득하게 되는것이다. 우리들자신이 어버이수령님의 품속에서 이 반세기동안에 얼마나 높이 성장하였는가! 해방직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베푸신 인테리정책의 의의를 그때에는 미처 다 깨닫지 못했으나 성장한 오늘의 우리에게서는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하게 안겨오는것인가!

이 소설에는 오랜 지식인들에 대한 포섭, 개조과정만이 묘사되어있는것이 아니라 100만의 지식인대군을 내다보는 위대한 수령님의 새 지식인육성을 위한 원대한 구상이 작품의 핵을 이루고있는것이다.

빛나는 아침, 즉 새 조국 건설의 첫아침은 길가의 조약돌처럼 굴고있던 조선의 지식인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정성들어 가꾸어서 그들이 무수한 새 지식인대군을 양성해내도록 종합대학을 창립하신것으로 밝아왔으니 그것은 정녕 미래가 창창한 빛나는 아침이 아닐수 없는것이다.

《빛나는 아침》에 등장하는 강병철을 비롯한 오랜 지식인들의 혁명화문제는 이미 해결된지 오래며 역사적과거로 되였다. 그러나 조국통일의 위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이

것은 현실적의의가 있는 절박한 문제이며 자라난 새 지식인의 견지에서 보더라도 교훈적의의는 헤아릴수 없이 큰것이다.

중편소설 《해빛》에 등장하는 주인공 안과과장 백형진은 환자를 친형제처럼 대해야 한다는 자세와 립장으로 치료사업을 하며 그 주위에 있는 의사, 간호원들을 교양한다. 그는 이러한 진실한 정성으로 환자들에게 적용할 새로 만든 주사약을 먼저 자기 눈에 실험해보며 안해와 아들의 눈에서 구결막을 떼내어 환자에게 이식수술을 해준다. 이러한 헌신성, 열정은 천리마기수들에게서도 찾아볼수 있는 긍정적인 성품인것이다. 이러한 성품이 보수적이며 리기적인 현상과 부딪쳐서 투쟁이 일어날것이며 결과 긍정이 승리하는것으로 묘사하는것도 이미 경험이 있는 묘사수법이다.

그러나 이 소설에는 이전의 소설과는 다른 점이 있다. 그 다른 점은 주인공이 지식인으로서 주동적으로 활동하고있다는 점이며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평가를 받기 위한 욕망에서가 아니라 지식인의 사명감으로부터 응당 해야 할 일을 량심적으로 성실하게 해나가는 점이다. 간단히 말하여 숨은 영웅들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헌신적복무정신과 소박한 진정, 완강한 실천력이 특징적이다.

그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리기적인 현상 즉 자기의 명예와 관련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거나 개인적인 허영심, 안락을 위해 사회적의무를 희생시키는 인간들에게서 오염되지 않으며 묵묵히 자기가 할바를 해나가는것이다.

이와 달리 작가는 종래의 긍정인물과는 다른 숨은 영웅의 성격적특질을 자기 주인공의 성격에 구현하려고 하였다. 숨은 영웅들이 70년대 후반기 지식인들속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그것이 영화예술에 반영되었고 소설에도 묘사되기 시작하였던것이다. 이것은 문학이 지식인형상에서 새로운 경지에 들어섰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다시 말하여 지식인형상에서 지난날의 죄과와 과오로 해서 모태기는 인간, 지식인적나약성, 보신주의와 소극성으로써 침체상태에 있던 인간, 공명주의, 리기주의로 해서 과학기술발전을 저애하던 인간들을 묘사하던것으로부터 평가와는 상관없이 주인공은 립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소문은 내지 않으면서 큰일을 해제끼는 지식인을 묘사하는데로 우리 문학이 들어선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중편소설 《생활의 언덕》과 장편소설 《전변》에 더욱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생활의 언덕》에는 등장인물이 거의 다 지식인들이며 가정부인인 기사 정춘애가 주인공이다. 정춘애는 지질탐사기사인 남편이 늘 집을 떠나있어 단란한 가정분위기가 없는데서 불행을 느끼는데 동창생인 임영순은 늘 남편과 같이 있어서 출퇴근도 같이하는데서 행복을 느낀다.

가정적행복, 일반적으로 인간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

고 부부간의 세속적인 사랑보다 동지적우정이 중요하며 동지적우정은 아버지수령님께서 바라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부부가 함께 나설 때만이 생겨나고 더욱 깊어진다는 해답을 주고있다.

작가는 이렇게 사상주체적과제를 제기하고 그러면 지식인에게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데로 묘사의 방향을 돌리고 그 바라시는 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데로 파고들었다.

수령님께서 바라시는것은 지식인으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하는것이다.

주인공 정춘애도, 그의 동창생인 임염순도 지식인-기사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편안한 자리에 옮겨앉아서 기사의 대우는 받으면서 가정살림에 몰두하며 사람들이 기사라고 부르는것이 아니라 《아주머니》라고 부르고있는데 대하여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게 되었다. 그들은 가정부인이라는 칭호를 만능의 방패로, 량심의 가책을 마비시키는 중화제로 리용한다. 그리고 일군들도 이에 관습되어있으며 심지어 가정부인은 아무것도 할수 없는것으로 단정하고 또 그들에게 책임적인 과업을 주지 않는것을 그들에 대한 《배려》로 생각하는데까지 이른 다.

작가는 바로 여기에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중요한 지식인문제의 하나가 있다고 보고 가정부인기사들을 가정관념에서 해방하여 당당한 기사가 되게 하는데 형상의 초점을 두었다.

이 문제해결에서 중요한 고리로 되는것은 남편과 지도일군들의 관점과 작품인것이다. 그리하여 작가는 남편들을 시대의 요구에 민감하고 자기 사명에 충실한 지식인으로 묘사하였다. 부부간의 생활, 가정적행복은 안해가 남편공대를 잘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기사로서 아버지수령님께 충성다하는데 있다는것을 남편들이 안해에게 설득시키고 그렇게 실천하며 참다운 행복을 창조한다.

지도일군들속에서는 가정부인 기사들이나 《실패한》 기사들에 대한 관점을 고치고 그들을 믿고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한 투쟁을 벌임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다.

자기 사명을 망각한 기사들의 자각을 불러일으키는데서나 일군들의 관점을 바로잡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당의 지도이다. 이 작품에서는 당적지도를 3대혁명소조원의 형상을 통해 구현하였다.

작가는 지식인의 자각정도를 가정부인기사가 남자들도 하기 어려워하는 공사지도를 차칭해서 말아나서는 수준에까지 끌어올렸다.

소설에 제기된 사상은 한사람의 락오자도 없이 모든 지식인들이 일렬횡대로 서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발맞추어 나아가야 한다는것이다. 일

이렇게 함에 있어서 중요한것은 지식인들이 안일성에 빠지지 않는것이다. 주인공들은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이나 작품보다도 자기자신의 안일성을 극

복하는것이 더 어렵고 중요한것으로 보고있다.

주인공 정춘애가 전투적인 생활속에 뛰어들어 보람을 느끼는 심정을 소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정춘애는 가슴속에서 문득 해빛처럼 따사롭고 거대한 고마움이 조수처럼 밀려들었다. 그가 태어나고 성장해온 지나간 세월은 더 말할것도 없고 기사의 의무를 자각하고 생활의 언덕으로 치달아오르게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하루도, 어느 한 순간도 빠짐없이 받아안게 됨으로써 공기처럼 익숙해진 사회적혜택에 대한 고마움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이것은 오늘의 우리 현실에서 지식인문제는 곡절 많은 경력이나 과오로 해서 고민한다든가 보신주의, 소극성으로 해서 또는 일군들의 작품으로 해서 제기되는 문제에 기본이 있는것이 아니라 행복속에 사는것으로 해서 안일해지고 자기 의무를 망각하는데 기본이 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다. 오늘의 지식인문제에서 이것이 전부라고는 할수 없지만 이 문제는 확실히 새 세대들속에서 오늘에 와서 새롭게 제기된 문제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것만은 명백하다. 그리고 또 이 문제는 그 해결의 열쇠가 새 세대지식인들 자체속에 있다는것도 보여주고있다.

80년대의 우리 현실에서는 확실히 지식인의 구성이 달라졌으며 새 지식인들의 정신적품모는 낡은 관점에서의 지식인근성이란 없는것이다. 결함이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생활환경, 사회조건과 관련되는것이며 능히 극복할수 있는 그런것이다. 오늘의 새 지식인들은 자기들의 사상적각오, 혁명적열정이 로동자, 농민보다 결코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중대한 력사적사명을 담당수행하고있다고 당당히 자부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중편소설 《생활의 언덕》은 소박한 이야기속에 오늘에 제기되고있는 중요한 시대적문제, 지식인문제를 제기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장편소설 《전변》에서는 오늘의 지식인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제기하였다고 볼수 있다.

공화국의 품에서 자라난 로동계급출신의 새 지식인인 연구사 강철규는 그가 공부를 하여 로동자로 부터 지식인이 되었다고 하여 로동계급적인 자각이 무디여진것이 아니다. 혁명의 주인다운 각오에 능력, 기술, 과학지식이 더 첨가되어 그야말로 힘있는 존재로 되었으며 자기가 힘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사고하고 활동하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에 리익을 줄수도 있고 손실을 줄수도 있다는것을 충분히 자각하고있는 사람이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에게는 자주의식이 높으며 사업과 생활에서 주인으로서 행동하고 책임지는 립장에 서는것이다.

그가 자기 개인의 운명, 리해관계를 초월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를 관철하는것을 신성한 의무로,

절대적인것으로 간직하고있다는것은 축세기의 기술적문제가 개인의 운명과는 상관없이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것을 깊이 자각하였기때문에 그것을 구출할수 있는 유일한 출로가 축세기실험 실패가 빚어낸 모든 후과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다 결머지는데 있다는것을 깨달았을 때 서슴없이 그것을 스스로 받아안은 데서 잘 나타나고있다. 그 결과 그는 강직되고 수도에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으나 그는 그것에 개의치 않고 진지하게 연구사업을 계속한다.

그의 주인공은 자각은 또한 희금속강판에 의한 축세기 연구가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비철관으로 축세기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연구사업에 달라붙는데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충성과 효성으로 받들어나가려는 철석같은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가질수 있는것이다. 이 인물은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나아가고있는 우리 시대, 우리 현실이 요구하는 참다운 지식인의 전형인것이다.

작가는 우리 시대 지식인의 긍정적전형을 묘사하면서 늙은 세대, 새 세대의 각이한 지식인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늙은 세대에 속하는 선우영은 이미 혁명화되어 자기만이 아니라 후대까지도 혁명에 충실한 과학자로 키워냈다. 새로운 지식인이기는 하나 늙은 세대에 속하는 안준태는 범한 파오로 해서 위축된 지식인이며 당조직의 세심한 보살핌이 있어야만 자기의 역할을 할수 있는 나약한 인물이다. 철규의 딸 강진규는 아버지수령님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개인적고통도 견디어내는 믿음직한 지식인으로 자라났다.

늙은 세대, 젊은 세대 할것없이 고민도 있고 결함도 있기는 하지만은 어쨌던 모두다 장엄한 변혁의 시대에 지식인으로 된 의무를 다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었으며 그 과정에 성과도 내고 자신도 발전하고있다.

그러나 이 전반적인 진군운동속에서도 탈선하는 인간이 있다. 그것도 당의 배려와 신임을 많이 받은 새 세대 지식인들속에서 생겨난것이다. 이 소설에서 최명결이가 바로 그러한 인물로 묘사되어있는데 그의 본질은 무엇이며 결함의 근원은 무엇인가?

중편소설 《생활의 언덕》에서는 새 세대 지식인속에서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가 고마운 은덕에 너무도 관습되어 그것을 잊어버리고 안일해이해지는 데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면 장편소설 《전변》에서는 우리의 재능있는 새 세대들앞에는 무엇이든지 될수 있는 광활한 길이 활짝 열려져있어서 그 혜택에 관습된 나머지 진지한 탐구와 노력이 없이 고생은 적게 하면서도 분에 넘치는 많은 몫을 차지하려는 욕망이 앞서 허영심에 들뜬 위선적인 인간이 생겨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이 인물의 형상

은 역시 현실의 반영이며 이 인물과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 역시 심각한 지식인문제라고 아니할수 없는것이다.

×

이상에서 간단히 고찰한바와 같이 우리 문학은 빛나게 해결되고있는 지식인문제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형상화하였다. 그러나 지식인형상이 완성된 경지에 도달한것은 아니며 새로운 높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형상을 더욱 완성해나가야 할 과제가 앞에 놓여있다.

사회가 더욱 발전하고 우리 당의 온 사회의 인테리화방침이 현실화되어감에 따라 지식인문제는 더욱 폭이 넓어지고 심화되지 않을수 없다. 세계의 자주화위업이 진척되어감에 따라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사회주의세력이 더 발악적으로 책동하게 되는것은 오늘의 국제정세가 립증하고있다. 이러한 내외적정세와 조건하에서 지식인들, 특히 새세대 지식인의 사상교양문제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는것이다.

여기에서 행복에 겨워 행복의 근원을 잊어버리고 향락만을 누리려는 안일한 경향, 성공에 도취하여 쉬운 길을 택하려는 출세주의적인 경향은 지식인들속에서 있을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문제가 아닐수 없다. 따라서 《전변》에서 묘사된 최명결과 같은 새 세대지식인들이 어떤 생활적경로를 거쳐 개조되고 재생하겠는가 하는가에 대해서도 예술적으로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는것이다. 투쟁속에서 자연도태되리라는 암시만으로는 부족한것이다. 전변이라는 소설안에서 이러한 문제까지 다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할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시대가 해결을 기다리는 문제인것만큼 그에 대한 예술적해답을 주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지식인의 대렬이 늘어나고 국가, 사회조직의 지도성원들이 인테리화되는 조건에서 지식인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띠지 않을수 없는것이며 문학에서 지식인형상의 범위도 달라지지 않을수 없다.

오늘의 우리 사회에서 정치일군, 당일군의 대부분이 지식인인것이다. 기사나 연구사만이 아니라 공업과 농업의 관리일군들의 대부분도 지식인인것이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식인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풀어야 시대의 요구에 맞는가 하는것도 탐구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현시기 우리 앞에는 지식인형상에서 달성한 지난날의 성과에 기초하면서 시대의 새로운 요구를 보다 깊이있게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할것이다. 이 문제해결에서도 우리 문학은 현대인류문학의 첨단에 서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는것이다.

성스러운 교단우에서

리덕진

첫아침

첫 교단에 오르는
내 꿈에도 그려본 아침이다
어머니조국의 축복인듯
해빛은 교정의 창가에 쏟아지고
교재원에 밤새 피어난 꽃들도
이슬을 머금고 기쁨을 속살거린다

내 이제 지시봉을 들고
교실에 들어서면
보조개 곱게 피우며
일시에 지켜볼 맑은 눈동자들
가슴에 넘치도록 안겨와라

내 마음
한없이 설레이는 아침이다
밤이 깊도록 어린 가슴들에 안겨줄
첫 말을 되새겨보기도 그 몇번
정성을 기울여 교수안을
다시 쓰기 그 몇번

대학시절에 배운 깊은 지식
다 알려주고싶은 마음
펼쳐든 교과서
들고선 직관물의 선과 색깔도

내 다시 익혀보고 익혀보나니

아 희망찬 조국의 앞날이 비긴
새 세대들의 그 맑은 눈동자들앞에
내 무엇을 안고 나서야 할것이나
푸른 꿈으로 가득찬 가슴들에
내 무엇을 심어주어야 할것이나

내가 배워주는 모든것
내가 강의하는 교수안의 구절구절이
그 깨끗한 가슴들에
우리 당을 받드는 랑심이 되고
우리 당을 따르는 삶의 이정표가 되려니

아, 교원
얼마나 성스러운 임무를
내 지금
가슴무거이 안고선것인가

이 교단에 나를 세워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믿음을
다시 새겨안은 아침이다
혁명가의 숭고한 사명을 자각하며
조국의 미래와 마주서는 아침이다

교원

교원
부를수록 긍지로 차는 말
언제면 내 교단에 오를가
내 마음속으로만 불러보던
그 이름 교원-혁명가

꿈많은 학창시절
남모르게 지시봉을 들고
칠판앞에 서보던 그 별많은 밤
얼마나 자주 이날을 그려보았던가

보람찬 대학의 그날이
어제런듯싶은데
하얗 높뛰는 가슴으로

내 오늘 첫 교단에 나섰나니

노을이 피어나는 제철지구
원격조종실 배전반앞에서
기계화의 발동소리 높은 풍년벌에서
조국의 행복을 가꾸어갈
앞날의 기사들을 그려보며
나는 첫 수업을 시작한다

장엄한 새 숨결 터뜨리며
태어나는 기계와 함께
쫓구쳐오르는 대기념비와 함께
시대의 영웅으로 자랄
자랑찬 그 모습들을 그려보며

나는 칠판우에 첫글을 쓴다

아 교원

얼마나 성스러운 임무를

내 지금 가슴무거이 안고선것인가

나를 바라보는 저 새 세대들을

조국앞에 성실한 아들딸로 키워야 하거니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이 임무

어머니당이 맡긴 이 교단우에서

내 오늘 조국의 미래를 책임진

참된 삶의 첫걸음을 내짚는다

혁명가의 영예속에 영원히 빛날

보람찬 한생을 시작한다

사랑의 교재원

푸른 아지사이로

천가닥 만가닥

따사로운 햇빛 스며드는

맑고 청신한 봄날

아이들과 함께

교재원에 들어선 내 마음

하얗게 설레이누나

봄물이 오른 저 나무잎새들처럼

울창한 밀림이면

이런 갖가지 꽃으로 설레이라

깊은 심산속이면

이런 향기로 가득 넘치라

이 땅에 자라는

하얗게 꽃과 나무들을

생물교재에서 그림으로만 익히던

그 안타까움을 헤아려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바다가 아이들도

조국의 푸른숲을 안고자라라고

갖가지 나무들 보내주시여

천만잎새들이 밀림처럼 무성했나니

은혜론 그 사랑을 안아

교재원은 저리도 설레이는가

아침이슬 털며

봄날을 지저귀는

새울음소리도 한없이 정답구나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의 푸른 숲을

우리 교재원에서 다 본다고

새별 눈동자를 빚내이며

저저마다 가슴속 기쁨을 터놓는 아이들아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더 알고싶은 너희들의 물음에

내 신뜻 대답을 못하겠구나

아 한그루의 나무 한송이의 꽃에도

너무도 크나큰 뜻이 실려있나니

우리 함께 안아보자 조국산천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꾸려주신

사랑의 교재원에

무성하는 저 나무들처럼

조국땅우에 억센 뿌리를 내리우고

햇빛을 우러러 푸른 꿈을 펼쳐가자!

스승에 대한 생각

내 오늘 교단에 서니

나를 키워준 어린날의 옛 스승

대견한 미소로 나를 지켜보는것 같구나

내 그의 눈길앞에서

칠판의 숙제를 풀던 그날처럼

세월은 멀리 흘러갔건만

고사리같은 내 손을 펴고 곱혀주며

때로는 주머니속 성냥가치도 꺼내어

더하기와 덜기를 익혀주던 그 모습

왜 이리도 애뜻한 추억의 문을 두드리며

못견디게 내 가슴에 안겨오는것이냐

이제는

도수높은 안경이 근엄해도

사랑하는 모교를 떠나지 않고

그날의 그 모습으로 교단에 서있는
아 내 유년시절의 첫꿈을 키워준 스승이여

부드러운 봄잔디 파아란 강변에서
해종일 잡자리 쫓아헤맬 때
내 손을 따뜻이 잡아 이끌어
불밝은 창가에서 밤깊도록
수학풀이로 예지의 눈을 띄워주던 그 마음
내 오늘에 와서 뜨겁도록 새기고

맑은 물 여울치는 시내가에서
물장구질에 해저무는줄 모를 때
다 끝내지 못한 숙제를 두고
엄한 추궁으로 떨리던 그 목소리
자식의 잘못을 아파하는 어머니 사랑이던줄
내 오늘 교단에서 다시 깨치노니

아 눈보라치고 비바람부는 날에도
복습지도의 험한 고개길 넘어오던
스승의 그 자욱자욱이
나의 성장의 걸음을 반들어주었구나
교원-혁명가로 살아온 빛나는 한생이
제자들을 조국앞에 땀땀이 내세웠구나

별들이 창가에 내려앉아
속삭이는 깊은 밤
나는 오늘도 일기를 쓰노라
책상에 조용히 마주앉아
내 하루를 돌이켜보노라

그러면
한없이 정겨운 시선이
나를 따뜻이 굽어보시는듯
때로는 남모르는 기쁨속에
웃음을 피우고
때로는 뼈아픈 자책속에
깨끗한 량심의 거울에 비치듯
내 하루의 생활을 적어갈 때면

자애로운 어버이 손길로
나의 어깨를 정답게 두드려주시며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당은 언제나 교원을 믿고
혁명의 후대들을 맡겼다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러하듯이 스승에게도
영웅이 되어 돌아온 제자들을 껴안고
기쁨에 목메이던 때도 있었으리
제자들을 키우며 애타던 마음
후더운 눈물속에 돌아보며
남모르게 눈굽을 닦았을 때도 있었으리

말썽 많던 자식이 철이 들면
속태운 어머니 그 마음 더 알듯이
내 오늘 교단에 서니
나를 키운 스승의 수고많은 그 나날들이
이리도 못잊을 추억속에 안겨오는것인가

어린 날 내 가슴에 심어준 그 모든것
영원히 내 숨결과 함께 살아 뛰려니
그대는 어제도 나를 키운 스승
그대는 오늘도 나를 이끄는 스승

아 나도 살리라 스승이여 그대처럼
나의 한생이 후대들의 가슴에 남도록
나의 한생이 후대들의 삶에 이어지도록
그렇게 살리라 그것이 교원의 본분임을
나를 깨우쳐준 그대 참된 스승이여

나의 일기

그 후더운 믿음으로
나를 따뜻이 일깨워주시나니

그러면
례사롭게 흘러보낸
하루의 순간순간들이
내 가슴에 다시 조용히 깃들며
새로운 의미로 펼쳐지노라

시대앞에
후대들앞에
성실한 교원의 량심을 다 바쳤던가
스스로 묻고 또 물어보는 내 마음은
한생을 후회없이 살 맹세로 가득차노라

당을 받드는 그 한길우에
영원히 자신만이 아닌
후대들의 천만걸음을 따라세우며
드림없이 걸어갈 내 삶의 이 총화

아, 나는 이밤도 일기를 쓰노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우러러

내 하루의 총화를 아뢰이노라
참된 삶의 이 하루하루가

내 한생의 총성의 탑으로 빛나리니
나는 그 어느 하루도 공백으로 남길수 없노라

성스러운 나의 교단

이제는
하루에도 그 몇번
례사롭게 올라서는 교단이건만
날이 갈수록 어깨는 무거워
그 어느때도 무심히 설수 없구나

지식이 높아서만
내 교원이 아님을 아노라
시대앞에 지닌 사명감 없인
나설수 없는 나의 교단
저 높은 미래의 봉우리에로
조국을 떠메고갈 어깨들이 자라는곳

후대들의 마음속 그 푸른 꿈을
내 먼저 안아보며
날마다 교단에 설 때면
이 가슴엔 긍지가 넘쳐나더라

교단에 올리는 나의 말 한마디
칠판에 쓰는 글줄 하나도
저 어린 심장들엔
시대의 드높은 숨결이 되고

저 꿈많은 가슴들엔
조국땅우에 펼쳐갈
용해장의 쇠물폭포로
농장벌의 황금파도로
들끓는 건설장의 불야성으로 새겨지나니

오, 교단
내 여기서 책임지노라
후대들이 걸어갈 미래의 공간에
눈부시도록 펼쳐질 창조의 새 세계도
조국앞에 나설 후대들의 그 깨끗한 량심도,

나는 아노라
이 성스러운 자각없인
순간도 설수 없는 나의 교단
이 교단에 나설 때면
내 마음 맑은 거울과도 같아야 함을,

그렇더라
시대의 정의로
시대의 량심으로
시대의 예지로 닦고닦아야 하는 그 거울
만약 그 거울속에
티한점 았았다면
내 어이 그 거울로 저 맑은 눈동자들을 비쳐주랴

아 그래서
한번 교단에 서기 위해
교원된 성실한 마음
천번을 헤아리고
만번을 되새겨보며
조국의 미래앞에 나서는것이여라

동명왕릉에서

박창민

구름 한점없이 맑게 개인 날이었다.

평양시에서 동남쪽으로 50여리 떨어진 력포구역 룡진리에 있는 동명왕릉은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근로자들로 하여 명절처럼 흥성거리고있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자랑높은 고구려의 첫 왕인 동명왕의 무덤이 자리잡은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나는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이곳에 와본지 몇년이 지나긴 했지만 이렇게 몰라보게 변했던단인가.

정말 훌륭하게 꾸려져있었다.

나뿐아니라 사람들모두 옛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희한함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정성들어 정리한 무덤, 무덤앞의 돌사람, 돌짐승 조각과 정자각, 비각들,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를 보여주는 동명왕릉전시관... 모두 귀중한 국보이다.

불어오는 바람에 짹짹-설레는 소나무숲속의 휴식터들은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얼마나 즐겁게 하는가.

그 어디를 둘러봐도 고구려의 력사와 선조들의 씩씩한 기상, 슬기로운 재능을 보여주며 우리 나라 력사와 문화연구에서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귀중한 유적이 잘 보존되고있었다.

한걸음 또 한걸음... 무심히 걸을수 없었다.

나의 눈앞에는 동명왕릉을 돌아보시며 잘 꾸렸다고 그리도 만족해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뜨겁게 안겨왔다.

나는 숭엄한 감정에 후터워지는 눈길을 들어 우리 인민의 자랑인 동명왕릉을 둘러보았다.

동쪽을 바라보면 제령산의 가지줄기가 남북으로 뻗어가고 남쪽과 서쪽을 바라보면 동서로 뻗어간 마장산의 가지줄기에 에워싸여 아늑한 감을 주고있다.

그런가 하면 동북쪽 평양으로 통하는 길만은 탁 트여있어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준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락랑준평원이 펼쳐져있는 평원지대의 동쪽 변두리에 위치하고있는 이곳은 넓은 지역에 소나무숲이 우거져 예로부터 경치 아름답고 살기 좋은곳으로 알려져있었다.

왕릉부근에는 사슴, 메돼지와 같은 산짐승이 많아 사냥터로 유명하기도 하였다. 용감하고 슬기로운 고구려인들은 여기서 사냥도 하고 무술도 닦으며 힘과 용맹을 키웠다.

예로부터 이곳에는 동명왕릉이 있었다고 전해왔다.

우리 선조들은 이 무덤을 《왕묘》라고 불렀다.

그러나 오랜 세월 봉건적폐쇄에 의해 왜소화되고

제국주의자들에 의해 우리 민족문화가 말살되어 세계에 자랑할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는 많은 문제들이 해명되지 못하였다.

동명왕릉도 그러했다.

력사학자들도 옳게 해명하지 못하였으며 또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동명왕릉문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해 비로소 새롭게 발굴되고 해명되고 정리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동명왕릉을 조사발굴할데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김일성** 종합대학 교원, 학생들에게 친히 맡겨주시었다. 그러시고도 그이께서는 이 사업을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기여하는 중요한 문제로 여기시고 끊임없는 지도를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유적을 발굴하고 복구하는데서도 역시 우리는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과 력사주의적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민족문화유산을 옳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데 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로 드디어 동명왕릉을 비롯한 그 부분의 20여개의 고구려무덤들을 조사 발굴하고 정리하게 되었으며 1개의 못과 3만평방미터에 달하는 건축지를 발굴정리하게 되었다.

빛나는 예지와 비범한 통찰력을 지니시고 과학리론적문제들을 명철하게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의해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겨온후 만든 무덤인 동명왕릉에 대한 많은 문제들이 마침내 해명되게 되었다.

왕릉의 구조형식과 벽화, 유물 등 문화유물은 강대국이었던 고구려의 력사를 잘 보여주었으며 왕릉 무덤이라는것이 론박할 여지없이 력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해명되었다.

동명왕릉과 그 부근의 고구려유적은 선조들에 의하여 개척되었고 발전하는 우리 민족의 력사와 더불어 찬란한 문화를 창조해온 우리 인민의 재능과 슬기를 보여주는 귀중한 재보이다.

오늘 동명왕릉은 국가적으로 잘 보존되고 알뜰히 정리되어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우리 민족의 긍지와 자랑을 가슴가득 안겨주는 조선력사학습장소로 되고있다.

나는 하나의 유물, 한줄기 샘물, 하나의 시설물도 무심히 볼수 없었다.

나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느낌은 더욱 강렬하였다. 한 외국인은 우리의 안내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은 지난날의

것은 다 낡고 부패한것이라고 하면서 말살해버린다고 선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와보니 민족문화유산이 어떻게 보존되고 계승발전되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는 로인들 또한 크게 감동하고있었다.

력사의 증견자처럼 수백년 세월 푸르려 설레이는 락락장송아래 모여앉아 깊은 감회에 잠겨 흘러온 인생을 추억하고있던 백발의 로인들은 흥분하고있었다.

《왜정때 여기가 왜병놈들의 훈련장이였수다. 그 섬오랑캐놈들의 군화에 짓밟혀 산천도 빛을 잃었던 곳이었지요.》

이고장에서 대대로 살아온다는 80고령의 로인의 말이었다. 그러자 한 로인이 격분을 참지 못해 열변을 토하였다.

《그놈들은 여기서 술한 조상들의 유물을 도적질해갔지요. 지금도 도적고양이처럼 무덤을 파헤치던 왜놈들의 물결이 잊혀지지 않수다.》

로인들의 기상은 자못 엄엄하였다. 그랬다. 동명왕릉은 왜놈들에 의하여 여러번 도굴당하고 파괴당하였다. 강도 왜놈들은 이 무덤과 부근의 고구려무

덤들을 파헤치고 그안의 유물들을 도적질해갔다.

어찌 여기뿐이라. 왜놈들은 우리 나라의 곳곳에서 금은보화를 약탈하였을뿐아니라 조선의 민족문화를 말살하려고 《동조동근》이요 《내선일체》요 하면서 우리의 말과 글, 이름까지 쓰지 못하게 하지 않았던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민족의 존엄과 유구한 역사를 란도질하는 강도를 용서하지 않으시였다. 하여 손에 직접 무장을 잡으시고 조국해방의 성전으로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시였으며 드디어 일제를 타승하고 행복한 인민의 락원을 세우시였다.

여기 동명왕릉만 보아도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주인이 없어 쓸쓸한 바람만 불어치던 이곳이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의 손길아래 인민들이 휴식의 한때마다 즐겨찾는 명승지로, 우리 나라 역사의 증견자로 높이 솟아오르지 않았는가.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푸르른 소나무와 더불어 굽어지는 산천이였고 웃음꽃 피는 청춘들의 행복한 모습들이다.

나는 우리 조국의 역사를 말해주는 뜻깊은 동명왕릉에서 사진을 찍었다. 사진 뒤면에 《동명왕릉》에서 라는 글발을 새겨넣으리라 생각하며...

수 필

우표수집책을 펼치고

민경숙

나는 우표수집애호가이다.

하지만 아직은 누구에게 우표수집애호가라고 자처할만큼 많은 우표를 수집하지는 못하였다.

세계에는 우표수집에 상당한 취미를 가지고 우표가 나온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우표들을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사실 우표는 당대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세태풍속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어 먼 후날에 가서도 그때 사회를 음미해볼수 있는 산 력사자료라고 할수 있다.

세월이 흐른뒤 이 우표수집책을 번지며 우리 조국의 자랑찬 역사를 더듬어본다는것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이런 의미에서 우표수집은 자기가 부러워할수만 있다면 한번 해볼만한 일인것이다.

어느날 나는 이 우표수집책으로 하여 예상치 않았던 충격을 받은적이 있다. 우리 집에 문단에서 판독이 있는 시인이 모처럼 찾아왔었다. 그때 나는 웬간해서는 누구에게 보이지 않는 우표수집책을 그 앞에 꺼내놓았다. 재능있는 시인인 그가 거기서 어떤 시상을 받아안을수도 있지 않을가. 이를테면 그에게 《특혜》를 베푸는 셈이었다.

《허, 동무에게 이런 취미가 있었는가.》

보내 시인은 몹시 좋아하는것 같았다. 우표수집책을 펼치는 그의 얼굴에는 은근한 미소까지 어리

는듯싶었다.

첫장에는 해방후 우리 나라의 첫 우표 《무궁화》가 나온다. 불철마다 걸잡을수 없이 가슴을 울렁이게 하는 공화국의 첫 우표 무궁화!

시인의 시선도 좀처럼 거기에서 움직일줄 모른다. 저 우표야말로 일제의 구두발에 짓밟혀 36년간. 피눈물의 암흑속에서 헤매이던 우리 인민이 조국해방의 감격과 기쁨을 상징한것이 아닌가.

그것을 보느라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추켜올리신 주체의 붉은기를 높이 들고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간 투사들의 모습이 거대한 화폭으로 눈앞에 그려진다. 너무나 많은것을 이야기해주는 저 우표...

그 옆에는 바지를 무릎까지 걸어올린 농민이 평생 처음 제 땅에 밭을 가는 모습과 버단을 한가슴에 안은 녀인의 환희에 넘친 얼굴이 보인다. 그것은 토지개혁을 반영한 우표다. 그 아래에는 련이어 착암기를 어깨에 멘 광부의 기쁨넘친 구리빛얼굴이며 책을 들고 글을 읽는 녀인의 행복한 모습들이 련이어 흐른다.

아마도 그 우표들은 토지개혁에 뒤이어 실시된 중요산업국유화법령과 남녀평등권법령, 로동법령 발포 등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반개혁들을 반영한것들이리라.

얼마나 격동적인 나날들인가, 불수록 내가 그때의 환희와 감격을 체험하는듯만싶다.

시인도 흥분하는것 같았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그 우표들은 그때의 일을 그대로 반증하는 산자료였던것이다.

나는 시인을 방해하지 않을양으로 조용히 창가에 다가갔다. 하지만 눈앞에는 잊을수 없는 화폭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른다.

조국해방전쟁의 승리, 전후복구건설, 사회주의건설의 장엄한 모습이며 공업과 농업, 경공업의 발전성과들, 우리 당 력사에 아로새겨진 당대회의 중요 문헌들, 경축행사들, 국제친선의 화폭들...

《이 우표수집책은 정말 우리 조국의 승리의 력사를 수록한 셸이구만 대단하오.》

시인의 감동에 넘친 목소리였다.

우표수집책을 처음 보여줄 때의 나의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셸이었다.

한순간 갈린듯한 시인의 목소리가 흐뭇함에 젖어들던 나의 가슴을 울렸다.

《가슴이 아프네 가슴이...》

나는 반사적으로 머리를 들었다. 시인의 얼굴은 무척 어두웠다.

《여기엔 승리의 력사만이 아닌 분단의 력사도 새겨져있구만, 분단의 력사가 이렇게도 길었던말인가...》

큰 충격이 나의 뇌리를 쳤다. 나는 시인이 펼쳐든 장에 시선을 모았다.

늘어진 철조망, 잠판목속의 분계선표말, 옷 앞섶을 헤치고 항쟁을 호소하는 청년의 모습...

한순간 나는 이 시인이 조국해방전쟁시기 의용군으로 공화국북반부에 들어온 사람임을 상기했다.

나의 귀전에는 환희로운 명절의 그밤에조차 친구들이 모여앉은 자리에서 시인이 목메여부른 시구절이 들리는듯싶었다.》

...

중세기도 아닌 오늘의 세기

문명과 리성의 세기에

40여년 생리별이 이 나라에 있음을 세상은

아느나

맹자나무울타리결에서 헤여질 땐

마흔도 못되어 쫘디쫘더니...

아 믿기조차 어렵구나

뼈아픈 분렬의 력사가

이처럼 길고길줄은...

열일곱살 흥안의 시절에 의용군에 입대하여 고향을 떠나올 때 자꾸만 따라서는 어머니를 떠밀며 인차 돌아오겠는데 뭘 그러는가고 투정을 부렸다는 시인이었다.

그 시인이 이제는 50고개를 훨씬 넘어 환갑나이에 가까왔다.

그때의 작별의 쓰라림을 안고있는 그가 년년이 새겨온 민족분렬의 력사를 상징하는 우표들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아팠겠는가.

나는 죄스러운 느낌마저 들었다. 방안에는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문득 시인이 입을 열었다.

《오늘 좋은걸 보여주어 정말 고맙소.》

《네?-》

《난 여기서 달리는 뭘수 없는 력사의 장엄한 흐름을 본것만 같소.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때로부터 우리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걸어왔소. 이 거창한 흐름속에 분단의 장벽은 기필코 무너지고야 말것ियो.》

한순간 나는 이릅키 어려운 거대한 무엇을 안은듯싶었다. 거창한 흐름! 그렇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한길을 따라 우리 조국은 빛나는 승리의 한길만을 걸어왔다. 그것은 정녕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의 력사였다.

이럴진대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쌓아놓은 민족분렬의 상징 철근콘크리트장벽이 어찌 맥을 출수있단말인가.

보라, 조국통일의 열망안고 머나먼 유럽과 미주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동포들을, 보았으리라, 분단력사에 처음으로 무어진 유일팀이 세계무대에 나가 슬기와 용맹을 떨치고 하나임을 보여주며 창공높이 휘날리던 우리 기발을, 그 경기장에 울려퍼지던 통일 만세의 웨침소리를! 용맹을 떨치고 하나임을 보여주며 창공높이 휘날리던 우리 기발을, 그 경기장에 울려퍼지던 통일 만세의 웨침소리를!

력사의 필연이란 말은 이 모든것을 두고 하는 말일것이다.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이 제아무리 우리 인민의 통일의지를 꺾어보려고 발광해도 하나된 조국에서 살려는 전체 조선인민의 불같은 통일열망을 막을수는 없다.

나의 우표수집책에는 우리 조국의 룡성번영의 력사와 함께 민족분렬이라는 쓰라린 아픔도 깃들어있다. 하지만 나는 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의 대강따라 반드시 이루어질 통일의 그날을...

그날에 반세기를 두고 다져진 통일열망의 분출인양 분단의 장벽이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을 찍은 우표가 나올것이고 북남 전체 인민이 통일의 광장에서 기쁨에 겨워 울고웃는 화폭을 담은 우표도 인쇄돼 나올것이다.

나는 나의 우표수집책에서 조국통일의 광장으로 굽이쳐가는 위대한 력사의 흐름을 보았다.

미구에 나는 여기에 통일의 광장을 새긴 가장 큰 우표를 끼워넣을 감격의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될것이다.

옛초소를 지나며

최정용

굽이굽이 산굽이를 에도는
렬차안에서
문득 나는 보았어라
못잊어 언제나 그림던
병사시절의 옛초소를

숲속에 묻힌 고개길이며
산정에 아로새긴 《일당백》 글발
그밀 후미진 숲속엔
전사들의 단가슴 식혀주던 초소의 웅달샘
오늘도 소중한 추억을 불러 솟아오르리

아, 지금은 어데 있는가
하나같이 미더운 그날의 전우들
이제 한마디 구령만 울려도
번개같이 달려와 발끝을 맞추며
어깨 나란히 대오를 지을듯싶은
나의 옛분대원들이

나의 옛충번호 《2047》
지금은 그 어느 전사의 손에 쥐어져있을까?
내 또다시 총을 메고
듣고싶어라
훈련의 땀젖은 산발들에
랑랑히 울리던 나팔소리
엄격한 중대장의 반복구령소리

눈섭조차 무겁던 강행군길에
동지의 중기관총 받아며며 내 넘어선것은
힘준한 벼랑, 사품치는 강하만이 아니였거니
결코 쉽지 않더라
병사의 의무를 다한다는것이
자기를 바쳐 동지를 위한다는것이

하여도 소중한 삶의 보람
병사의 가슴에 깃들었나니

수호자의 사명감으로 가슴 불타던
그 나날에 나는 알았노라
복무의 정신에서 아름답게 샘솟는
사랑의 참뜻을
행복을 누릴 권리가
그 어디서 시작되고 꽃피는것인지

진정 언땅에 배를 대고 가슴으로 안아지킨
그 땅 한치한치 나에게 없다면
성실한 복무의 나날이 나에게 없었다면
내 그 무엇을 말할수 있으랴
인생에 대하여 조국에 대하여
후대앞에, 내 귀여운 자식들앞에

가슴뜨거운 생각을 떠시고
렬차는 옛초소를 지나도
마음에 떠날줄 모르는 그 시절 추억이여
언제가도 그 언제가도
너는 내 심장속에서 사라지지 않으리라
땀뻘뻘한 삶의 언덕에 나를 세워주는
영원한 청춘, 병사시절이여!

그렇다 나에겐 있어라
오늘토록 변할줄 모르는 병사시절 말투가
머리 회여가는 오늘에도 즐겨부르는 병사의 노래
병사시절 군사칭호로 상봉의 감격 터치는
참다운 전우의 우정이

환희로 설레는 이 시각
내 온 렬차안이 들썩하게
소리쳐 자랑하고싶어라
저기가 바로 저기가
나의 옛초소이라고
나는 아, 나는
그보다 값높은 칭호 더는 모르는
어제날 병사이라고

한 영예군인의 모습앞에서

김종원

지난 어느 일요일이었다.

출장지에서 돌아온 나는 오랜만에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하러 공원으로 나갔다. 폭음이 우거진 공원에는 휴식의 한때를 즐기는 사람들로 흥성거렸다. 웃음소리가 넘치는 공원의 소로길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을 때 아들이 애를 누짚을 하며 《아버지, 저 사람들이 다 한집안식구들이나요?》라고 묻는 것이었다.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니 대여섯명의 사람들이 모여 삼륜차를 공원계단으로 들어올리고 있었다. 삼륜차에는 환갑을 전후한듯한 사람이 타고있었는데 첫눈에 영예군인이라는 것이 알렸다. 삼륜차를 계단 우까지 들어올린 다음 그들은 승벽내기로 삼륜차를 친절히 밀며 공원의 폭포수가로 가는 것이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류달리 즐겁게 웃는 영예군인의 뒤로는 나이지숙한 한 부인이 송구한 몸가짐으로 뒤따르고 있었는데 얼핏 보기에도 그의 부인이 틀림 없었다. 삼륜차를 거들어주는 사람들속에는 군인이며 대학생, 나 어린 소년단원들도 끼워있었는데 모두가 하나같이 살뜰하고 친절한 것이 한가족같이 느껴지기도 했고 또 그 수가 많아 한가족이라 믿기에는 의문이 갈만도 했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족끼리 많이 움직인 탓에 철없는 어린 것이 그런 질문을 한 모양이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이 가슴은 저으기 뜨거워졌다.

사람들은 그 영예군인의 나이도 이름도 부상경위도 다는 모를 것이다. 하지만 저렇듯 각별한 친절을 베풀며 자기들의 휴식마저 그를 위해 기꺼이 바치기를 즐겨하는 것이다.

어디서나 흔히 목격하는 일이지만 그 시각엔 별로 새삼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아마 그는 조국의 한치 땅도 침략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원썬들과 백병전을 벌리다가 치명상을 입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적후정찰임무를 수행하다가 뜻하지 않게 중상을 당했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사회와 인간을 위해 땀과 열정, 지혜와 창발성, 사랑과 헌신성 등 여러가지를 바친다. 그러나 한번 바치면 다시 얻을 수 없는 육체적 생명을 바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영예군인들은 바로 행복한 오늘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청춘을 서슴없이 바치었다. 그들이 흘린 피는 키높이 솟아오른 저 초고층살림집 밑에 스며있을 수도 있고 그들의 뉘은 우리들이 거니는 저 유보도밀에 어려있을 수도 있다.

하기에 사람들은 평범한 날에조차 자기들의 행복이 그들과 연결되어있음을 잊지 않고있는 것이 아닌

가.

이 세상 가장 큰 영예가 있다면 바로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친 영예군인들의 긍지와 영예감일 것이다. 최우등의 영예, 혁신자의 영예, 우등사수의 영예 등 이 땅에 영예는 많아도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피를 바친 영예군인, 이들의 영예에 그 어이 견줄 수 있겠는가.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날 당과 수령을 위해 청춘을 바친 영예군인들을 더없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들을 우대하고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땅 그 어디에 가서 기차나 버스에 올라도 영예군인좌석, 식당에 가도 영예군인좌석이라는 친근한 글을 보게 되고 상점이나 편의봉사장에 가면 영예군인 우선 봉사라는 말이 정겹게 울려오는 것이다. 그 고마운 마음들은 밭맛 잃은 영예군인에게 색다른 식찬을 해주고 찾아가고 불편해하는 그들을 보면 서둘러 달려가 부축해주고 이끌어주며 한생을 그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고 만사람의 축복속에 새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나는 생각깊은 눈길로 다시 한번 영예군인과 함께 그를 둘러싼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하얀 물안개를 일으키는 폭포수, 그를 바라보며 밝은 미소를 짓는 영예군인, 모두 초면인 듯하지만 다정히 어울리는 사람들은 정말 한집안 식구인 양 친근하게 안겨온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에겐 영예군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더욱 밀물처럼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오르는 것이었다.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얘야, 저 사람들에게는 영예군인 아버지씨가 한가족 한형제와 같이 가까운 사람이라네. 그래서 저렇게 스스럼없이 도와나선 것이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보니 우리 사회의 진면모가 그들의 모습에서 한쪽의 수채화인양 안겨와 저절로 눈곱이 뜨거워올랐다. 정녕 세상 어디에 간들 우리 사회처럼 사람을 귀중히 여기고 사람들사이에 서로 돕고 이끄는 기풍이 활짝 꽃피는 나라를 찾아볼 수 있겠는가! 저 영예군인이 만약 자본주의 사회에 있다면 행복의 절정에 올라 누리는 오늘의 참된 삶을 상상도 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영예군인을 둘러싸고 즐겁게 웃고 답소하며 멀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했다. 어린 나의 아들에게도 달려가 그들속에 끼여들며 나를 손짓해 부른다.

송도원아, 나와 좀 이야기하자

방금속

송도원아, 나와 좀 이야기하자
바라보노라면 마음에도 파아라니 물드는
너의 바다 연초록 물빛
무슨 가락에 담으면 다 보여줄수 있을가

흰구슬 천섬이나 쏟아놓은듯
백사장에 흩어져
구슬구슬 덩구는 진주물결은
어떻게 그려내면 다 보여줄수 있을가

내 한번은 당의 사랑속에 조국을 떠나
지구를 절반 도는
멀고먼 이방의 나라
남방 해변에 간직 있었더라

여러 나라 휴양객들 관광객들
흑해의 모래불을 걸으며 친숙해진 사이라
즐거움속에 벌어지는 한담인즉
세계 이름난 명승지 이야기

누구는 베니스의 물빛을 두고
누구는 나폴리 해안을 두고
또 누구는 어느 대양 섬기슭을 두고
다투어 경탄의 목소리 내어뿜을 때

송도원아, 그때 나는 무척 안타까웠구나
내 어디 가나 너를 등에 지고 다닐수 없는것이
등에 지고 다니며 가는곳마다

너를 보여줄수 없는것이

참말이지 너를 보일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냇을 잃었으리
이거야 어디 물결인가 구슬이지, 옥이지,
너인들 보석목결이감이지... 하고
그리고 말했으리라
이런 물빛 이런 물결에
몸을 잠가 못보고
어찌 세계 관광을 이야기하랴고

천금을 내고도 한번 뛰어들고픈
이런 바다가에
레사로이 덩굴며 사는
당신은 정말 복된 운명 타고났다고

하지만 송도원아 그들은 모르리라
너의 바다 은모래불에, 진주물결에
어떤 해빛 어리여
웃음소리 바다가에 가실줄 모르는지
항시 너의 물결 내 말속에
어찌하여 사랑으로 출렁이는지

내 어디 가나 그 어디 가나
너를 등에 지고다니고픈 이 마음
까닭없지 않은줄
그들이 어찌 알랴